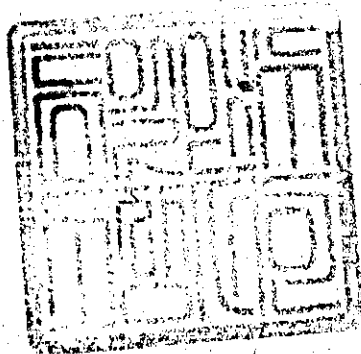


# 청 소 년의 통 일 의 식

—제 7회 국토통일에 관한 작품 현상 모집 당선 작품집—



국 토 통 일 원



## 평화 통일을 위한 3대 기본 원칙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1974. 8. 15 박정희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서



##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 머 리 말

나라의 젊은이는 나라의 생명이며 희망이고 미래이다. 갈라진 조국이 예상보다 빨리 통일된다 하더라도 또 다시 민족이 분열하는 비극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민족의 통일 의지는 자손 만대에 이어 주어야 할 민족사적 명제이다.

당원은 금년에 일곱 번째 국토통일에 관한 작품 현상 모집을 하였다. 이번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과 일반을 상대로 모집하였는 바 그 어느 때보다 전국 각 시도 교육 위원회 반공 담당 장학사와 일선 교사들의 특별 장학 지도로 학생들의 열성어린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엄선하여 추천된 1,892편의 주옥같은 글들이 응모되어 전혀 없던 대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모든 작품이 학교의 명예를 걸고 입선된 것으로서 어느 하나 우열을 가리기에 심사 위원들의 고충은 말할 수 없이 컸던 것이다. 한결같이 작품마다 분단된 국가에 태어나서 국가의 통일 문제를 생각해 보고 또 통일된 조국의 미래를 꿈꾸어 보는 마음은 어른들의 세계를 나무란 듯 하였고, 또 승공 민주 통일을 위한 의지의 굳건함, 그리고 총력 안보 태세 확립에 대한 절규는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족심이 넘쳐 흐르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예측 할 수 있는 것은 조국의 평화 통일은 결코 정부만의 일방적 노력으로는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 전체 국민의 통일을 향한 꿈과 의욕이 함께 결합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민족은 그만큼 통일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바라는 통일은 남북한에 평화가 정착되고 서로 문호를 개방하고 교류하므로써 신뢰를 회복하여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조국을 평화적 민주적으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하여 통일하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

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통일을 위한 국력 배양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6·25와 같은 천인공로할 불법 남침으로 참혹한 동족상잔을 자행하였고 그 비통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무력 적화 통일의 망상에 사로 잡혀 있다. 북괴는 온갖 도발을 일삼아 온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7.4공동성명 이후 비무장 지대에 남침 땅굴까지 파고 또 8·18 판문점 도끼 살인 만행등 침략 행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괴는 청소년 문예 작품을 통해 민족의 평화 통일을 말하게 하는 대신에 김 일성의 교시만 있으면 살과 뼈를 깎아서라도 무력으로 침략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맹서를 쓰게 하고 있다. 또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외우도록 하여서 어린이들에게 까지도 전쟁 준비를 채찍질하고 있다. 민족의 장래 문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작품을 쓴다기 보다는 공산당의 정책만을 지지하고 고무하도록 강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의 실정이다.

이러한 집단을 상대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한다는 것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 조국 통일이 어려운 것이라 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의 통일 의지를 포기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민주 통일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반면에 북괴가 추구하는 적화 통일의 기회를 증대시켜 주게 되는 것이다. 신라의 삼국통일이 여건이 용이하여서 이룩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명한 선조들이 특히 젊은 화랑들이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자기를 엄격하게 수련하고 민족의 통일을 향하여 끈질긴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이룩된 역사적 성과인 것이다. 8·15의 조국의 해방도 애국지사들이 생명과 재산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연합국 지도자들이 우리 민족을 일본의 강점에서 해방하게 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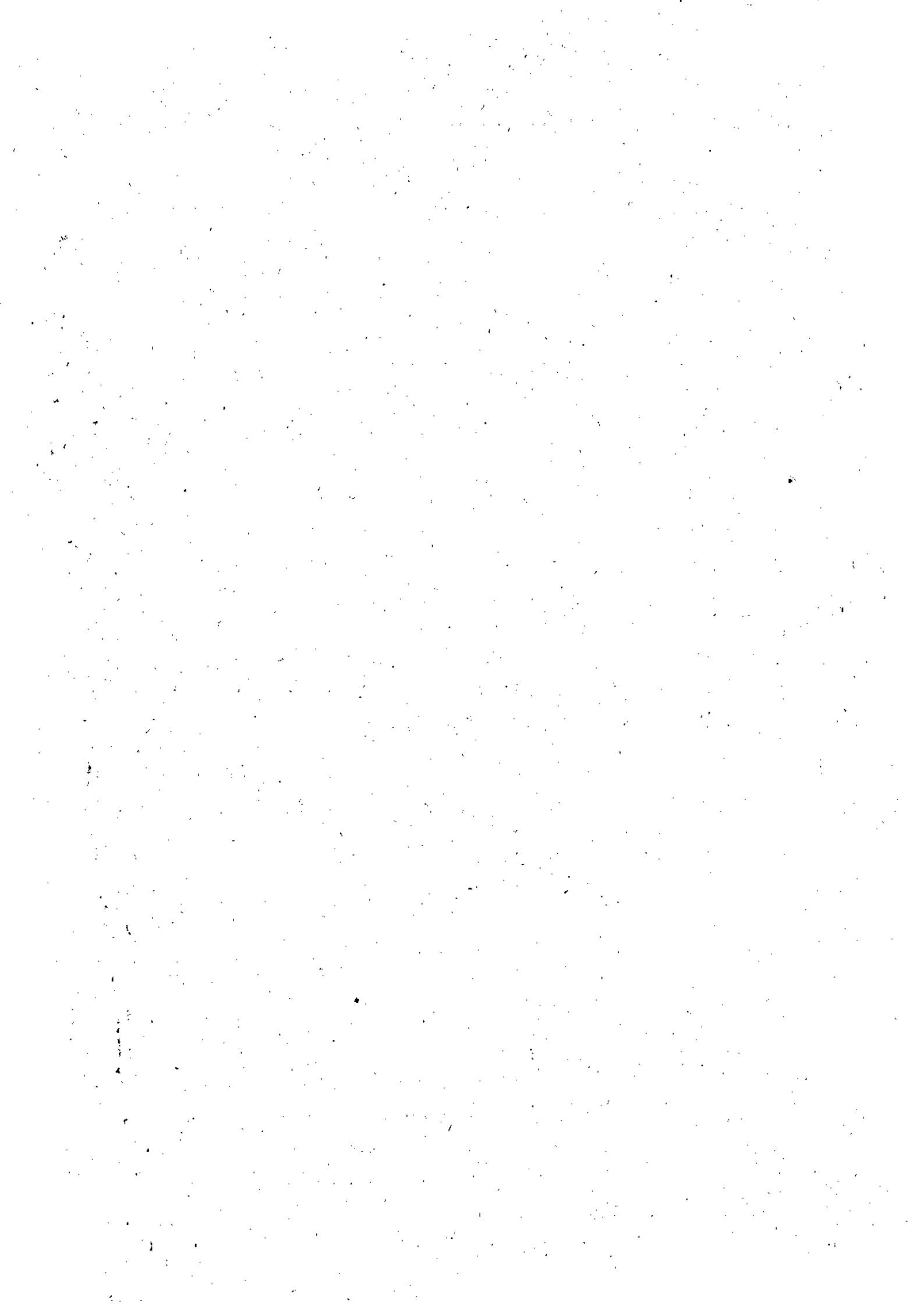
해마다 국토통일에 관한 문예 작품 현상 모집은 그 대상 범위를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의 결의와 의지가 담겨진 이 작품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생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끝으로 비록 당선되지 않은 학생들도 용기를 잃지 말고 더 꾸준한 노력으로 실력을 길러 주기 바라며, 최종 심사를 맡아 주신 아동문학가 윤 석중 선생, 어 효선 선생, 김 요섭 선생, 그리고 안 수길 선생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1976. 12. 1

역 은 이



# 차 례

## 초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작은 봉사 작은 통일 .....김 남 일..... 15

### <우수작>

외삼촌.....한 명 순..... 19

개학하던 날의 공부.....남 선 희..... 23

국토통일.....김 상 희..... 26

### <가 작>

철마는 달리고 싶어 한다 .....박 금 옥..... 29

끝별 국민 .....박 윤 제..... 31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이 주 원..... 35

## 중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전장에 핀 꽃.....유 병 익..... 43

### <우수작>

은하수.....진 영 삼..... 48

어둠을 헤치고 밝은 웃음을 .....	전 상 희.....	54
할아버지께 보냅니다 .....	천 재 성.....	59

### <가 작>

힘.....	강 훈 택.....	67
멀공 통일 .....	임 유 순.....	74
두 여인의 슬픔.....	성 혜 경.....	81

## 고등부 글짓기

### <최 우수작>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 .....	박 신 옥.....	91
--------------------	------------	----

### <우수작>

대성동에서의 자각 .....	이 영 국.....	101
작은 애국심 .....	엄 경 화.....	108
할머니의 선물 .....	최 무 열.....	116

### <가 작>

달.....	이 영 숙.....	125
아빠의 얼굴 .....	정 정 미.....	136
할아버지의 유서 .....	부 속 희.....	146

## 일반부 소설

### <우수작>

백마(白馬)와 흑마(黑馬) .....	김 경 수.....	161
----------------------	------------	-----

◇ 초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작은 봉사 작은 통일 .....김남일

<우수작>

외삼촌 .....한명순

개학하던 날의 공부 .....남선희

국토통일 .....김상희

<가 작>

철마는 달리고 싶어 한다 .....박금옥

꿀벌 국민 .....박윤제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이주원



## 작은 봉사 작은 통일

김 남 일

대광국민학교 6학년

지난 여름 방학 나는 아버지를 따라 동해안을 구경했습니다. 바다로 가는 나의 마음은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말 경포대 해수욕장은 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발에 유리가 찔렸어. 아이고 아파. 엉엉……」

이 소리는 바로 우리가 막 해수욕장에서 차를 내려 바닷가로 들어가려는 참이었는데 국민학교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울면서 발에서 흘러는 피를 보며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걸음을 멈추고 그 아이를 붙들어 주면서 애 어머니에게 데려다 주었는데 그 어머니는 곧 택시에 태우고 강릉 시내 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이런 해수욕장 백사장에 병을 저렇게 내버려서 되겠나? 어떻게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솔밭 구석의 응달진 곳에 짐을 놓고 수영복을 갈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보자기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먼저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이 흩어져 있었읍니다. 콜라병, 사이다병, 환타병, 어른들이 잡숫고 난 소주병, 그리고 여러가지 약병, 이루 말할 수 없는 병 조각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읍니다. 나는 그 유리 조각을 다니면서 주웠읍니다. 보자기에 금방 가득찼읍니다. 그걸 모아서 저쪽 솔밭 끝에 있는 휴지 버리는 곳에다 버리곤 하면서 여러 차례 주웠읍니다.

“남일아! 먼저 몸을 좀 시원하게 목욕하고 나서 천천히 주우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리셨읍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주웠읍니다. 학교에서 바로 방학하던 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막 들려왔기 때문입니니다.

“여러분께서 방학 동안 어디를 가든지 나보다 남을 위해서 작은 일 한가지라도 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봉사 활동, 이 하나가 모이고 둘 모이면 이것이 큰 힘이 되니 곧 우리 나라의 힘이 튼튼해지고 이것이 곧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열심히 빈병과 나뭇 조각을 주워서 버렸읍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와 내



가 앉아 있는 곳에서 약 100미터까지는 거의 유리 조각이 없어졌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애 뭘 그리 줘니? 주우면 뭘해, 또 금방 또 버릴텐데…….”

어떤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줘는 유리 조각에 대해서 빈정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저씨는 “애, 너 어느학교에 다니니? 나하고 같이 줘자. 백사장이나 아니라 흑사장이구나, 정말 마음들을 고쳐야 할텐데…….”

하시면서 함께 줘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느새 천막 부근에 흩어진 휴지들을 모아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다 끝내고 나와 아버지는 텀병 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시원한 동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등을 탁 치시더니,

“남일아! 저기 저쪽을 봐. 저기가 북쪽인데 저쪽 원산 앞바다도 이곳처럼 물이 맑단다. 아버진 어릴때 거기서 수영을 했는데 이런 빈병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었어.” 하시면서 내 등에다 물을 끼얹어 주셨습니다. 나는 속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면서,

“작은 봉사=작은 통일” 이렇게 하얀 모래 위에 써 보았습니다. 바로 이 말은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얼마전 제일 교포 모국 방문에 대해서 작

은 통일”이라는 제목으로 쓴 어느 학교 어린이 글을 우리에게 읽어 주시면서 “작은 통일”이라는 말에 한참 설명을 하시다가,

“어린이 여러분의 작은 봉사, 작은 활동이 모이고 또 모이면 이것이 곧 작은 통일이 되는 겁니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북쪽에 떨어진 곳으로 손을 가리켰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구덩이를 파고 간첩이 오는가 지키는 해안 초소 국군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나는 그 아저씨께 물을 떠서 드리고 “아저씨 수고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국군 아저씨들도 착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어릴때 수영을 하셨다는 북쪽 바다를 보며, “작은 통일”이라고 모래 위에 몇번이나 썼다가 또 지우곤 하면서 국군 아저씨 초소있는 쪽을 향하여,

“아저씨, 국군 아저씨, 빈병 유리 조각을 내버린 우리를 욱하지 마시고 나라를 튼튼히 지켜주세요.”

하면서 내일은 저쪽 아래에 가서 유리 조각을 줍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 외 삼 촌

한 명 순

남신국민학교 6학년

지금 시간이 6시 50분, 옆 집 순희네 마루에는 오늘도 아이들이 뱅글돌러 앉아 온달 장군과 평강 공주 이야기를 신나게 구경하고 있을 텐데, 난 벌써 이틀째나 순희네 집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터에 나가신 온달 장군이 어떻게 되셨을까? 무척 궁금했다.



외가댁에 놀러간 순희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닷새가 지나도록 오지 않는 걸 보니, 재미있는 구경을 많이 하는 모양이다. 순희가 없어도 이틀간은 경자와 같이 텔레비전 구경을 하러 갔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순희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다음부터는 순희가 올 때까지 가지 않기로 했다.

청주에서 대학교에 다닌다는 순희 외삼촌이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순희네 집에 오셨을 때, 난 순희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눈물까지 났었다. 더구나 분홍색 모자를 예쁘게

쓰고 우리들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외삼촌의 오토바  
이 뒷자리에 앉아 손을 흔들며 청주 외가댁으로 가던 순  
희를 바라보며

“나도 외삼촌이 있었더라면…….”

하는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우리 반 친구들 중에도 거의다 외가댁이 있고 외삼촌과  
이모들이 있어서, 방학 때만 되면 서로 놀러가느라고 정신  
이 없는데 왜 우리는 외가댁도 외삼촌도 없어서 이렇게  
쓸쓸하고 가난하게 살고 있나 생각하니 우리 집이 싫어  
지기도 했다. 어찌다가 외삼촌이나 이모들 이야기만 나오  
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며 땅이 꺼져라고 한 숨만 내  
쉬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나는 북한 공산당이 미워서 견  
딜 수 없게 된다. 거짓말 잘 하고 침략하기 좋아하는 두  
더쥐 같은 북괴가 6.25 사변만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우리  
는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외삼촌을 비롯한  
외가댁 식구들이 한 사람도 돌아 가지지 않았을 것이며,  
어머니나 아버지 또한 저렇게 다치시지도 않으셨을 테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집도 순희네처럼 부자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몹쓸 놈의 공산당 때문에 매일 같이 고생  
만하여 가난하게 살고 있는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  
각된다.

6.25 사변때 허리를 많이 다치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힘든 일은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머니께서 광우리 장  
수 신세를 못 면하시고 난 우리반 아이들 보기가 창피해

서 학교를 빠진 날도 여러번 있다.

도덕 시간이나, 나라 사랑 조회 시간에 공산당의 나쁜 점과 우리들이 해야 할 여러가지를 배우면서, 우리 큰 의삼촌을 돌아가시게 하고 작은의삼촌을 끌고간 공산당이 한없이 미워졌다. 그래서 난 이 다음에 여군이 되기로 결심했다. 처음에는 간호원이 되어서 하얀 간호복을 입고 불쌍한 병자들을 돌보아 주고 싶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다. 지난번에 본 반공 영화의 한 장면처럼 씩씩하고 홀륭하고 또 아름다운 간호 장교가 되어서 부상당한 국군 아저씨들을 정성껏 간호해 주는 싸움터의 천사가 되기로 했다.

이복으로 끌려 가셨다는 작은의삼촌이 살아 계신다면을 해 45세가 된다는데, 지금쯤 북녘 하늘 밑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궁금하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앞장서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우리 어머니는 동생인 의삼촌이 보고 싶어서 이따금 눈물까지 흘리고 계신데, 그 동생은 누나의 가슴에 총뿔리를 겨냥하고 있다면 이 보다 더 참혹한 비극은 없을 것 같다.

짐승만도 못한 공산당 거짓 평화를 주장하며 속으로는 남침의 기회만 엿보고 있는 악독한 놈들의 잔꾀에 속지 않도록 하며 우리 국민 모두가 정신을 차려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하루 빨리 남북통일을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 하여야겠다.

그래서, 나도 순희처럼 외삼촌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방학 때마다 외가댁에 놀러 갈 수 있는 그리운 그 날이어서 빨리 오도록 좀 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 연필 잡은 손에 힘을 더 한다.

## 개학하던 날의 공부

남 선 회

충북공북국민학교 4학년

우리 학교는 여섯 학급 밖에 안되는 조그마한 벽지 학교이지만 매우 아담한 학교이다.

이곳 저곳의 정원에는 여러가지 상록수가 보기 좋게 심겨져 있고, 빨간 개꽃이 만발한 화단 그리고 잉어가 헤엄치는 연못, 금붕어를 기르는 양어장 등 구석구석까지 잘 손질이 되어 마치 공원 같은 기분이 드는 학교이다.



지난 여름 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던 날이었다. 학교에 와 보니 방학 전과 매우 달라진 모습이 눈에 확 띄었다. 골 마루에 있는 「민족 중흥관」의 여러 학습관이 방학 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크고 작은 여러가지 천연색 사진과 각종 통계표 등으로 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보기 좋게 꾸며져 있었다.

벌써 먼저 온 아이들이 달라진 학습관 앞에 모여 서서 보기도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

나도 얼른 내 자리에 책가방을 갖다 놓고 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두루 살펴 보았다. 20여개의 학습판이 전부 처음 보는 내용이었다. 국민교육 현장판, 6·25판, 반공판, 향토판, 민속판, 생활판,……. 등 모두가 예쁘고 보기 좋았다.

“얘들아 손으로 만지면 안돼, 그냥 보기만 하자.”

6학년 어린이 회장의 말이다.

“이것들을 어디서 사 온 거라니?”

2학년 꼬마의 물음에,

“사 온 것이 아니야,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께서 새로 꾸미신거래.”

하고 옆에 있던 6학년 언니의 대답이었다.

그날 공부다 끝나서야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모두가 우리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었다.

나는 여러 학습판을 돌아보다 한곳에 비교적 오랫동안 머물러 섰었다. 국민교육 현장판 중의 하나인데 제목이 「빛나는 조국」이라 써어 있었고, 그 밑에 또 「새 역사 창조」라고 작은 제목이 있으며 그 아래에 두장의 커다란 사진과 설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고층 빌딩이 수 없이 많이 솟아 있는 웅장한 서울특별시의 전경을 찍은 사진이고 그 옆 또 한장은 끝 없이 뻗어 나간 고속도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야말로 우리 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을 한 눈에 보는 것만 같았다. 그런데 끝없이 시원하게 뻗어간 고



속도로에 더 마음이 끌렸다. 실제로는 한번도 구경을 못  
해 본 때문일까…….

사진 밑의 설명을 읽어 보았다.

“산을 뚫고 벼랑을 깎기 2년 5개월! 굽이치는 강물 위  
에 다리를 놓고 험하고 깊은 골짜기를 흙으로 메워 너  
와 나의 피땀으로 이룩한 민족의 대동맥이요 통일 조국  
의 기반이 되는 경부 고속도로…….”

라고 예쁜 글씨로 써어 있었다.

언젠가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 났다.  
고속도로는 통일 조국의 지름길이며 우리 나라의 산업 발  
전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셨으며, 이제는 고속도로를 이  
용하면 하루에 우리 나라를 한바퀴 빙 돌 수도 있고, 부산  
에서 아침 먹고 서울에서 점심을 먹는 것등, 자세히 설명  
해주셨다. 나는 그때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어야 할텐데…  
하고 생각했었다.

나는 학습판 앞에 섰채로 가만히 생각했다. 고속도로는  
불쌍해! 핏줄이 몸 전체를 못돌고, 반동강이니까 사람이  
그렇다면 죽었을거야 하고…….

그리고 어서 빨리 멸공 통일이 이룩되어 5천만 동포가  
한 몸이 되게 신의주 아니 청진까지를 잇는 고속도로가 완  
성되어 조국의 영원한 핏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간  
절하였다.

초등부 우수작

## 국토통일

김 상 희

월성국민학교 4학년



오늘도 창식이 할머니께서는 말없이 북  
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 보시고 계신다.  
나는 곧 할머니께,  
“할머니 왜 또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  
셔요?”

“응 또, 아들 생각이 나서.”

하시며 눈물을 닦으셨다. 창식이 할머니께서는 1.4후퇴  
때 피난 오시다가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셨다. 그  
런데 어젯밤 꿈에 통일이 되어서 아들을 만나는 꿈을 꾸  
시고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이다.

“아이고 이제 그 녀적도 스물 대여섯 살일걸”

하시며 한숨을 푹 쉬시고 계시는 할머니 말씀을 어머니  
께 드렸더니,

“애고 그 놈에” 휴전선이 원수지 창식이 할머니께서 얼  
마나 서글퍼 하시겠니? 어서 통일이 되어야지”

하시고 애통해 하셨다. 요전 텔레비전에서도 보고 들었

지만 자기 고향을 북쪽에 두고 온 사람들은 추석 때 조상님들께 성묘 한번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와 하였을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안타깝게 생각한다. 내 친구 중 하나는 자기 삼촌이 북쪽에 있다고 했다. 다른 아이들이 자기 삼촌을 자랑하고 소개 할 때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 속에서 동정심이 우러 나와서 이렇게 말한다.

“애 걱정 하지마 통일이 되면 만날 수 있잖아 아마 너희 삼촌도 북한에서 통일이 되어 너를 만날 수 있는 날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자 응” 하며 위로 해 주는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또 휴전선 가까이에 할 일 없이 멍하니 서 있는 철마 옆에 ‘철마는 달리고 싶어 한다’는 뜻말을 보고 온 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 그 기차의 모습이 처량해 보여서 눈물이 다 나오더라 빨리 통일 되어서 그 기차가 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우리를 둘러 보는 언니의 얼굴에는 정말 기차가 처량하다는 표정이 나타나 있었다. 또 우리 할머니는,

“내 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 금강산 구경이나 가서 그 일만 이천봉을 구경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시며 한숨을 쉬시는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 드렸으면 좋겠지만……. 또 몸둥이가 두 동강이난 토끼의 소원은 하루

빨리 통일이 되어서 토끼의 몸이 제대로 되어 피난을 때  
잃어 버린 가족을 찾을 수 있게 우리들이 열심히 공부하  
라는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그 선생님은 지금은 이  
학교에 계시지 않지만 아직도 그 말씀이 들리는 것 같다.  
자기 부모님을 북한에 두고 피난 온 사람이 많다고 아버지  
께서 말씀하셨다. 돌아 오지 않는 다리를 바라 보면서 자  
기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모두 통일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원수의 휴전선은 누가  
없애줄까요? 우리는 아니 우리 국민들은 통일이 되게 해  
서 꼭 창식이 할머니와 내 친구의 소원을 풀어 주었으면  
참 좋겠다. 할머니와 친구의 소원이 풀어 지는 날은 국민  
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는 달리지 않던  
철마도 신나게 달릴 것이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는 자동  
차가 썩하는 소리를 내면서 달릴 것이고 우리 할머니 소  
원인 금강산은 관광지가 되어서 일만 이천봉을 마음대로  
구경하며 선진국 못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인데…… 우  
리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온 국민의 소  
원인 통일을 꼭 이룩해야겠다.

## 철마는 달리고 싶어 한다

박 금 옥

강외국민학교 6학년

어느날 저녁 신문을 보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금옥아 여기 좀 보아라.”

하시며 신문의 밑부분을 가리키셨다. 갑자기 입을 여신 아버지 말씀에 나는 눈을 등그렇게 뜨고 신문을 들여다 보았다.



기차 갈기도 하고 고속버스 갈기도 한 큼직한 차 한대가 아무도 없는 풀 숲에 외로이 서 있는 그림이 눈에 띄었다. 나는 혹시 교통 사고가 난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며 한줄 두줄 읽어 내려 갔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런 것이었다.

“철마는 달리고 싶어 한다.”

그 아래

‘38선 근방,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경계망 속에 남아 있는 철마 한대가 있다. 그 철마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었는데 누가 들어가 꺼내 올 수도 없어 지금도 이 철마

는 외로이 서 있다. 북쪽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싶다는 듯  
우리는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룩하여 쓸쓸히 겨레의 비극을  
말해 주는 이 철마를 구하여야겠다.’

달리고 싶어 하는 철마!

나는 이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였다. ‘철마도 북쪽  
을 향해 달리고 싶어 하는데 우리 국민 전부의 염원인 통  
일은 이룩될 수 없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니 공부하기  
가 싫어 놀기만 하고 공부를 하지 않았던 내가 후회만 되  
었다. 돌보아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찾아와 주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을 때 쓸쓸함과 고독함 속에 오직 북쪽을 향  
해 마음껏 달리고 싶어 하는 철마!

억센 가지 덤불 속에 혼자 내동댕이 쳐져 버린 철마를  
생각해 볼 때면 나의 작은 두 주먹은 더욱 더 굳게굳게  
쥐어지기만 한다.

기나긴 세월 동안에도 철마는 변함 없이 통일을 이룩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괴로움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철마를 생각  
하면서 천하의 악마 김일성에게 시달림 받고 있는 북한  
땅의 동포들에게 하루 빨리 온 국민의 총화 단결로서 찬  
란한 대한국민의 깃발 아래 힘찬 통일을 이룩하여 자유와  
평화를 안겨 주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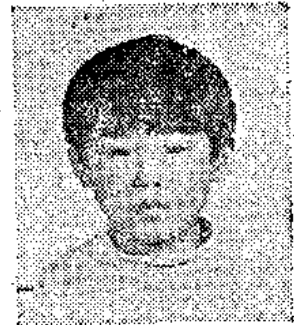
## 꿀벌 국민

박 윤 제

호명국민학교 4학년

지난 봄 애국 조회 때 교장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벌과 같이 다른 사  
람에게 이익을 주는 꼭 있어야 될 사람  
이 있고 또 하나는 개미와 같이 이웃을



보지 않고 혼자만 사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고, 세 번  
째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거미처럼 놀기만 하다가  
착한 사람들을 해치는 악한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8월 18일 판문점 북괴 만행을 텔레비에서 보았고  
내가 보는 소년 신문에서도 잘 읽었습니다.

우리 교실 새 소식란에는 선생님이,

“도끼 살인 만행”

이라고 붉은 글씨로 써 놓으셨고 반장인 나는 신문의 사  
진을 오려 붙이고,

“거미 보다 더 나쁜 악한들”

이라고 써 놓았더니, 이튿날 선생님이 보시고 웃으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

고 하시기에,

“이 세상에는 꿀벌 처럼 꼭 있어야 될 사람과 개미 처럼 혼자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미와 같이 놀기만 하다가 남의 행복을 빼앗는 있어서는 안 될 놈들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온 미군을 도끼로 죽인 북괴놈들입니다.”

라고 일어 서서 응변을 했더니, 선생남도 반 아이들도 손뼉을 쳤습니다.

집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온 식구가 웃으시며 아버지는,

“그래, 참 좋은 것을 발견했다. 공산당들은 거미보다 더 나쁜 놈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놈들이고 말고 하시며,”

“놈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열심히 공부하여 꿀벌처럼 남을 도우며 살아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는 여덟 통의 꿀벌이 있는데, 봄에 다섯 통의 벌에서 열 다섯 되의 꿀을 얻고 분봉하여 여덟 통이 되었습니다.

아까시아 꿀을 채밀하던 날 이른 아침에 아버지는 그물을 쓰고 벌을 떨으시고 어머니는 채밀기를 돌리셨습니다.

나는 무서웠지만 아버지의 뒤에서 벌들을 보았습니다.



한 장의 소비에 새까맣게 붙은 벌들은 누르고 굵은 한마리의 여왕벌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 못하는 벌레이지만 무서운 질서가 있었고 각기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놈들은 왕의 시중을 들고, 어떤 벌은 쌀알 같은 것을 다리에 달고 와 꿀 방 속에 넣으려 춤추기도 하고 들락날락 열심히 일했습니다.

“문에 붙은 벌은 일을 안 해요?”

했더니 아버지는,

“그 벌들은 문을 지키고 청소를 한단다.”

하시며 벌들은 노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제 학교 앞에서 네명의 아저씨와 세명의 아주머니가 술에 취해 춤추다 자전차를 타고 가는 어떤 청년과 싸우는 것을 보았다. 이 아저씨들도 꿀벌을 배웠으면…….

꿀벌은 사람 보다 먼저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꽃 저 꽃을 찾아 다니며 저축 운동을 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봄이면 아까시아 꿀 가을이면 메밀 꿀로 혼식을 하고 꽃가루를 가져와 분식을 했고, 한 방울의 꿀이라도 절약하고 아껴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추석 이웃 돕기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벌들은 경찰서가 없어도 나쁜 짓을 할 줄 모르고, 민방위대나 농협, 면사무소가 없어도 저축하고 새마을운동을 했으며, 서로 도와가며 굳게 뭉쳐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웅변대회 때 내가 외친,

“공산주의자들의 평화 협정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하다.”

라고 하신 박 대통령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선생님께 들은 월남이 망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별 처럼 절약하고 저축하여 잘 살게 될 때 평화 통일이 된다고 하신 박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국민이 벌꿀 국민이 되었으면 하고 기도해 봅니다.

## 돌아오지 않는 다리에서

이 주 원

서울개봉국민학교 5학년

‘달그락 달그락’

요란한 소리에 눈을 떴다.

햇별이 창으로 비쳐 들어와 기분이 상쾌했다.

잠시 이불 속에서 누워 있다가 맛있는 냄새가 코를 찌르는 바람에 부엌으로 달려갔다. 역시 내 코는 명코였다.



엄마는 김밥을 싸고 계셨다. 나는 윤이 자르르 흐르는 김밥을 먹으며,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세계 제일의 요리사 토스트 잼 발라 뽀뽀해요.”

하고 말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는,

“아니 뭐라고 토스트가 어떻게 됐어.”

하고 말씀하셔서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한참 웃다가 나는 엄마가 분주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엄마 오늘 어디 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께서는,

“애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니? 오늘 친척들이랑 임진각에 가려고 하지 않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 그렇구나 바로 오늘이었구나.”

하고 말하면서 마루에 앉았다.

김밥을 후라이팬에 굽리고 엄마가,

“애 뭘하니? 어서 세수하고 옷 갈아 입지.”하셨습니다.

나는 “네”하고 대답했다.

준비가 다 되자 우리는 마포 이모택으로 갔다.

벌써 마이크로 버스가 와 있었다.

임진각에 갈 때까지 우리는 버스 안에서 실컷 놀았다.

한참 놀고 있는데 삼촌이,

“여러분 임진각에 가려면 아직 멀었으니 우리가 마련한 토막극을 보아 주십시오.”

하며 깜듯이 존대말을 쓰셨습니다.

삼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석이와 성호 그리고 준호가 나와서 유창한 이북 말로 토막극을 했다.

이 토막극이 끝나자 버스 안에 온통 웃음 바다가 되고 삼시간에 이북 말이 유행했다.

나는 즐겁게 보면서 이복을 생각해 보았다.

“이복도 이렇게 한 가족이 행복하고 단란할까? 우리는 이렇게 웃고 뛰놀고 하는데 북한 어린이들도 우리들 같이 행복하게 지낼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삼촌이 내 옆에 와서 앉아 어깨를 탁 치더니,

“주원아! 무얼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니?”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깜짝 놀라 “네?” 하였다.

그런 후 나는 다시 말했다.

“삼촌 북한도 지금 우리와 같이 행복 할까요?”

하고 말했더니 삼촌께서는 한참 심각한 얼굴을 하시더니 이윽고,

“주원아!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심한 일과 감시를 받고 있단다. 노인과 어린이 여자과 남자를 가리지 않고 일과 전쟁 연습을 시킨단다. 그래서 행복이란 건 찾아 볼 수 없게 된 것이 오래 됐단다. 아마 북한 사람들은 배급을 조금만 늘려 줘도 행복하다고 할거란다.”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또,

“삼촌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일과 감시에 시달리고 계실까요? 늙으신 할머니를 그렇게 대한다면 가만 안 나들테여요.”

하고 울분에 차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랬더니 삼촌께서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주원이가 단단히 흥분했구나 흥분할만도 하지 주원  
아! 지금 할머니께서는 심한 노동에 짓눌려서 돌아가  
셨는지도 모른다.”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아니어요. 삼촌, 할머니는 살아 계세요. 이 대한민국  
이 통일 되기 전에는 할머니는 돌아가시지 않아요.”

하고 말하는 내 눈에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이 고  
여 있었다.

삼촌과 나는 한참 동안 말을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언제 오셨는지 아빠께서 삼촌의 어깨를 ‘탁’ 치며,

“아니 뭘 하고 있어? 다왔는데 내리지도 않고…….”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나서 아빠께,

“아빠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어디 있어요.”

하고 말했더니 아빠께서 가르쳐 주셔서 나는 막 달려갔다.

그리고 그 다리에서 나는 이렇게 소리쳤다.

“할머니! 꼭 살아 계셔야 해요. 이 주원이가 커서 할  
머니를 모시러 갈 때까지 할머니 꼭 살아 계셔야 해요”

하고 소리쳤다.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는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나를 와락 끌어 안으셨다.

아빠와 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심 사 평

윤 석 중(새싹회 회장)

생각이 똑 같음은 반갑고 든든한 일이다. 그러나 글을 짓는 데 있어서는 너도 나도 똑같은 글이 되었다간 남에게 별 감동을 줄 수 없다. 보나 마나 같은 소리요. 이미 남들이 먼저 신문, 잡지나 라디오, 텔레비전에서 두고두고 한 소리가기 때문이다. 그뿐더러 어른 생각을 빌어다가 어른 글투로 엮어 놓은 글을 어린이 글로 칠 수는 없다.

남북통일에 관한 일은 어른들이 30여년을 두고 갖은 애를 써왔건만 갈수록 태산인 것을, 어린이들이 머리를 쥐어짜서 그 방도를 궁리해 낸다는 것은 애처롭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마는 어린 그들의 그 조그만 가슴에 나라 사랑과 열공 정신이 불타 있음을 꾸밈 없는 글을 통해 발견 되었을 때 도리어 어른들을 일깨워 주고 정신 차리게 해 주는 구실까지 해 줄 수 있어 그네들의 글을 고를 때는 부끄럼과 조심이 앞선다.

으뜸 자리에 오른 “작은 봉사 작은 통일”은, 일본에 사는 우리 동포 가운데에는 제 나라를 등지고 살아 온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생각을 바로 먹고 제 나라의 따뜻한 품에 안김을 보고 이러한 작은 통일이 쌓이고 쌓이면 큰 통일

이 오지 않겠느냐고 한 그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서 유리 창기  
같은 작은 봉사에 손을 댄 한 어린이의 아리따고 대견스런 마  
음씨가 담긴 글이다. 큰 소리를 치거나, 욕을 퍼붓는다고 대번  
나라 땅이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기  
일상 생활을 통해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슬기로움을  
실천에 옮기면서 웃 어른들의 옳은 말씀을 잘 새겨 들어 훌륭  
한 어린이 노릇을 누가 더 잘하고 있는가를 글을 통해 알려  
주면 되는 것이다. 남의 글이나 말을 누가 더 많이 읽고 들었  
으며 의는 힘이 누가 더 센가를 따지는 내기가 아니기 때문 이  
다. 자초지정(自初至終?), 호시담담(虎視眈眈?), 강제노동(強  
制勞動?), 암흑(暗黑?), 그 밖에도 악랄, 개입, 규탄, 도전,  
독재성 따위, 어른에게 조차 어려운 낱말들을 예사로 적은 글이  
너무도 많음에 놀랐는데 글짓기란 낱말들을 바르고 깨끗하게 다듬  
어 나가는 “국어 순화”의 지름길인 것도 어린이들이 깊이 깨달  
아 주기 바란다. 그런 가운데 여러 편의 빼어난 작품을 만나게  
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 중등부 글짓기 ◇

<최우수작>

전장에 핀 꽃.....유병익

<우수작>

은하수.....진영삼

어둠을 헤치고 밝은 웃음을 .....전상희

할아버지께 보냅니다 .....천재성

<가 작>

힘.....강훈택

철공 통일 .....임유순

두 여인의 슬픔.....성혜경



## 전장에 핀 꽃

유 병 익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1학년

빗방울이 가느다랗다. 국립묘지의 제초 작업이 연기될 뻔했는데 우리 중학교 1, 2학년이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그 실처럼 가는 비가 오하려 쾌적한 느낌마저 주었다.



벌써 다가와진 6월 햇살이 일의 능률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는 까닭에서다. 국립묘지 안으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엄숙함을 느꼈고 내 손은 어느새 옷깃을 여미고 있었다.

현충문 앞에서 묵념을 올려 가신 님들의 명복을 빈 우리들은 소나무로 울을 친 사잇길을 따라 배당된 구역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질서 있게 줄지어 있는 무수히 많은 묘비들의 행렬……. 언제 보아도 격렬하고도 처절한 전장을 연상케 하며 포성과 연기로 자욱한 당시의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 숨져 갔을 병사들의 거룩한 모습들이 애치럽게만 머리 속에 떠

오른다.

엄숙함을 느끼지 못하는 생각없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말 소리가 고이 잠드신 영혼들을 깨울 것만 같이 몹시 민망스럽다. 나도 이런 조바심을 억누르며 발소리를 죽이고 조용히 걸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배당된 구역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정성껏 잡초를 뜯어 냈다. 작년 까지만 해도 국민학생으로서 이곳을 찾았건만 올해는 자랑스런 중학생이 되어 왔으니 다른 때와는 달리 뭔가 말할 수 없는 엄숙한 기분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한다. 나는 조국을 위해 싸우다 한 송이 꽃이 되어 산화하신 한 용사의 영혼 앞에서 깊은 회상에 잠겨버렸다.

작년 6월 5일 그러니까 현충일 20주년을 맞기 바로 전날이었다. 그날도 오늘 처럼 비가 보슬 보슬 내리고 있었다.

우리 국민학교에서는 묘에 헌화를 하기 위해 국민묘지에 갔었다. 나도 보잘것없지만 정성껏 꽃다발을 두 손에 꼬옥 쥐고 앞 서시는 선생님을 따랐다.

용사들이 고이 잠들어 있는 묘에 헌화를 하고 나서 고개를 떨구어 잠깐이었지만 정성스런 묵념을 올렸다.

‘용사여, 고이 잠드소서.’

우리 반에는 월남전에서 전사하신 이인호 소령의 아들이며, 내 짝인 재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위한 꽃바구니를 따로 준비했었다. 작업이 끝나 우리는 담임 선생님을 따라 이인호 소령의 묘비 앞으로 인솔되었다.

묘비 앞에는 검은 돌 위에 이 소령의 공적이 새겨져 있었다.

우리는 잠시 말을 잊고 돌 위의 비문을 읽어 내려갔다.

1966년 8월 월남의 「투이호아」 지방에서 전개되었던 청룡부대의 해풍작전……. 그리고 그 작전에서, 날아 온 적의 수류탄을 몸을 던쳐 분대원 전원의 목숨을 구하고 자신은 산산 조각 이역의 땅 위에 붉은 피를 흘려 산화한 주인공…….

● 그 거룩하고 장렬하신 죽음의 장본인이 내작 재화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 남의 일처럼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산 도배들을 막기 위해선 언제나 저런 희생이 있어야 함을 뼈저리게 새기고 있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배례했다. 그 때 나는 내작 재화의 눈에 두 줄기 눈물이 빗물과 얼룩져 흘러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재화는 복받치는 울음을 참으며 눈물 짓고 있었다. 그런 재화가 언젠가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받으신 태극무공훈장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어 나는 이 훈장을 볼 때마다 몸에 힘이 솟아나…….”

라고 그러던 재화 이젠 이 순간 아버지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끝내 울게 만든 것일까……? 재화는 언제나 명랑하고 활발하다. 걸으로 보아서는 정말 아버지를 여윈 친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의 썩썩한 기상을 닮아서 인지, 달리기는

전교에서도 단연 1등이 었다.

역시 거룩하고 용기있는 일을 해내신 아버지의 아들답다고나 할까. 이렇듯 명량한 재화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니 왠지 가슴이 매어 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특별히 마련해 온 꽃이 가득히 담긴 바구니를 그 분의 영전에 바치고 발길을 돌렸다. 그 분의 영혼은 재화와 우리를 떠나 보내기가 아쉬워 옷자락을 끄는 듯하였다.

돌아 오는 길은 우리들 가슴 속의 슬픔이나 굳은 결의를 알기라도 하는 양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있었다.

나는 만가지 회포가 가슴에 차 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직 조국을 위해 싸우다가 가신 분들이 이 울창한 푸름 속에 고이 잠들어 계시다고 생각하니 나도 조국을 위하여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이 되어야 겠다는 결의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 또한 조국의 기둥이 되어 공산주의자들을 무찌른 뒤 이곳에 묻히리라.

며칠 뒤 우리는 원호의 달 행사로 불우 이웃이나 군경 유가족을 돕기로 했는데 재화 몰래 성금을 모아 학용품을 마련하여 학급회 시간에 전해 주기도 하였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작년의 현충일……. 나는 나와 마찬가지로 의젓한 중학생이 되었을 재화를 그려 보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 났다. 그리고 하늘을 보았다. 이 땅을 보았다. 전쟁, 동쪽, 조국 그리고 하나 둘 떨어져간 이름 모를 꽃들, 격렬한 전투 속에 외롭게 저버린 꽃들—.

이 전장의 꽃들이 있었기에 오늘을 내가 살고, 이 땅을  
힘차게 땀질하고 있지 않는가!

전쟁……. 그것은 우리의 건장한 젊은 이들을 앗아 갔다.  
우리의 부모 형제를 앗아 갔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 통일  
의 염원마저 깨뜨리고 말았다. 그러나, 단 한가지 못 빼  
앗아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피  
어나는 꽃, 바로 그 영원하고도 고귀한 꽃일 것이다.

비록 님들은 전쟁터에 뿔다가 이지러져 간 한 송이 꽃  
들이 되었지만 우리들 마음 속에 만든 영원히 피어 향기를  
발할 것이다.

이제 나는 잊지 않으련다. 조국을 지키다 가신 저 꽃들  
의 은혜와 저 수 많은 꽃들이 저 가면서까지 지킨 이 나  
라 이 조국을……. 그리고 그 조국의 무한한 창성을 위하여  
이 한 몸 흠속에 묻힐 때까지 가루가 되도록 열심히 일할  
것도…….

여전히 빛방울은 가느다랗다.

## 은 하 수

진 영 삼

제주중앙여자중학교 3학년



8월의 태양은 사정 없이 뜨겁다. 특히 모두들 체력장 연습에 여념이 없는 우리 학교 3학년생들에겐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모두들 빨갛게 타다 못해 거뿔게 된 얼굴에 땀이 주루룩 흐르고 있었다. 체육 선생님의 호령에 못 이겨 싫은 체력장 연습을 겨우겨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살살 선생님의 눈을 피해 그늘에 가서 앉아 버리는 애들도 있었다. 요즘 와서 그런 애가 부쩍 늘었다. 체육 부장인 미선이가 타일러도 말을 안 들었다.

그런 어느 날, 4시간 짜 수업이 끝나고 체육복을 갈아 입을 때였다. 갑자기 미선이가 교단에 서서 말했다.. “저어 한 마디만 부탁하고 싶어, 체력장 연습할 때 말야. 그늘에 가서 앉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줘, 다른 애들도 똑 같이 덥고 괴로운데 왜 그걸 못 참니, 다 자기가 좋을 일인데……. 부탁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의



표정이 금세 험악해졌다. 그늘에 자주 앉던 아이들이 “홍미선은 도 대표로 뽑혔던 선수니까 그런 것쯤 아무 것도 아니겠지. 익숙해 지도록 훈련 받았으니. 하지만 우리 아직 그러지 못 하잖아 미선인 우리 심정을 이해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우리 점수는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단 말야. 상관 하지마.” 하자 미선이 “그런게 아냐, 난 체육부장으로 한 말이야. 체력장 시험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야.” 하지만 미선의 말이 아이들에게 통할리 만무했다. 넓이 뛰기를 하다가도 100미터 달리기를 던지기를 하다가도 틈만 있으면 체육선생님의 눈을 피해 그늘에 앉아 버리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급기야 그늘에 앉은 아이들이 체육 선생님께 들켜버리고 말았다. 체육 선생님은 굉장히 화가 나서 “모두 모여!” 하고 소리를 지르셨다. 뭔가 기분이 안 좋았는데 기어코 벌을 내리셨다.

“팔굽혀 펴기 자세로 엎드려.” 아이들은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 했던지 표정들이 모두 울상이 되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흠까지 익어버린 운동장에 모두들 험든 벌을 받자니 괴로울 건 사실이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벌을 받는 순간에도 자기들의 잘 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미선을 원망했다. 미선이 체육 선생님께 일러 바쳤다는 것이다. 체육선생님께서 화가 잔뜩난 목소리로 소리를 바락 질렀다. “이 녀석들 너희들도 대한민국의 학생이나. 정신 상태가 아주 썩어 빠졌어. 요번에 판문점 사건 들었겠지, 가

족들과 떨어져 멀리 타국에서 도와 주러 온 외국인들도 우리 나라를 위해 희생 당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말 듣고서도 마음에 꺼리는 게 없냐? 북괴는 지금 미친개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발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편안 할 수가 있나 말이다. 조금 덤다. 그래서 그늘에 가서 앉아 버리는 학생들 생각 좀 해봐. 정말 자기들이 우선 자신 보다도 나라를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난 뭐길래 더운 여름 날 씨에 나와서 이 고생이냐. 다른 까닭이 있는게 아냐. 모두 너희들을 위하고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제 막 성장해가는 우리 나라를 위해 너희들을 나라의 발전에 값어치 있는 인간으로 내놓기 위해서다. 그런데 너희들은 무어냐. 뭐 느끼는 것도 없단 말이냐. 이제 국가가 너희들을 필요로 할 날이 다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어찌 그렇게 태평해질 수가 있느냐. 그들만 찾으면서도 공산당을 규탄하자고 목이 말라 수도가만 찾으면서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고 외칠 수가 있느냐 말이다. 이만큼 말 했으면 양심에 찔리는 게 있겠지. 모두들 알아서 반성 좀 해 봐.”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이 없었다.

그 후부터는 아무리 햇볕이 따갑고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였어도 그늘에 앉는 일은 부쩍 줄어들었다. 웬 일인지 아이들은 체력장 연습에 온 힘을 다 기울이는 것 같았다. 아마도 체육 선생님의 말씀에 힘입은 바가 컸던가 보다

전에는 그렇게도 각자 한정 된 점수 이상 올라가지를 앓더니만 이제 웬 일인지 점수까지도 부쩍부쩍 오르는 것이었다. 모두들 승엄한 표정으로 마음 속에서는 크나 큰 깨달음을 하면서 필사의 노력으로 뛰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를 바라 보시는 체육 선생님의 흐뭇한 표정이 변할 줄을 몰랐다.

어느 날 체육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오랜만에 칭찬을 해 주셨다. “이제는 너희들 거의 만점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러나 나는 점수 보다도 너희들의 집념을 더욱 만족스럽게 여긴다. 그런 정신으로 모든 일을 신중히 해 나간다면 무엇이 안 되겠니. 인간의 집념이란 이렇게 고귀하고 진실된 것이다. 집념이 있는 자에게는 미래에 행복과 번영만이 약속되는 거야.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기를 바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전날 텔레비전에서 본 어떤 제일동포 모국 방문단의 할아버지를 생각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30여년을 기필코 만나리라는 신념으로 살아왔다는 그 할아버지 그 분은 오직 우리 나라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만나 보는게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는 가족을 만났으니 단지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는게 소원이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나는 코가 찡했다. 눈물이 아롱져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식구들도 모두들 눈물을 가까스로 참고 있는것 같았다. 얼른 밖으로 나와서 나는 눈물을 닦았었다. 나는 반평생을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해 온 소원을 마침내 풀어버린 그 할아

씨의 숭고한 신념과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은 우리 나라의 통일 밖에 없으며, 주글주글한 얼굴의 주름살 위로 눈물을 글썽이던 광경을 평생 잊지 못하리라.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나는 마당에 나와서 평상에 앉았다. 동생이 먼저 나와 있었다. “뭘 하고 있니?” “응 별을 보고 있었어……. 그런데 누나 은하수는 어디까지 흐를까?” 나는 드러누워 밤 하늘을 보았다. 땅에는 강물이 흐르듯, 하늘에서도 흐른다는 은하수가 눈에 띄었다. “아마 전 세계의 밤 하늘에 다 흐르겠지… 뭐?” “그럼 누나 북한에서도 사람들은 은하수를 보겠지?” “응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은하수와 다를 거야.” “왜?” 나는 동생이 묻는 말에 더 이상 대답 할 자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나는 애처롭게 보이는 북한의 한 농부가 기계화되어 버린 삶에 지친 눈초리로 별을 보는 광경을 생각했다. 아마도 우리와 같이 막연한 아름다움을 느끼지는 못하리라. 어쩌면 마음 속으로 편지를 써서 은하수에 띄우는 지도……. 나는 답장을 하고 싶어졌다.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 주셔요 이제 통일이 된답니다.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악착스런 집념을 생각하며 자신 있게 외쳤다. 밤 하늘의 많기만한 별들은 모두 나의 답장을 받아 가지고 황급히 그 농부에게 달려가는 것이었다. 은하수가 유유히 흐르며 우리들의 우체부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체부가 필요 없어질 날이 곧 오리라. 나의 답장을 받고 기뻐하는 북한 농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는 더운 여름

때낮 운동장을 뛰는 우리들의 모습과 흐르는 땀에 서린 어  
떠한 염원에 대한 굳은 표정 표정들을 빼놓을 수가 없다.  
어쩌면 그 장면 장면 이야말로 진정 그 가련한 농부를 기  
쁘게 해 줄 가장 직접적인 요인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은하수가 유난히 빛날 그날을 그리며 눈을 감았다. 도대  
체 어떻게 하면 짧은 미래에 그 날을 맞이 할 수 있을는지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이다.

## 어둠을 헤치고 밝은 웃음을

전 상 희

청산여자중학교 3학년



온 몸이 두 조각으로 잘려서, 한쪽 뿐인 발로 경쟁의 대열에 끼어야 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게다가 그 전쟁에 나서기 위해서는 수 많은 약점을 극복하고 남보다 몇 배나 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한 팔 다리를 가진 사람들로써 이해 하기 어려운 고통이다. 뜨거운 한 여름의 태양 아래로 남들이 수월하게 밟아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절름 거리며 남보다 몇 배나 어렵게, 그러나 남보다 몇 배나 빨리 달려가야 한다는 분단된 민족의 아픔과 경쟁에 참가해서 승부를 겨루어 보기도 전에 참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짜 내어야 하는 잘려진 나라의 서러움은 아직 아물지 않는 상처 위에 매일 밤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한다. 더구나 잘려진 반 쪽의 몸은 고문을 당하고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남김없이 빨리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주지 않을 거미에게 뽕뽕 묶이우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 형

제들은 눈을 가리우고 그들이 낳은 아들 딸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장막 속에서 어둠을 활쫓으며 서로 죽이고 죽는 처참한 살륙전을 벌이고 있다. 어째서 이 하늘 밑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푸른 하늘 밑에서, 그 따위 일이 행해지는 것을 용서 할 수 있는가? 어째서 우리는 한 몸이 되지 못하는가? 건강하고 힘찬 완전한 몸으로 당당히 경쟁에 참가하고 우리의 형제의 피를 빠는 거미를 없애고 어둠의 장막을 찢어 버려 밤마다 눈물이 번지던 그 상처를 밝은 승리의 웃음으로 아물게 하지 못하는가?

25년이라도 시간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다. 기다림에 지쳐 머리가 세어 버린 어머니에게는 더욱 그렇다. 피난 오다 잃어 버린 딸을 위해 고향의 새빨간 해당화를 앞 뜰 가득히 심는 어머니에게는, 학자라는 이유만으로 끌려가 버린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며 25년 동안 한결 같이 그 서가를 고스란히 정리해 온 어머니에게는, 미처 데려 오지 못한 막내를 생각하고 해마다 겨울이 오면 다른 크기의 솜옷을 준비는 어머니에게는……. 그리고 아름다운 고향의 과수원 이야기를 어린 자식들에게 들려 주며, 그들이 직접 어머니의 고향을 볼 수 있게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어머니에게는 25년이란 세월의 매일 매일은 마치 돌덩이처럼 굳은 아픔을 심어가는 나날이었다. 금강산의 일만 이천개 기묘한 봉우리와 신선이 앉아서 시를 읊었다는 아름다운 바위들 그 사이를 흐르는 차가운 약수물을 마시며 자식들과 즐겁게 웃고 그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고 싶은

그 어머니들은 사상이나 주의를 따지지는 않는다. 다만 환하게 뚫린 그 길을 아들 딸이 단숨에 달려 자신의 품에 와락 안겨 들기를 안타깝게 바랄 뿐이다. 그런데도 그 길을 차단한 가시 철조망 저쪽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겨누기 위한 총을 무겁게 메고 뛰어야 하며, 딸은 어머니가 것처럼 사랑하던 웃음을 잃어 버린 채 절망인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끔찍한 일 들은 아아 몇몇 어머니들에게만 내려진 슬픔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의 가혹한 무서운 시련인 것이다.

아빠의 고향은 원산이다. 밀이 탐게 들여다 보이는 투명 한 물결 밀으로 몇 천년을 덮여져 온 조개 껍질이 고르게 구르고 해변에는 몇 십리나 황금 빛 모래가 깔려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곳이라고 아빠는 늘 말씀하신다. 소나무 밑에 탐스럽게 숨은 송이버섯을 찾고, 금방 잡아 항구에 쌓아 올린 펄쩍거리는 생선을 구경하고, 흰 눈이 쌓인 겨울 산 위를 평을 잡기 위해 개와 달리는 즐거움 그 기쁨을 우리가 맛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빠는 슬퍼하시는 것이다. 원산은 참 좋은 곳이야. 이젠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지만 너희는 꼭 한번 가 봐야해. 나는 못가 보더라도 너희는 꼭 가 봐야해…….

나는 꼭 가 보리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가 보리라. 설사 그 곳이 이젠 아름답지 않고, 그 곳에서 즐겨워하던 어린 아이들의 정령이 이젠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곳이



전쟁 준비에 광분한 검은 악마의 「토오치카로」 변해 악마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의 가없는 피로 물 들어진 붉은 흙으로 덮여 있더라도 나는 가보리라. 그 흙을 두 손으로 헤치고 어린 날의 아빠가 뛰 놀던 황금빛 모래를 찾고 말리라. 그리고 그 모래를 두 손에 꼭 움켜쥐고 다음 세대에 자라나는 새로운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리라. 아빠는 아름다웠던 고향을 우리들에게 이야기 해 주시는 일 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새롭게 새롭게 생겨 나는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밝고 정다운 고향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다시는 고향을 그리워 하는 가없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리라.

때때로 나는, 북에서 총살당한 작은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본다. 작은아버지는 남쪽으로 가기를 원하셨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가 보는 앞에서 무참히 죽음을 당했다. 무엇 때문에 가없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쫓아야 하는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 보고도 어찌 할 수 없는 원수들을 옆에 두고도 원수 갚을 수 없는 괴로움을 연약한 한 여인에게 왜 맛 보여야 하는가. 가없는 할머니 죽음 보다 더한 아픔에 눈물 조차 흘릴 수 없었던 가없는 할머니, 두 손을 가지고도 원수 갚을 수 없었던 가없는 할머니.

나는 이해 할 수가 없다. 아무리 사상이 다르고 생각 하

는 방법이 다르고 머리 구조까지 다르다 하더라도 어째서 사람이 한 인간이 그와 똑 같은 완성된 인격을 가진 다른 사람을,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것일까? 태초부터 지켜져 온 도덕이나 윤리관을 완전히 무시한채, 인간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 타인을 살해하는 상태로 그 지옥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자라 온 세계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 예술이나 아름다움이 무시되고 희망과 기쁨이 말살된 세계 그런 세계를 옆에 두고 총부리를 맞대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나 자신을 위해, 가엾을 할머니를 위해 아빠의 아름다운 고향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 많은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5천년을 이어 온 찬란한 한반도의 문화를 위해.

아아! 나는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겨야 한다. 잘려진 나라를 한몸으로 만들고, 완전한 경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우리의 산과 우리의 강을 되 찾고 짓눌려 살아 온 내 형제들에게 삶의 기쁨을 알게 해 주어야 한다. 그 날이 왔을 때 우리 모두 모였을 때 나는 아빠 팔에 매달려 할머니와 함께 작은 아버지를 찾아가리라. 그리고 작은아버지 처럼 생명을 빼앗긴 수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걱정하던 짓밟혔던 사람들의 밝고 힘찬 웃음 소리를 귀 가득히 들려주리라.

중등부 우수작

## 할아버지께 보냅니다

천 재 성

마산중학교 2학년

할아버지,  
오늘이 8월 20일.

당신의 일흔 세 번째 맞는 생신날입니다.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둘러 앉아 경건  
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북녘 하늘을 바라  
보며 할아버지의 생신을 올리고 있습니  
다.



지금쯤 살아 계실는지 돌아 가셨는지도 모르는 할아버  
지의 생신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내야만 한다는 저의 식구  
들의 마음은 온통 슬픔과 침통한 마음 뿐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할아버지께서 계신다면 무척 귀여움을 받을 당신  
의 막내 손주녀석 재성이예요.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나기 전 우리 민족사  
에 커다란 오점을 남긴 민족적 동란이 발발했다더군요.

정말은 인류사에 한 민족의 수치를 드러낸 비참한 동족간의 전투였다고 그러더군요.

그 때 할아버지는 면사무소의 일을 관할 지휘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결백하고 온건한 사상 밑에서 불의에는 조금의 주저도 양보할 줄 모르는 할아버지였기에 때로는 비겁한 자에게 오만함을 보였고 부정을 일삼는 무라에겐 융통성 없는 분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의 면에 뒤지지 않는 짜임새 있는 면 행정을 영위 해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런 당신이였기에 이 강토를 집어 먹고 또 선량한 내동포를 살해한 공산 도배에겐 조금이라도 주저하지 않았을 할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조그만 저의 두뇌의 영감으로도 느끼고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무자비한 공산 악덕배들은 순식간에 평화스런 이 강토를 요란스럽고 지저분한 군화로 짓밟고 마구 살해를 하였다고 저도 이젠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이 그 미친 놈들의 무자비한 손에 끌려 가던 날부터 26년이 지난 지금이에요.

온통 집안을 별집 쭉서 농뿔 수라장으로 만들고 엄하게 호령하시는 할아버지를 그 악덕배들은 발길로 차고 짓밟으면서 듣지 못할 욕으로 김일성이를 선전하면서 「동무도 우리에게 협조하라」고 하였다더군요. 끝내 듣지 않고 꾸짖는 할아버지를 그 무리들은 두 손을 철사줄로 묶은 채

어디론가 끌고 가셨다더군요.

그 뒤론 소식이 끊어진 채 애타는 저희의 마음은 아랑  
곳 없이 아직 이렇게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또 무심한 1년  
의 세월을 보내고 맙니다.

할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저 하늘 위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젊은 시절에 지금 무성한 이 감나무를 심으면  
서 이 나무에 맛 있는 감이 열면 내 귀여운 손주녀석들에  
게 주겠다고 하시던 당신께서 지금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  
채 그늘을 만들어 주는 이 나무를 그냥 두고 어디로 가셨  
습니까 할아버지 저희 집도 이제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된 채 행복스럽고 평화스럽게 살아 가고 있습니다. 웃  
을 수 있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겠다는 강한 삶의 의  
지로 열심히 열심히 살아 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토록 행복스럽고 편안한 삶의 유지가 있기까  
지에는 무수한 고난과 또 정말 겪기 힘든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한없이 겪었  
습니다.

학업을 뒀던 저희 4형제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지난 날들이 이제 악몽 같이 언뜻언뜻 생각  
이 납니다.

할아버지,

그건 우리 모두의 잘못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말손주가 사업을 한다하고 손을 대면서 기울기 시작한 우리 집안은 순식간에 엄청난 빛에 쌓인 채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매일 번갈아 찾아 드는 빛 손님 야위어져 가는 아버지님의 얼굴 거칠어져버린 어머니의 손길들.

정말로 도저히 이제 우리에게는 광명이란 게 찾아들지를 앓을 것 같았습니다.

학업에 열중해야 할 저희 4형제는 공부 대신 서로를 붙잡고 위로와 눈물의 연속으로 엮어지는 슬픈 생활이었습니다.

이럴 때 당신이 계셨다면 조금은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와 저희를 이간시켜 놓은 저 짐승 같은 놈들이 차꾸만자꾸만 미워지고 증오의 불길이 떠오르더군요.

민족의 원수, 조국의 원수이기에 우리 집안의 원수이기에 말입니다.

할아버지,

하지만 우리의 모든게 그로서 끝나기엔 우리 아직 희망 같은 게 너무 많이 잠재하고 있었나 봅니다.

살겠다는 의지, 발전하는 조국의 행진에 맞추려는 우리 집안에 엄청난 약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체념을 하기엔 너무 일렀기 때문이지요.

할아버지,

저희 가족 전원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살길을 토의하는 가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론은 이제부터 그 누구를 탓하지 말고 오직 이젠 우리에게 필요 불가결한 시련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이 뒤에 올 어떠한 고난도 광명과 바꾸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근면한 생활을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저희 4형제는 오직 공부만을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 실력으로 인정 받는 학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유발시킨 저의 큰 형은 마땅한 자리가 생길 때까지 촌에서 농사나 거들며 가족을 돌보면서 향클어진 성품을 가다듬고 식어버린 인간미를 찾으면서 열심히 살자고요.

그래서 멀지 않은 날 저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자고요.

할아버지,

정말 엄숙하고 숙연한 가족 회의 광경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저희는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해야 했는지 모릅니다. 회의를 마치고 정말 오랜만에 이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꼭 우리 집안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웃음이에요.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그런 뜻 있는 웃음이었답니다. 그 뒤에 저희의 끈기 있는 삶의 개척은 시작되었답니다.

니다.

우린 공부를, 형님은 농사를 또 황무지를 개간하여 특수 작물을 경작하면서 옛날의 바람기 섞인 생활들을 차차 잊어가고 있습니다.

낮이면 땀 흘려 일하고 또 울어대는 돼지들을 돌보면서 밤이면 정말 피곤하면서도 만족할만한 피곤 그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의 집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당신의 세째 손주, 저의 세째 형 황성이는 훌륭한 군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또 둘째 형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그 막강함을 자랑하는 해군의 씩씩한 장병이 되었답니다.

이토록 행복된 웃음.

이토록 값진 생활들을 저희만의 것으로 돌리기엔 너무나 안스럽고 어색하기조차합니다.

그건 당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진정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지금 저의 조국은 온 국민의 한결같은 총력안보 정신으로 한테 뭉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동족간의 살상극을 자아낸 조국의 원수요. 인류의 원수이기 이전에 저의 원수인 그 공산도배를 물리치기 위해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



추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당신은 느끼고 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발전한 참 조국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술한 공장들이며, 세계를 향하는 수출 한국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며칠전 또 다시 그 도당들은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휴전선 공동감시 지역에서 경비중인 유엔군을 도끼로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그들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전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무덤을 파는 것이며 쥐약을 먹은 쥐가 물을 찾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할아버지,

전 이제 행복합니다.

밤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은하수의 세례를 받으면서 부모님의 너그러운 사랑과 형님들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지난 몇년 동안의 정말 고생스러운 생활들을 정리하면서 복된 사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슬기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과거도 미래도 가지지 말자고요.

이 사회의 꼭 필요한 총력 안보의 역군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쯤 북녘에서 자유를 갈망할 할아버지와  
1천 5백만 내 동포에게 인내와 용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끝으로 자유 통일이 되는 그 날까지 건강히 그리고 평  
화스럽게 통일될 그 날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내내 만수무강을 빌면서 그칩니다.

## 힘

강 훈 택

오현중학교 3학년

8월 18일 수요일 오후,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정규 방송이 중단되면서 속보라는 흰 두글자와 함께 아나운서는 거친 숨을 들이쉬며 나를 놀라게 하였다.



“오늘 오후 판문점에서 북괴병이 집단 폭행을 가하여 미군 장교 두 명이 도끼에 맞아 숨지고 우리측 장병 여러 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보도에 온 식구가 한 동안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계속되는 프로그 하나도 눈에 들어 오지 않고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머리 속을 확 스치면서 내 가슴은 심한 동요 속에 울렁거리고 있었다. 자세한 사실을 알고 싶은 마음에 여느 때와는 달리 조바린 마음으로 뉴스시간을 기다렸다. 모든 방송이 하나도 흥미가 없었다.

내 동생까지도 이 날은 10시가 넘도록 자지 않고 마감

뉴스를 지켜 보고 있었다.

“오늘 오후 관문점에서 미군 경비병과 우리 노무자들이 초소 전방에 있는 미류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북괴 경비병들이 시비 끝에 낫과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미군 장교 두 명이 도끼에 맞아 숨지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도끼로 사람을 찍다니. 끔찍스러운 그 짓을 나는 이유야 어떻든 괴뢰 도당들이 저지른 그 야만적인 행동에 이가 갈렸다. 분명히 그들은 야만인이다. 아니, 야만인도 그러는 못할 것이다.

머나먼 이국까지 와서 비참하게 희생 당한 두 미군 장교가 가엾기만 하였다.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이역 만리 우리 자유 대만에 온 미군을 북괴놈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 참혹한 그 광경이 눈 앞에 선하고 생각할수록 피가 끓어 오름을 금할 수가 없었다. 세상에 그렇게 악랄한 인간이 또 있을 것인가? 전신이 짜릿해 오는 분함에 내 마음은 벌써 38선을 훌쩍 넘어 그 북괴병들 아니, 김일성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버지께서는 분해하시는 것을 한 눈에 읽을 수가 있었다. 연방 담배를 피우시며 숨이 거칠어 계셨다.

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나를 설레이게 하였다.

“심상치가 않은걸! 이 놈의 김일성이가 아마 죽기 전에 적화통일을 해 보려고 드디어 안간 몸 부림을 치나

본데, 미친 짓이지. 어디 우리가 크메르나 월남의 경우와 같은가? .....

아버지께선 두 주먹을 불끈 쥐시며 계속 말을 이으셨다. “내 6.25때 놈들한테 다리에 총을 맞은 것이 천추의 한이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놈들! 어디 들어 오기만 해 보라. 내 당장 군에 입대해서 진 빛을 툭툭히 झा아 주마!”

하시며 6.25때의 일을 회상하셨다.

“그 때는 정말 피눈물이 나더구나. 생각 해 보라. 놈들의 만행에 우리가 아무리 입술을 짓찧으며 용맹스러워도 무기가 있어야지. 소련제 탱크를 처음 보고 적개심에 멋모르고 탱크에 총질을 할땐 정말 안타까웠지! 아무리 썩대도 그 게 끄덕도 앓거든.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욱 분개하는 것은 우리였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탱크만 보면 앞을 다투어 수류탄을 안고 탱크 속으로 들어 갔었단다. 우리가 그렇게 용감했던 까닭에 그 놈들을 다 밀어내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지금도 내가 조국을 수호한 한 사람이라는 데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 이 상처도 그 놈들을 쫓아가면서 대동강 근처에서 맞은 것이란다. 그때 참 원통 했어. 눈 앞에 쫓기는 적들을 두고 나 혼자 남아 있으려니 참, 가슴이 터지는 듯 하더구나!”

하시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다리의 상처를 만지신다.

총알을 빼낸 자리 속의 덩어리를 집으시며,

“이게 바로 그 총알이야!”

하고 농담도 해 보이셨다.

평소에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를 때마다 보는 흉터였지만 오늘은 웬지 아버지의 상처가 거룩해 보였다.

아버지께선 다음 말로 끝을 맺으셨다.

“김 일성이가 아마 인도지나 사태에 오판을 한 모양인데, 참으로 어리석은 놈이지! 우리를 6.25때의 우리로 알다간 아마 날벼락을 맞을꺼야! 지금 우리 국군은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만큼 용맹하다고도 하지 않니? 거기다가 온 국민이 일치 단결해 있으니 그야말로 무서울 게 없지. 이 아버진 지금 당장이라도 놈들이 쳐들어 오면 곧 군에 지원하여 놈들을 쳐 부수는 데 앞장 설 참이다!”

하시며 벽에 걸린 군인 때의 사진을 올려다 보셨다. 빛나는 소령 계급장이 더욱 눈부시게 빛났다.

아무래도 잠이 오질 않았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과연 그 놈들이 침략의 흥계를 꾸미는 것일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으나, 이내 그런 걱정이 사라지고 안심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강한 민족이니까…….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가보니 교실은 온통 어제 그 일로 시끄러웠다. 모두들 저의 주장을 내세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모두들 많은 관심을 가진데 내 마음이 흐뭇했다.

그러나 어느 한 친구의 말이 그런 나의 마음을 사정없이 무너 뜨리고 말았다.

“북괴놈들, 미국을 건드려 놓았으니 이제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야, 그냥 한 번에 ‘쿵’하고 부숴버리면 우린 구경만 하고 떡을 먹게 될단 말씀이야!”

울화가 치밀었다. 남에게 의지하려 하다니, 너무 안일한 그의 생각에 나는 그 애의 떡살을 잡아 쥐었다.

“임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 우리의 문제를 남이 해결해 주는 게 그렇게 좋아?”

그 친구는 금방 취소를 하고 잘못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내 마음이 풀리지는 않았다. 어째서 저런 사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가?……

버려야 할 것이다.

강대국에 의지하려는 사상은, 깨끗이. 월남이, 크메르가 그랬지 않은가? 그의 존심이 나라를 망쳐 놓지 않았는가? 의존심은 우리의 국력을 쪼먹는 벌레임에 틀림없다. 우리에게 그런 벌레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나는 털끝만치라도 남에게 기대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굳히었다.

우리는 월남이나 크메르와는 분명히 다르다. 내 나라를 책임지고 지킬 사람은 오직 우리 뿐이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뉴스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청소도 일찍 마치고 서둘러 집으로 향하였다. 골목 구석에서 수근대는 동네 꼬마들의 제법 상기된 얼굴이 기특해 보였다.

뉴스를 들으러 텔레비전을 켜 보니 마침 국민들의 여론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한 데 모아 있다가 놈들이 들어 오기만 하면 단 주먹에 날려 버립니다.”

하는 어느 대학생의 힘찬 외침에 내 마음은 강철이 되어 버렸고 내 마음과 같은 강철이 3천 5백만이나 모인다면 하고 생각하니 절로 어깨가 으쓱하여졌다. 그 대학생 뿐만 아니라 길을 가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주부들까지도 다투어 마이크를 쥐어 잡고는 제각기 힘찬 결의를 외쳐 그 때마다, 나의 뜨거운 피는 더욱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 날은 북괴측이 시치미를 떼고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을 들었다. 도대체 그들도 인간일까?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을까? 하지만 그것은 미리 짐작을 안했던 바는 아니다. 그런 야만인에게 양심이 있을 리 없지 않은가? 그렇다. 야만인을 꺾기 위해선 큰 힘 뿐이다. 야만인에게 대화는 통하지 않는 법이다. 오로지 힘만이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 다음날 김일성이 미국에 사과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자기의 과오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뉴스에서 나는 많은 것을 느꼈다.

역지밖에 모르는 야만인들도 결국 막강한 미국의 힘 앞에는 별 수 없이 형식적이거나 고개를 숙였다는 사실…….

나는 또 한 번 힘, 국력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의 국력이 북괴를 훨씬 앞지를 때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바로 힘이다.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기르는 것만이 우리의 현실을 타개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민족의 길이며 염원을 푸는 열쇠인 것이다. 그것은 가장 쉬운 것이기도 하다. — 우리 각자의 힘을 한데 모아 국민총화로 일치 단결 하여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모두 선수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힘을 기르는 선수가, 우리 각자의 정신력으로 모아진 촛점이 우리의 거대한 야망을 불태울 때.

그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사명을 충실히 완수 해야 한다.

나는 우리의 힘을 기르는 선수의 한 사람으로 나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이행 해야 한다고 새삼스레 또 다시 굳게굳게 다짐해 본다.

## 멸공통일

임 유 순

천호중학교 3학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고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순박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선조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고 시골의 담장 밑에 수줍은 듯 피어나는 개나리와 진달래 꽃을 좋아했다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우리는 수 없는 국가의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살아왔다.

물론 우리의 지리적 조건이 강국들 틈에 끼어 있어서 침략을 당하기 알맞은 이유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보다 좀 더 날카롭게 관찰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힘과 의견이 흩어져 나타났을 때 사회의 혼란함과 아울러 외적의 침입을 받았다.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무슨 일이든 서서 구경 하듯이 쉽게 넘겨 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닥쳐 오는 커다란 억눌림에는 더 큰 충격 속에서 헤매야만 했다.

이조 시대 울곡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고, 황윤

길도 왜적의 침입에 대한 강력한 대비를 주장했으나 그 시대의 조건은 만사태평이었고 이들은 오히려 역적으로 몰릴 입장이었었다. 적에 비추어서 새로운 나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실감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속에도 이러한 위기는 존재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의를 일깨워 주는 좋은 예들이었다. 내가 바로 국가요 국가가 바로 나의 모든 것이라는 철두철미한 호국정신 아래서라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위급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두려움과 쓰라림이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공하는 승공 정신에 투철한 애국과 애족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길이라고 국민교육현장에도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막는 데는 훌륭한 무기와 잘 훈련된 군인들이 원동력이 되겠지만 그 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국민 총화라 하겠다. 물 썰틈 없는 무장이라는 말 뜻 그대로 실현이 된다면 더 할 나위없는 승리의 열쇠가 되겠다. 또한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위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고히 다져 놓는다면 이 또한 훌륭한 멸공의 방법이라 하겠다. 요즈음은 공산주의의 침투 방법도 다양해져서 그 전과 같이 총과 칼과 같은 무기로 만든 그들의 공작을 저지할 수 없다.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 도상에 있거나 후진성을 나타내는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대륙에서 공산주의의 침투는 다시 한번 그 수법에 있어서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것은 어떠한 헛점만 보이면 그 점을 놓치지 않고서 달라 붙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되돌아와서 살펴 보자. 북괴는 오늘 날도 쉬지 않고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의 활동을 필름을 통해서 볼 때에 그들은 어린 유치원 학생에까지 군사 교육을 시키며 모든 활동이 오로지 무력 남침하기 위한 철저한 방침 아래 행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교과 과정도 사실 따지고 보면 총을 잘 쓰고 칼을 잘 사용하며 김일성 위상화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것에 집결되고 있다. 또한 휴전선 부근에는 요즈음도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니 참으로 우리의 현실을 위기가 아니라고 그 누구가 말 할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의 무장 공비의 침투와 특별히 지난 1974년 8월 15일의 육 영수여사 암살 사건등으로 그들의 비인간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충분히 경험한 바이다. 오늘 날 세계적으로 화해 정책을 추구하느니 총칼 보다는 대화와 협상에 의한 평화 정책으로 전개 되고 있지 마는 북한의 공산도당은 오늘도 그 대화의 문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개방하기 보다는 우리의 대화 요청도 거절해 버리다니, 그리고도 우리의 입장을 민족의 분단을 영구화하느니 하는 말로 비난을 일삼는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기들의 말로 남북대화를 거절해 놓고도 그것을 우리의 잘못인 양 되돌려 버리려는 심보는 공산주의가 아니면 가지질 못할 이리의 심보라 하겠다. 사실 우

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의 그와같은 행동이 우리의 반공의식만을 높여 줄 뿐 우리의 처지를 일그러뜨리려는 그들의 속셈에는 아무런 효력을 거두지 못한 다른 사실을 그들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서 이러한 반공 태세의 확립에 역행하는 행동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비극을 자초하는 것이고 다시 한번 공산주의에 기회를 안겨 주는 결과가 될 것임은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은가?

연못 속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흙탕물로 변화시켜 버린다는 말과 같이 그들의 조심스럽지 못하고 틈을 보이는 행동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 전체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태여 6.25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의 쫓점을 오로지 총력안보 멸공태세 확립이라는 뚜렷한 생각 안에서 홀으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월남과 크메르의 참패가 주는 교훈은 세계 어느 민족의 경우 보다도 철저히 뼈저리게 되새겨 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산 집단 앞에서 내부의 분열과 정치의 부패는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침략 구미를 당쳐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헛점의 노출은 결과적으로 자기들의 패배를 자초

해 버렸고 이제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궁지 속으로 빠져 버린 것이다. 무슨 병이든 발병후의 치료 보다는 예방이 더 좋은 방법이고 안전한 방법인 것이다.

붉은 무리의 손아귀에 들어 가고 나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부정과 부패를 한탄하느니 보다는 침략을 막기 위해 총화와 군사력 증진에 앞섰다면 오늘의 비극은 초래하지 않았겠는가 말이다. 전쟁의 참패는 그들의 자유의 박탈과 영토의 상실만으로 결론지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인권은 물론이고 재산과 수많은 인명과 함께 영원히 결론지어버리는 것이다.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수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우리의 위치를 다질 수 있었음은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투철한 애국 애족 반공 민주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한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옛날 임진 왜란시 행주산성의 싸움은 너무나도 유명한 감동적 이야기이다. 나약한 여인네들의 치마 가득 모아진 돌들이 왜적들을 무찌를 수 있었음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데에는 남녀와 노소가 구별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세계는 바야흐로 핵 전쟁 시대에 들어갔다. 동과 서에서 일시에 터져나오는 핵 폭탄이 하루 아침에 온 인류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집어 넣어 버릴 초스피드화된 화기전으로 들어가버린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의 인류의 목숨은 한 마리의 파리와도 비유 될 수 있

우리 만큼 그 위치가 하락해 버렸다. 그러나 그 보다도 더 무서운 힘은 역시 그 획일화된 사상과 결의라 할 수 있겠다.

오늘날 북한의 공산집단은 그들의 철저한 사상 교육 결과 이제 그들에게는 오로지 김일성 우상화의 이념과 무력남침 외에 조금도 빈틈을 주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정체도 오래가지는 못 하리라고 본다. 언젠가는 그들의 흑백이 밝혀 드러나게 마련이며 그들의 이리가죽도 언젠가는 흰히 벗겨지고 말 것이다.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못할 거짓과 가식 투성이의 정체가 발견될 때에 더 이상 버티어 나가지 못할 것이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자유와 그들의 인권을 옹호하려는 성품을 타고 났기에 지금은 무력 앞에 무릎을 꿇고 굳게 입을 다물었는지 모르나 자유와 이상을 갈구하는 북한 주민들의 노력이 언젠가는 무력과 억압을 억누르고 나타나리라 생각된다.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의 생각을 뒤 엎어 놓는 외에 그들의 문화와 문학과 심지어 스포츠까지에도 침투되는 무서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남한에 침투되는 무장 공비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그들이 남파되기 전에 받은 밀봉 교육 중에는 만일의 그들이 정체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남한의 반공 사업에 협조하는 결론을 맺어 주니 보다는 차라리 자기 손으로 자살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철두철미한 사상인 것이다. 지난 몇 해 전 무장공비가 남파했을 당시 주문진 어느 고

을의 어린 소년이 나는 공산당이 싫다고 외치며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 죽어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처첵하게 경험했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년의 그 한 마디가 공산주의자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전까지는 국제 정세가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그러기에 한 민족의 불행은 사상을 같이하는 모든 민족의 불행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이제는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 우리의 살고 죽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에만 달려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월남과 크메르의 경우를 통해서 잘 배운 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해야 하겠다. 지금도 공산주의는 우리의 헛점만을 노리고 있다. 이러한 적화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국가 안보 총력에 의해 노력하는 자세로 나설 때에 우리에게도 멸공과 안락의 길이 열릴 것이다. 또한 중학생으로 갖추어야 할 도덕과 윤리를 확립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비극을 초래 할 수는 없다. 지난날의 실수를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나섬으로서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다 하겠다.



## 두 여인의 슬픔

성 혜 경

동일중학교 2학년

어느날 저녁이었다. 저와 우리 식구들은 텔레비전에서 장수만세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나게 춤과 노래를 웃으며 좋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고 나와 우리 식구들은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창 진행 중에 할아버지가 안계시다는 할머니가 나오셔서 첫 사랑 이라는 노래를 부르신다고 하시며 한참 부르시다 목메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의 손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나운서는 할머니에게 가서 왜 그러시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소. 내가 잘 불러서가 아니라 우리 남편, 사랑스런 내 남편이 그리워 이렇게 불렀소. 빨갱이들이 내 남편을 잡아 갔다오. 나는 너무 서럽고 남편이 그리다오.”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수건으로 피맺힌 피 눈물을 닦아 내셨습니다. 나와 우리 식구들은 이 소리를 듣고 치를 떨었습니다. 이젠 그 공산당이



라는 소리만 들어도 끔찍스러워지는데 할머니의 사유는 너무나 슬픈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서 흐르는 그 눈물과 입 속에서 나오는 그 소리가 저 북녘에 가서 전해진다면 할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었으면 하는 애처로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을 보지도 못하고 끌려가실 때 꼭 한마디 자식이 또 생기면 이름을 경화라고 지어 달라고 하시며 맨발로 끌려 가셨답니다. 지금 의젓한 딸이 된 경화 언니도 우리 어머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며 슬퍼했습니다. 또 재일교포들의 모국 방문을 볼 때마다 남편이 더 그리워 기쁨에 앞서 슬퍼지고 남의 기쁨이 나의 슬픔이 되니 기쁨을 축복해 줄 기운조차 없다고 하시며 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딸을 보며 눈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 언니는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고 사진 한 장 없어 그리워 할려 해도 어리지 않는 얼굴, 보고 싶어 꿈 속에서도 모습을 모르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얼굴이라고 언니는 말했습니다. 묵묵히 먼산을 보느라면 그리워지는 상상의 아버지 얼굴을 하얀 백지에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나오셔서 할아버지 모습을 말 해 주신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비슷한 할아버지를 그려려고 애태워합니다. 미술 솜씨가 자랑할만한 경화 언니는 멋있고 훌륭한 인자하신 아버지를 그리면 할머니는 그것을 보시며 이젠 더 허약하셔서 훌쩍하실 거다 하시며 그리 기뻐하지 않는다하니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애타는 마음 괴롭도록한 자는 다름

아닌 김일성입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군인에게가서 통일이 오도록 해 달라고 해도 대통령께 말씀해도 안되는 것이 통일이었습니다. 다음의 먼 훗날의 통일을 위해 나는 나 한 사람만이라도 사치와 허영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나의 딸도 우리 며느리도 지금은 자식도 돈 잘 벌어서 자가용도 굴릴 수 있지만 난 자가용 탄 적이 없소이다. 저의 자식은 차를 팔아 버렸습니다. 아주머니 양반들 우리 남편 좀 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뢰한 부탁이지만 검소하고 절약만 해 주신다면 정말 통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검소해야하지만 그 보다 더 열심히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딸도 우등생입니다 라고 나의 콧등을 시근거리게 했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과 실행은 어렵습니다. 저도 큰 꿈을 안고 열심히 공부할 것을 새끼손가락으로 걸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의 작은 소망이요, 할아버지가 안계신 할머니의 가냘픈 목소리의 호소입니다.

또 어느 시집에서 23살의 여인이 쓴 슬픈 사연의 시 한 토막이 쓰여 있습니다. “23살의 여인에 있어 우주라는 것은 그다지 넓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남자의 가슴 폭만한 것이요. 23살의 여인의 행복이라는 것은 그리 먼 것도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꽃수레에 포장마차만 있으면 됩니다. 23살의 여인에 있어 평화라는 것은 피를 흘리면서까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목메인 한 토막이 슬픔어린 사연이 있습니다. 23살의 여인이 약혼자를 잃은

것 또한 공산당의 만행이요, 우리의 뼈아픈 상처를 밟는 것인데……. 저는 치를칩니다. 내가 태어난 지도 14년 앞으로 10년 후면 저도 사랑하는 약혼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만이 아닌 나의 친구 또한 사랑하는 이를 따라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이 있기 전에 요즈음의 음침한 분위기와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이 우리 주의를 맴돌고 있는 것이 전 그저 무섭기만 합니다. 23살의 여인이 약혼자를 잃은 것처럼 우리도 약혼자를 잃는다면……. 그러나 이것은 결코 공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웃 어른이 겪었고 정세가 인정되지 못하고 심난하니 말입니다. 전 나혼자 약혼자를 잃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행복을 포장마차에서 찾는데 나혼자만이 괴로와할 순 없다고 하는 것이 나와 친구들의 동일한 생각입니다. 이 치욕을 당한 그들은 그 공산당을 몰랐고 그 괴로움을 몰랐었기에 당해버렸다고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우린 그들의 만행과 심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절대 어리석은 전장의 죽음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그 하소연이 꼭 사치와 허용 그리고 우리 학생이 1등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나의 귓가를 맴돕니다. 이것은 할머니의 슬픔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23세 여인의 슬픔 또한 달래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책상 머리에다 팔을 고이고 생각했습니다. 숙제하기 싫어 빈정대던 일, 그 일들이 지금은 왠지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 이 작으면서도 큰 이야기의 마무리를 할머니의 말씀으로 돌립니다. 통

일은 결코 먼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가까운 것도 아닌 것이 통일이라 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라도 1분 1초도 헛되이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책이 인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인간이 된 증거는 바로 책을 읽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이니 이것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평화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저는 생각합니다.



심 사 평

어 호 선(아동문학가)

예선된 63명이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서 분단된 조국의 평화 통일 의지를 절실하게 나타내고 있어서 우열을 가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누구나 다 아는 일 누구나 다 가진 공통된 생각을 웅변이나 연설조로 기술한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자기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생각을 진실하게 나타낸 것을 골라 내기로 했다. “전장에 핀 꽃들”(중대부중 1학년 유병익)은 월남전에서 산화한 고 이 인호 소령의 무덤에 헌화하면서 한 학급 친구인 그의 아드님 재화군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결의를 다진다. 제 나침의 지혜가 있고 제대로의 방향을 잡고 있다.

“은하수”(제주 중앙여중 3학년 진영삼)는 체육 선생님의 훈계 말씀을 듣고 차분한 자기 반성과 결의를 안으로 다지고 있다.

“어둠을 헤치고 밝은 웃음을”(성산여중 3학년 전상희) 또한 절실한 자기 체험의 세계를 빈틈 없는 구성과 거침없는 표현으로 힘찬 결의를 나타냈으나 이를 위한 지혜와 방향이 아쉽

다.

높은 자리에서 외치는 지도자적 자세보다는 차분히 스스로를 다지는 생활 태도가 귀한 것이다.

“할아버지께 보냅니다”(마산중 3학년 천계성)이는 생사를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통일의 염원을 자연스럽게 나타냈다. 그리고, “별공통일”(천호중 3학년 임유순)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교찰과 생활을 비판하여 논설적이다.

“두 여인의 슬픔”(동일중 2학년 성혜경)은 두 비극을 실감 있게 표현했으나 구성이 산만하고 남의 이야기에 치우쳤다.

입선작 30편도 제 나름의 지혜와 방향과 결의를 나타냈으나 차별한 자기 반성보다는 남을 비판하고 제봉하려는 의도가 짙고 시사를 통한 스스로의 결의 보다는 시사 해설같은 느낌을 준다.

국토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은 성취될 그 날까지 꾸준히 계속되어야 하므로 특히 청소년은 밝은 지혜로서 확고한 자기 방향의 설정과 이에 따른 건실한 생활이 있어야 한다.





◇ 교 등 부 글 짓 기 ◇

< 최 우수 작 >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 ..... 박신옥

< 우수 작 >

대성동에서의 자각 ..... 이영국

작은 애국심 ..... 엄경화

할머니의 선물 ..... 최무열

< 가 작 >

달 ..... 이영숙

아빠의 얼굴 ..... 정정미

할아버지의 유서 ..... 부숙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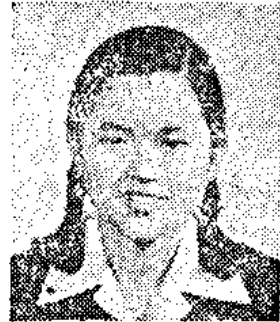
고등부 최우수 작

##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

박 신 옥

휘경여자고등학교 1학년

언젠가, 기억조차도 희미해진 아주 오래 전에 나는 어떤 그림책에서 서로 고집을 세우며 다투고 있는 두 필의 조랑말을 보았다. 두 필의 조랑말은 한 줄의 양끝에 목이 매어져 있었고 그들 각각의 앞에는 서로 반대쪽으로 놓여진 푸른 풀더미가 그들로부터 채법 먼 거리를 두고 쌓여 있었다. 두 필의 조랑말은 풀더미가 탐이 난듯 서로 자기 앞쪽으로 가려 했고 그러니 자연히 목에 묶인 줄이 방해가 되어 서로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처지에서 그래도 자기 앞으로 가겠다고 승부없는 싸움에 힘만 빼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때, 나는 이 조랑말들이 두 더미의 풀을 모두 같이 먹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방법은 그들이 사이 좋게 어느 쪽이든 우선 한 더미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함께 먹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인간이 말하는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싸움없이 같이 배부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두 필이 모두 힘으로 대결하여 자신의 앞의 것을 먹으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할 수 없이 힘 대 힘으로 겨뤄 승부를 얻는 방법이다. 이는 첫 번째 방법보다 비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은 못되지만 어느 한편이라도, 협력하여서 같이 먹는 데에 반대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시도돼야 할 것이다. 같이 굶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더 현명한 쪽이라면 힘을 축적하여 자신의 강한 힘에 상대방이 따라 오도록 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입장에서인지 쓸 데 없이 힘만 소모하고 있는 조랑말들의 어리석음이 흥미로웠고 그들의 헛된 노력에 조롱조차도 던지는 기분이었다. 그 조랑말들이 어떻게 되든 제3자인 내게 있어서는 관심 밖이었고 다만 그러고 있는 과정 그 자체가 우습고 재미있기만 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우리 인간 세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내가 선 이 땅에서조차 일어나고 있음을 실감한 지금 그 때의 그 모습을 우습게 여길 수 있었던 나의 위치와는 상반되는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심각하고 긴장된 이 상황의 타개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그림책에서 본 그 조랑말들의 싸움과 우리 민족의 분단된 현 상황과 모든 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본다. 한 줄

에 묶여서, 마음대로 묶인 줄을 탈피할 수 없다는 점부터 대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해결책에서조차 우리와 판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 민족은 20여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숨막힐 듯한 상황에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처해 왔다.

우리 나라는 그 오랜 위협의 침묵 속에서 무엇인가 가장 적절한 타개책을 찾고자 무진 애를 써 보았지만 그때마다 의견 대립으로 한 민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운명적 밧줄에 묶인 채 오늘 이 시간까지 어쩔 수 없이 침묵만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 다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가. 나는 예전에 생각해 보았던 조랑말 싸움의 해결책을 밑바탕으로, 나역시 당사자가 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과제라는 점과 인간 사회의 현실이라는 점에 고려하여 나름대로의 우리 통일 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미리 밝혀 둘 것은 자유 민주인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 그러하듯 나 역시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전제하에서 생각해 보려 한다.

나는 먼저 서로 타협하여 한쪽 풀더미를 먹고 다른 쪽의 것을 같이 먹어 치울 수 있었던 조랑말 싸움의 첫 번째 타개책을 기억해 본다. 이 방법은 서로의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 앉고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타협안이다.

이 타협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때의 「조건과 환경」이 서로가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교착 상태에 빠졌지만 만약 남북적십자회담이 잘 이루어졌다면 좀 더 통일로 향한 길이 좁혀졌을 것임에 틀림없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근본 목적인 “이산가족 찾기 운동”에서 이산가족의 재회만큼 20여년간의 굳어 온 민족간의 응어리를 녹여 내리게 할 좋은 방법은 없다고 본다. 사람이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는 것은 자신과 같은 피를 나눈 부모 형제와의 “훈훈한 정” 속에서 내면에 도사린 인간 본연의 따스한 정이 풀려 버릴 때라고 생각한다.

비록 오랜 세월 이질적 사상과 체제 밑에 세뇌한 북한 동포들이라 해도 부모 형제와의 만남에서는 사상도 무엇도 인간인 이상에는 쉽게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이렇게 해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후에는 좀 더 한계단 높은 곳의 정치 문제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작은 일부터 조금씩 해결하여 전체를 해결하듯 우리의 통일 문제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산가족찾기운동” 같은 작은 일에서부터 해결해 나가는 점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의 순수한 뜻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여 모든 일을 다시 원점으로 돌린 북한 공산당들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볼 때 이 방안은 현 상황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리 아량을 베풀어도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성경 귀절의 한 대목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다.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말라”고 하시던 말씀…….

유엔에서의 북괴의 정치적 책동, 비무장 지대의 땅굴 사건, 그리고 그들 만행의 절정을 이룬 지난 8월 18일의 공동 경비 구역에서의 살상 행위……. 이런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은 우리와 한 테이블에서 민족의 앞날을 신중히 논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확실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화의 길을 다시 트자는 우리 측의 제의에 조금의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헨리·키신저 미 국무장관의 미국·중공·한국·북한의 4자 회담 제의에는 분명한 거절을 표명했다. 우리 한반도의 문제는 당사자끼리 처리 할테니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고 그럴듯한 말을 늘어 놓고는……. 항상 그들의 행동은 말과는 전혀 무관하게 모순 투성이이다.

아직도 광기어린 그들의 눈빛과 머리 속에서 어찌 민족의 앞날을 걱정할 조금의 진실된 사랑이라든가 있다 할 것인가.

여하튼 첫 번째 협상 방안은 그 실현도가 아주 빈약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는 조랑말 싸움에서의 두 번째 방안을 우리의 처지와 비교하여 생각해 보자.

양쪽 중에 어느 한 쪽이 협상을 거부한다면 끝까지 독

존의 고집을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힘 대 힘으로 겨뤄 볼 수 밖에 없다. 여기서의 힘이라 하면 무력적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양쪽이 무력으로 대결한다 하면 우리 남한이 그간 이룩해 놓은 모든 경제적 사회적인 성장이 허사가 된다.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3천만의 피땀을 가치없이 해 버릴 뿐 아니라 승부없는 싸움에 결국 모두가 지쳐 쓰러지고 말 것이다. 두 필의 조랑말이 서로 앞쪽의 것을 먹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면 양쪽의 힘이 비등할 경우의 싸움에 승부란 있을 수 없고 지쳐 몰아 쉬는 한숨과 배고픔에 버등대는 발악만이 남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승부없는 싸움을 승리로 이끌자면 싸우는 당사자간에 강자가 되어야 되고 상대적으로 복괴를 어쩔 수 없는 약자로 만들어야 한다.

힘센 조랑말과 약한 조랑말이 한 줄에 묶였다면 약한 조랑말은 여하간에 힘센 조랑말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의 경제적인 힘, 국방의 힘, 그리고 총화 단결된 국민의 힘이 버티고 있는 한 복괴의 침략을 위한 칼은 녹이 슬어 버릴 것이고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격차에 그들 스스로 자멸하여 성장한 남한으로 흡수 되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남한이 튼튼한 힘을 키워 그 힘이 북한으로 넘쳐 들어갈 때 비로소 이 땅에도 통일신라 이래 맞는 온 민족과 강토의 통일에 다시 한 번 발전의 고동소



리가 힘차게 터져 나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실례를 도이칠란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 후, 잿더미로 변한 도이칠란트의 또 하나의 실례는 민족이 서로 이질 사상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명목 아래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된 것이다. 휴전선 아닌 베를린의 장벽을 사이에 두고 이 분단된 서부 도이칠란트의 국민들은 허리를 졸라매고 새 세계를 개척했고, 그 결과 1.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서부 독일은 세계에서도 손꼽는 부강국이 되었다. 반면에 공산 독재하의 동독은 채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서독에서 넘쳐 흐르는 힘에 그들조차도 그 힘에 순응하고 있는 처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는 서신 연락은 물론 서로 왕래조차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나는 이 동독과 서독이 반드시 멀지 않아 완전한 통일국가로 성장 할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약자는 언제나 강자에게 순응하기 마련이며 서독의 넘친 힘은 좁은 테두리에서 기계적인 구실을 하던 공산 치하의 사람들에게 차유란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귀한 것임을 깨닫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도이칠란트의 실례에서 힘입어 두 번째 통일 방안만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방안임을 감히 주장할 수 있다.

더구나 전쟁 준비에 광분한 나머지 국민 경제에 소홀했던 북괴의 상처가 그들 북한 내부에서 뿐 아니라 국외의

이곳 저곳에서도 끓아 터지기 시작했다.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빌어 온 돈을 상환할 길은 없고 게다가 북괴의 무역 실적조차도 저조하기 이를 데 없으니…….

국제적으로 신용을 잃고 고립 상태에 빠진 북괴는 또 그 내부에서도 치열한 정권 투쟁과 지칠대로 지친 북한 동포들의 반발로 내부 사회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계급없는 사회를 주장하던 공산당들이 정권 투쟁에는 더 치열하기 이를 데 없으니 이러한 자체 모순을 안고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단 말인가. 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주민들을 무시한 채 어떻게 그 사회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북괴의 약점을 안 이상 우리는 그들의 약점을 우리의 강점으로 키워 나가야 되겠다.

경제적인 박차를 더욱 가하고 국방에서 소홀함이 없이 열중하여 저들에게 조금의 헛점도 보여선 안되겠다.

끝으로 나는 모든 힘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수적이야 할 국민의 힘에 대해서 말하겠다. 국민의 힘이라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 무장이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강한 힘이 있다 해도 국민의 정신이 나태해져 있다면 그 경제력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또 그런 나태한 국민들이 경제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볼 때 모든 힘의 원동력은 정신 무장이 된 국민

정신에 있고 이 국민 정신은 힘이 라는 전체를 일으키는 하나의 생명의 씨와도 같은 것이다. 이 국민의 힘은 오직 온 국민이 총화 단결된 속에서만 나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상에서 힘을 좀 더 구체화시켜 경제적, 사회적, 국방의 힘등으로 나누어 좀 자세히 설명해 보았다.

끝으로 나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하고자 한다. 나는 앞에서 조랑말의 어리석은 싸움을 하나의 유희와도 같이 즐겼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제3자라는 입장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나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일에 괜히 내가 나서서 서두르면 오히려 우습지 않을까..... 그렇다. 우리 한반도의 사태를 보는 제 3자인 강대국이나 약소국 우리 당사자가 아닌 모든 국가들도 호기심을 품고 관망하고 있다고 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 예를 우리는 월남이 함락한 후의 자유국이라 하는 나라들의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네들의 동정이 아무리 진심에서의 것이라 해도 그것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믿는 그 자체가 우습다. 모든 나라들이 자국(自國) 우선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 요즘 누구를 믿는다는 말인가.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라는 구호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미국과는 많은 국제적 조약 아래 맺어진 우호국이라 해도 그 영향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 작은 일

부터 단계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자세를 잊어서는 안되겠다.

지난 20여년간을 서로 긴장된 침묵 속에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하루 빨리 타개해서 이 땅에 통일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민족적 과업이다.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국가의 강한 힘을 키워 그 힘이 북녘 땅에까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3천만 온 국민이 초롱한 두 눈으로 순간순간을 열심히 움직여서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자신 있게 넘길 수 있어야 하겠다.

## 대성동에서의 자각

이 영 국

제물포고등학교 1학교

며칠 전의 일이었다. 같은 반 학우인 성길이가 한테서 전화가 왔다. 만난 지도 꽤 오래됐고 궁금하기도 하여 얼른 수화기를 들었다.



“내일 나 대성동 이모택에 할머니와 같이 갈 건데 너 함께 안 갈래”하는 갑작스런 말에 당황하여 수화기를 끊지 않은 채 어머니께 의논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생각할 여지도 없이 쾌히 승락하셨다. 나는 내일 같이 가기로 약속을 하고 수화기를 놓았다.

지루하던 밤은 아침 이슬과 함께 사라지고 드디어 약속의 날이 왔다. 어머니께서는 며칠 묵을 준비를 해주셨다. 나는 성길이네 집에 찾아가 할머니를 모시고 출발하였다.

우린 기차를 타는 순간, 가슴이 부풀었으나 단순히 가보고 싶은 생각은 차차 없어지고, 좀 더 깊어치 있는 여행을 하고 싶었다.

난 처음 가는 자유의 마을이기 때문에 이름조차 모르는  
풍경 속에 점점 북으로 달리고 있었다.

할머니 말씀이 이 기차는 20년 전만 해도 신의주와 압  
록강을 거쳐 만주까지 갔다고 하셨다.

옛날 이 철로를 달리는 기차를 타고 만주로 행하는 독  
립 투사의 애환이 있었고, 6·25 때 괴뢰군들도 이 철로를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착잡했다.

우린 종착역인 문산에서 내렸다. 웬지 올 때와는 달리  
휴전선에서 가까이 와 있다는 생각이 들자 내 마음은 갈  
팡질팡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대성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차 있는 곳으로 걸었다. 그 곳  
에는 지붕이 없는 짚차에 군용건을 싣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차들도 거의가 군용차고 미군들도 꽤 많았다.  
차들을 갈아 탈 때마다 세심히 검사를 받아야만 했다. 제  
한이 많은 곳, 나이의 제한과 일주일 이상 묵으면 안된다는  
이곳은 어딘지 모르게 분위기가 딱딱하였다.

차는 떠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할머니를 자리에 앉힌  
다음 밖을 내다 보았다. 가뭄 때문인지 먼지가 몹시 났다.  
나는 차라리 눈을 감아야 했다.

한 30분쯤 갔을까, '저기가 임진강이다'라는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그 쪽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의  
철로는 20년 동안이나 묻혀 있어서 별정계 녹이 슬어 있  
었다. 아마도 전쟁 당시 아군의 피와 괴뢰군들의 피로 얼  
린 민족의 얼룩일런지도 모른다.

임진강은 휴전선과는 아랑곳 없이 남으로 말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그 푸르고 무단히 넓은 강 위로부터 어떤 하얀 조그마한 물건이 떠내려 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 북의 사람이 떠내려 보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침범 뛰어 들어 그것을 건져 내고 싶었다.

임진강 다리를 건널 때 내 머리를 쥘 울리는 것이 있었다. 조국의 땅인 이북 산천은 왜 같은 민족 같은 혈육을 가지고서도 갈 수 없는지, 또 민족 통일이 되는 날 열싸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찾아 갈 조국 산천은 왜 암흑의 철의 장막 죽음의 붉은 바람만이 휘몰아치는지를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이다.

임진강 다리 건너서 또 검문을 받았다. 마음 좋아 보이는 키 큰 미군 아저씨가 웃어 주어 나도 손을 흔들어 답례하여 주었다. 정말 고마운 분들이시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의 국가도 아니요, 자기의 민족도 아닌 이 곳에서 자유를 위해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우리의 조국을 남에게만 의존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뻔한 것이다. 조국의 국토 방위는 먼저 내 마음의 준비로써 흐트러진 사회는 질서 확립으로써, 내 고향 내 마을 지키는 후방의 지축 향토 예비군이 그래도 모자란다면 배우면서 지키는 우리 학도 호국들이, 한 손에는 펜을 한 손에는 총을 들고 지키는 국민의 자세가 확립되어야 하겠다. 즉 우리는 자립해야 한다.

자립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긍지가 필요하다. 지금

세계의 조류는 무섭게 흐르고 있다. 이러한 때 자칫 잘 못하다간 이 거센 조류에 휘말려 들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민족이 훌륭하다는 긍지만 가진다면 이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 영원히 생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젠 시원스럽게 길게 쪽 퍼진 아스팔트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숲도 다른 곳보다는 울창했다. 산과 산의 사이를 달려 그러나 황폐한 땅과 타버린 숲의 연속을 달려 드디어 대성동 입구의 팻말이 보이는 곳까지 왔다. 커다란 기와집들이 드문드문 눈에 띄었다. 가축의 울음소리와 큰 집들이랑 모두가 부유해 보였다.

차가 서자 주민들이 마중을 나와 주었다. 그 중엔 2년 만에 처음 본다는 성길이가 이모와 이종 사촌 동생들도 있었다. 성길이가 이모께서는 잘 왔다고 하시며 반가와 하셨다. 마치 조국 통일을 이룬 영웅이 북한의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는 기분 이었다.

집으로 들어서자 성길이는 할머니께 엄마가 살던 방이 어디냐고 여쭙어 보았다. 그 곳은 아담하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다.

밖에서 성길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성길이가 외할아버지께서 뛰어 오셨다. 나는 공손히 인사 드렸다. 할아버지께서는 반가와 하시며 방으로 들어 오라고 하셨다.

그 마을에서 매우 가까이 이북의 마을이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선 하루 종일 무언가 방송으로 떠들어 대고 있



었다. 새벽부터 초저녁까지 그렇다고 하신다.

노을이 별정계 물들어 왔다. 그것은 평등하게 대성동 마을 위에도 북한이 마을 위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다음날 동이 트자마자 모두들 밭으로 나가셨다. 나는 아침 식사를 한 후 성길리와 학교에 가 보았다. 학생 인원수 겨우 36명과는 달리 크고 깨끗하며 시설도 썩 좋았다. 선생님은 네 분이라고 하셨다.

오후엔 무섭게 덩더니 기어코 소낙비가 쏟아졌다. 마침 집 안에는 성길리와 나밖에 없어 소를 끌러 가야 했다. 우산을 쓰고 뛰었다.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하여 소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비를 피하기 위해 동산 숲 속으로 뛰어 들어 갔다. 주위를 살펴 보니 제멋대로 몇 십 년씩 자란 야생초들이라 굉장히 컸다. 숲은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었다. 마치 호랑이라도 몇 마리 나올 것만 같았다. '차라리 비를 맞고 가는 편이 낫겠다'라는 성길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내가 먼저 숲 속을 뛰쳐 나왔다.

우린 겨우 소를 찾아서 끌고 가는데 할아버지께서 우릴 찾으러 오셨다.

집에 와서 할아버지께 자세히 말씀 드렸더니 다시는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6.25 때 그 동산에는 괴뢰군 몇 명이 숨어서 사람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무조건 총질을 했다고 하셨다.

할아버지 말씀을 듣는 순간 입 속에서선 큰 한숨이 길게

나왔다.

성길이가 이모부께서 모는 경운기를 타고 시냇가로 갔다. 우선 물을 막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기 시작했다. 물을 거의 퍼내자 그 밑에는 가물치, 미꾸라지, 송사리... 등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여러 종류가 펄떡펄떡 뛰었다. 시냇물이 깨끗하여 미꾸라지가 지나 가는 것이 보였다.

저녁에 공회당에 올라 갔다. 멀리 회담하는 장소가 보였다. 성길이가 이모부 말씀이 저 자유의 집은 이동식 건축인데 빠른 기간내에 집을 짓자 눈이 등그레진 북한 사람들이 놀라서 한참 쳐다 보더라나. 안에서 일하는 하얀 린닝 셔츠의 군인 아저씨들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북 마을은 그저 선전용으로 집만 지어 놓고 저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 이유는 빨래가 항상 하나도 줄에 널려 있지 않으며, 하루 종일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고 하셨다. 논밭을 구경하러 다녔다. 아직도 손이 모자라 버젓이 놀고 있는 땅이 많았다. 참외 밭에서 참외를 먹고 있는데 성길이가 이모부께서 저길 보라고 손짓하셨다. 그 곳에는 검게 보일 뿐 아름답다고 배우고 상상하던 북녘의 산들이 이제는 사방으로 뿔린 토오치카가 나무대신 메워져있었다.

“우리는 통일의 고갯길이 제 아무리 높고 험할지라도 우리 3천만 민족이 하나로 뿔뿔 뭉쳐서 경제 건설의 힘, 국방의 힘, 국민 정신의 힘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면 머지 않아 우리의 염원인 조국 통일은 오고야 말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때 저 쪽에서는 하얀 새들이 날고 있었다. 남과 북의 하늘을 자유롭게 훨훨 나르고 싶은 나의  
염원처럼…….

## 작은 애국심

엄 경 화

동덕여자고등학교 1학년



‘와아’

드높은 함성,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히 고입니다. 필승을 염  
원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꼭 아주 힘껏  
쥐어 봅니다.

남은 시간 3초, 점수는 4점을 앞서가고 공격권은 우리  
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움직임보다 점수판에  
아로 새겨진 3초란 숫자가 8천여 대관중의 시선을 끌어  
모읍니다. 지루한 초들이 천천히 지나 갑니다, 3초,  
2초, 1초……. “땅!” 시합이 끝났음을 알리고 우리의  
승리를 알리는 커다란 신호 소리가 들리자마자 5명의 선  
수들은 한 덩어리가 되어 감격스런 눈물을 터뜨립니다.

시합은 끝났고 우리는 이겼습니다. 내 마음은 어느새 먼  
자취에서 감격해 울고 있는 선수들 곁으로 달려 갑니다.

2년전, 우리 나라에서 아시아 여자 농구 선수권 대회

가 열렸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 나라는 결승전에서 숙적 일본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태극기가 올라 가고 애국가가 연주됩니다. 결코 기쁘고 즐거울 수만 없는 눈물겨운 장면입니다.

모진 풍파와 역경을 딛고 영광을 차지한 선수들의 웅장스럽게 느껴지는 기쁜 울음이 관중들에게 전도되고 조금 전의 열광하던 분위기는 어느새 숙연해졌습니다.

콧날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앞이 희미해지더니 다음 순간 눈물이 흐르는 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난 몹시 당황했습니다. 움직일 틈없이 꽉 찬 대관중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아 낮이 화끈거립니다. 우는 것이 속스럽고 창피해 눈가를 자꾸 닦아 보지만 북받쳐 오르는 물방울의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와도 이젠 닦지 않았습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눈물이 아닌 당연하고 떳떳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육관이나 운동장을 찾아 다닌 이래 경기의 승부 때문에 눈물을 흘려 본 적은 없었기에 자신을 달랠 수 없도록 당황했습니다.

같이 구경했던 친구는 나의 기상천외의 눈물 때문에 더욱 당황을 합니다. 운동에는 문외한인 친구도 끝내 감격스런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눈에 반짝이는 무엇을 담고 말았지만.

이제 승리의 환희도 북받쳐 오르는 걱정도 고요히 가라

앉았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 가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줌처럼 울지 않는 내가 어떻게 그 순간에 울 수 있었을까?

참으로 의아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잠시 걷는 동안 혼자서 자화자찬의 결론을 얻습니다. '나라의 승리를 한껏 기뻐 할 수 있고 진정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나는 애국자였구나.' 더불어 나는 운동 경기를 광적으로 좋아하며 체육관과 운동장을 설새 없이 드나들던 일들의 보람을 이 한 순간에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더 넓은 안목으로 우리 민족은 운동을 매우 좋아하고 즐기며 여러 종류의 운동에 풍부한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여러 나라에서 열리는 운동 경기에 참가해서 승리의 쾌거를 가져다 주고 그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거의 관심을 기울이고 화제의 대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운동에 대한 관심의 일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나래를 한껏 펼쳐 볼 수 있는 푸른 운동장과 체육관에서 펼쳐 지는 운동 경기는 만인을 매혹시킬 수 있는 신비상도 가지고 있지만 그 승부는 온몸이 마비되도록 냉정합니다.

각종 국제 경기가 세계 도처에서 열려 우리 선수들이 파견되면 나는 그 때부터 경기의 소식에 혈안이 됩니다.

커다란 점수차로 상대팀을 대파했다는 속 시원한 소식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고비를 뚫고 신승했다는 아슬아슬한 소식도 그 과정이야 어떻든 최후의 결론인 승리에만 신경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겼을 때의 통쾌감을 맛볼 수 있는 승리는 역시 좋은 것이고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 싸우고 관중들은 이 승리를 맛보기 위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운동장의 띄약벌을 찾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마없는 아기가 존재하지 않듯, 패배없는 승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승리와 패배는 극과 극을 달리는 머연 관계이면서 한편으로는 떨어 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겼을 때는 좋아하고 졌을 때는 힐책하고 원망하는 알팍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승리가 안겨주는 한 순간의 기쁨을 되새기는 것만을 중요히 생각하지 말고 패배했을 때의 중요한 경험 즉 반성을 하고 패인을 분석하고 다음에의 승리를 위해 정신 자세를 가다듬는 일이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때 느끼지 못하는 아쉬움과 간절한 바람은 패배했을 때 항상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국가끼리의 경기에 우리 나라는 절름발이 대표단을 내보냅니다. 완전한 하나에서 뽑혀지지 않고 반에서 뽑혀진 불완전한 대표단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올림픽 같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참가하는 대회에선 우리 나라의 존재가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안타

까와 하고 아쉬워 하는 와중 속에서도 나는 그 뚜렷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흔히 운동 선수들에게 허리에 이상이 있을 때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선수 생활에 중치부를 짊어야 하는 억울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불안한 이유는 우리에게 이 중요한 허리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대 수술을 단행해야 할 큰 상처, 허리가 절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절단된 한 부분인 우리의 조국은 각 방면에 걸쳐 고군분투하여 세계 단방에 그 높은 기상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반이 아닌 완전하고 막강한 우리의 기상을 그리워해 봅니다.

요사이의 경제 대국과 운동 강국 사이에 등식이 성립될 수 있을 만큼 운동이 미치는 영향은 국제 사회에서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성큼 다가서는 우리 조국에게 갈등을 가져다 주는 것 중 하나가 운동 부분의 열세이기도 합니다. 반에서 구성된 대표단의 안타까운 분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범위의 좋은 성과 이상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통일된 조국에서 구성된 단 하나의 대표단입니다.

단 하나의 조국만을 기다려 봅니다.

난 보고 싶습니다.

총화 유신, 총력 안보로 이룩된 불구 대표단의 고군분투보다 평화 통일로 이룩된 단 하나의 대표단의 늠름한 모습을.....



그래서 소녀들의 작은 애국심이 언제 어디서이거나 타  
오를 수 있는 나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제 사회에서 두 개의 한국이 대두되는 엄청난 불상  
사가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다시 없기를 원하고 있  
는 것입니다.

친구가 서독을 갔읍니다.

우리의 우정은 동양과 서양에 멀리 나누어져 있지만 통  
신의 발달로 우리는 마주 보듯 이야기할 수 있고 더욱 깊  
은 우정을 서신으로 나누곤 합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별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정  
성스레 내용을 적고 결봉을 쓸 때 뭔가 꺼림직한 것을 느  
끼게 됩니다. 독일이라는 엄연한 한 나라의 이름을 쓰고도  
그 앞에 '서쪽'이라고 또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쪽이  
란 미미한 단어가 한 국가의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  
각할 때 가끔 통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분단 국가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서독은 국민들의 단결, 성실, 근면,  
절약의 투철한 정신으로 자유 진영의 최강국의 하나로 경  
제, 정치적으로 또 운동 경기에서도 세계 정상에 올라 있  
고 그 위치는 대단히 확고부동합니다.

2차대전의 패배가 가져다 준 커다란 일깨움은 오늘의  
서독이 있기까지의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한 번 경험한  
패배는 이렇듯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기에 충분합니다.  
그 패배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36년간의 식민지 생활, 수치스러운 골육상쟁의 비극 등은 승리에의 밑거름이요 보다 나은 내일의 도약의 발판입니다. 우린 이길 수 있고 우린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무릅쓰고 경제 대국의 위치에 올라서 있는 서독을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고만 있는 어리석음을 행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통일의 그 날까지 총력 안보, 총화 유신, 단결하는 정신이면 된다는 굳은 신념과 자유를 사랑하고 수호하려는 정신 자세들은 모두 우리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를 지닌 민족입니다. 우리의 기는 언제나 발휘될 수 있습니다. 분열된 국력이 아닌 차들같이 단단하게 뭉쳐진 국력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기와 풍부한 소질들은 더욱 찬란하게 온 누리에 비취질 수 있습니다.

실리주의 세계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 뛰어난 나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철저한 실리주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 경기 단체에서 왕왕히 축출이라는 말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중화민국 축출, 중공 가입, 이스라엘 참가시 그 대회 불참등 너무 각박하리만큼 냉정한 일들이 우리의 주위를 계속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인정이라곤 도무지 존재하지 않는 국제 사회의 냉정을 탓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고 간과할 때 나타나는 결과

는 무서운 사태 뿐입니다.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조국없이는 정치·경제 등 어느 면에서나 융통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단 하나의 조국을 기다려 봅니다.

운동 부분에서도 최우위에 서서 세계만방에 대한민국의 일을 심을 수 있는 영광의 그 날을 기다려 봅니다.

통일된 조국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경기장에서 승리의 환희와 쾌재를 부르며 기뻐 울 수 있는 소녀의 작은 애국심이 언제서나 표현될 수 있는 그 날을 고대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그만 나의 소원을 되뇌어 봅니다.

나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나의 바램은 나라 사랑, 꿈에도 나의 바램은 나라 사랑.

고등부 우수작

## 할머니의 선물

최 무 열

배정고등학교 1학년



우리 집에서 약 20여 미터 가량 가면 커다란 약국 옆에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가 붙어 있다.

그 가게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다. 가게주인 할머니는 손님이 없을 때는 언제나 문 앞에 걸상을 내놓고 앉아 계신다.

동네 꼬마에게는 그 할머니가 꽤 두려운 존재다.

언제부터인지 그 할머니를 동네 꼬마들은 ‘마귀할매이’라 부르는데, 나는 그 별명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지 자세히 모른다. 물론, 애들도 몇 모르고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여느 때와 같이 그 집 앞을 지나며 공손히 인사를 했다.

“할매이! 안녕하십니까?”

“으응, 오늘은 좀 일찍 오는구나.”

“예. 오늘은 일찍 마쳤습니다.”

“그래애! 거기 서 있지 말고 여기 좀 앉아라.”

“예.”

“민수야! 너 몇학년이냐?”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럼, 몇살이지?”

“열 일곱 살입니다.”

“할머니 갑자기 그것은 왜 묻심니까?”

“..... 아냐, 그냥 한 번 물어 본거야.”

“..... 오늘은 좀 바빠서 이만 갈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이소.”

“그래.....”

나는 돌아 오면서 할머니가 왜 나에게 여의 때와 달리  
그런 말을 하는지 이상스럽게 생각해 보다가 집 앞에 오  
자 이내 사라졌다.

대문에 들어서니 국민학교에 다니는 동생이 달려 오며,  
“오빠야, 저기서 뭐 했노? 오빠는 저 마귀할매가 좋은  
가 부지.”

‘마귀할매’란 말에 나는 동생 머리에 알밤을 하나 주고  
말았다.

동생은 아픈지 울 듯 하다가 무슨 큰 비밀을 알려 주는  
듯이

“참, 그 할매가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대문 앞에 서서  
하늘을 보고 절하는 것 아냐?”

나는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가 싶어 물끄러미

쳐다만 보니까, 동생은 자기 말을 믿어 주지 않는다고 불  
통한 소리로 방안으로 들어가면서 내 뺨는다.

“거짓말 아이다. 내가 직접 봤단 말이야.”

나는 어떤 강한 호기심에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가  
게 앞에 나가 보니 정말 할머니는 북쪽 하늘을 향해 두 팔  
을 벌리면서 몇 번이고 절을 하셨다.

가까이 다가가 보려다 할머니의 그 자세가 너무나 경건  
하여 말 한마디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왜 저럴까?”

나 혼자 무슨 큰 비밀을 마음 속에 간직한 것 같았다.

8월의 강한 햇볕이 일각의 여유도 없이 내리비치는 어  
느날 정확히 말하면 할머니의 그 이상스런 행동을 본 지  
이틀이 지났다. 나는 노곤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 오는  
데 동네 꼬마 한명이 할머니에게 붙잡혀 혼나고 있었다.

“요녀석 어디 맛 좀 봐라.”

하시며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차게 떠시며 알밤을 한대 주  
니 꼬마녀석이 엄살인지 진짠지 죽는다고 고향을 지른다.

나는 한참 그 모양을 조금 떨어져서 보다가 할머니 가  
까이 다가가니 나를 보시고 아이의 손을 놓아 주신다. 할  
머니의 얼굴에 잠깐 비친 그 모습은 아이가 귀여워 죽겠  
다는 그러한 표정이었다. 나는 그 순간 할머니의 모든 것  
을 알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먼저 며칠 전에 본  
할머니의 그 일을 캐 물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잠깐 동안 슬픈 빛이 가득차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응, 그래? 그건 별거아냐, 내가 남북통일 바라는 마음에 그런거야. 비록 내일 죽을지 모르는 나이지만 통일이 되면 대동강 구경이나 하고…….”

나는 할머니의 고향을 물으려다 일그러지려는 할머니의 얼굴을 그 이상 바라다 볼 수 없어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상쾌한 아침이다. 젊음의 상징인 태양도 힘차게 약동하며 꽃밭의 꽃들도 한껏 돋보이는 싱그러운 아침이다. 동생이 신문을 들고 헐레벌떡거리며 마당을 가로 질러 방으로 뛰어 온다. 나는 무슨 일이 났나하고 동생을 바라보니

“오빠, 오빠!”하면서 숨이 차 얼굴을 빨개 가지고 내 앞에 선다.

“왜 그래, 또 싸움이라도 했나?”

“아이다, 아이 숨차!” 하면서 그대로 방바닥에 드러눕는다.

“애 빨리 얘기 해 봐 답답해 죽겠다.”

“가만있어, 남은 숨이차 죽겠는데 휴.”

“그래 천천히 이야기 해 봐라.”

“글쎄 이 신문 좀 봐.” 동생이 가리키는 신문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고난과 역경의 피. 2백만원

방위 성금으로 —○○○할머니—』

그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은 분명히 구멍가게 할머니였다.

나는 신문을 읽다 말고 할머니 가게로 뛰어 갔다. 할머니 가게 앞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 갔다.

할머니는 입가에 웃음을 띄우시며 누구와 앉아 이야기 하고 계셨다.

“할머이요.” 나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우두커니 할머니를 바라 보기만 했다.

“오! 민수냐.”

“할머이요. 저는 할머니가 그토록 훌륭한 분이신 줄은 몰랐습니다.”

“너석. 이 늙은 것이 훌륭 하면 얼마나 훌륭할까부냐.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들 이러는지.”

할머니는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것이 귀찮은가 보다.

“아닙니다. 이 돈은 다른 사람들의 수천 수억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들어라는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래. 이 돈이 오랑캐를 쳐 부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보람이 없겠구나.”

“염려마시소. 이 돈은 틀림 없이 총알이 되어 오랑캐의 머리에 쳐박힐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나를 꼬옥 껴안는다. 비록 양상한 몸체이지만 어릴 때 안긴 어머니의 품 속같이 아늑하여 나는 일어설 줄을 몰랐다.



어느덧 8월의 따갑던 태양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밀려 나기 싫은 듯 안간 힘을 쓰는 고비. 나는 저녁 산보를 갔다 오는 길에 오랜만에 할머니 가게에 들렀다. 가게문을 열고 들어 서니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할머이요?” 가게를 통하는 방문 앞에 와서 “할머이요, 주무십니까?”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그러자 방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얼굴을 내미셨다. 나를 보더니 약간 당황한 빛을 띠시더니만 이내 반가운 얼굴로 “오! 민수구나, 어서 들어 오너라.”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조그만 방에 들어 오게 되었다. 방안에 들어 서니 나의 시선에 제일 먼저 들어 온 것이 맞은 편 벽에 걸려 있는 낡은 사진이었다. 40이 될까 말까한 잘 생긴 남자의 얼굴이 나의 시야에 강하게 들어 온다. 방에는 초출한 음식이 조그만 상 위에 놓여 있다. 저녁이 훨씬 넘은 시각인데 웬 음식인가 이상스레 할머니를 쳐다 보니 할머니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상 위에 놓인 사과 접시를 나에게 밀어 주었다.

“할머니. 제사 지냈니까?”

할머니의 눈에는 어느 새 눈물이 어린다. ‘무슨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만에 할머니는 지나 온 뼈아픈 일을 눈물을 하염 없이 흘려 가며, 어느 순간에 나의 손을 꼬옥 쥐시며 말해 주셨다.

할머니의 고향은 경기도 개성 시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 잡은 아담한 기와집에 할머니는 공무원인 남편과 열 살의 사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았단다. 아이의 이

름은 용식이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새벽. 멀리서 아늑하게 들려오는 포 소리에 잠을 깬 용식이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더니 점심 때에야 들어 오셔서 빨리 짐을 싸라고 하시길래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짐을 쌌다. 용식아 아버지는 ‘그 놈들이, 기여코 일을 저지르는구나.’ 하고 이를 갈더니 또 웅하니 밖으로 나가더구나. 우리 모자는 너무나 떨려 하루 종일 밥을 굶어 가면서 용식이 아버지가 들어 오기를 기다렸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한 밤중에 문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가 보니 용식이 아버지가 피투성이가 된채 쓰러져 있더구나. 방으로 옮긴 용식아 아버지는 거의 의식이 없더니만 한참 후에 나를 보더니 ‘놈들에게 당했어, 빨리 용식을 데리고 가세요.’

‘이 원수를…….’ 하시면서 나와 용식의 두 손을 꼭 쥐시더니 숨을 거두고 말았어. 할머니는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만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나의 두 손엔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상 위에 놓여 있는 미역국은 벌써 식어 응얼져 있었다.

“할머이요. 용식이는 우째 됐십니까?”

“그 애는……후후.”

“이틀을 꼬박 굶고 밤에 서울이 보이는 의정부에 도착했지. 보슬비가 내리니 더욱 추워져 나는 용식이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향하는데 어느 길목에서 피뢰군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지. 그 때 그들은 어린 용식을 발길로 차 논두렁에 떨어뜨리고는, 나를 잡아서 차에 태우려고

하지 않겠니. 그 순간 나는 나의 손을 잡고 있는 괴뢰군의 손목을 이가 아프도록 물었지. 그리고 그대로 용식이 떨어졌던 논두렁으로 내려 갔다. 그런데……. 그곳에 용식이 보이지 않더구나. 나는 ‘용시아’하고 고향을 쳐 보았지만 캄캄한 주위에 포 소리에 묻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신 없이 용식을 부르며 나는 오던 길을 되돌아 가는데 길가에 용식의 신발만 발견하고 애는 찾지 못했지.”

나는 조금 전까지 보지 못했던 파란 운동화 한 켤레를 상 밑에서 꺼내더니 그것을 두 손에 꼭 쥐고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를 무슨 말로 위로할지 몰라 나도 그 운동화를 붙잡고 울고 말았다. 나의 머리 속에서는 할머니가 어린애를 귀여워 하시던 것과 아침 저녁으로 북쪽을 향해 서 있는 것과 방 안에 놓여 있는 생일 음식상이 한꺼번에 겹쳐졌다.

“할머이요, 조금만 기다리든 됩니더.”

나는 그 이상의 말을 못하고 울고 계시는 할머니를 놔두고 밖으로 나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별 빛이 밝았다.

『40년만에 모자 상봉』 『그리운 고국 땅을 밟다』 『어머니와 극적인 상봉』 조총련계 제일 동포들이 북괴의 악랄한 허위 선전에 속아 살다가 추석 성묘를 하기 위해 고국에 돌아 오는 이러한 신문 기사와 방송이 나올 때마다 할머니는 가게 일을 전혀 보지 못하고 매우 안타까와 하였다. 그러던 할머니가 엿그제 돌아 가셨다. 그 날은 늦게 학교에서 돌아 오는데 할머니 가게 앞에 많은 동네 사람들이 모

여 있었다. 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을 비집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툭툭 부은 어머니는 나를 보시고 방안으로 끌고 가신다. 그 곳에 할머니는 누워 계셨다. 가슴 위에는 언젠가 본 파아란 운동화가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순간 할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얼어져 울었다.

“할머이요. 와 죽십니까…….”

할머니는 정말 장한 일을 하시고 돌아 가셨다. 모든 재산을 반으로 나누어 방위 성금과 고아원에 기탁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또 한 번 할머니의 홀륭함에 고개가 수그러졌다. 나에게는 그렇게 소중한 여기던 운동화와 항상 품속에 간직하였던 것 같은 어린 아이의 사진을 주셨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를 찾더니 나에게 남북통일이 되면 용식이를 만나 꼭 전해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주더란다. 그것은 내가 아끼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되었다. 그 운동화와 사진은 할머니의 따뜻한 품속과 손길이 닿아 언제나 따뜻하다.

이제는 남의 손에 들어가 있는 그 가게 앞을 항상 지날 때면 나의 손은 나도 모르게 불끈 쥐어지면서 마음 속으로 뇌까리는 버릇이 생겼다.

“할머이요. 걱정 하지마이소. 내 꼭 전하겠심더.”

## 달

이 영 숙

대성여자상업고등학교 3학년

갈벌이 제법 따갑게, 목덜미에 와 떨어진다. 방금 타고 온 버스가 넓은 비포장 도로를 뽀얗게 먼지를 일으키며 미끄러져 사라진다. 막 셋길을 접어드니 산새 소리가 요란스레 귀를 울린다.



15년전과 조금도 다름 없는 소리다. 밤이 익고 있는 밤나무 발에 들어서니 향긋한 시골의 정겨운 흙 냄새가 코를 찡하니 울린다. 이 곳이 정녕 내 고향인가. 깊게 심호흡을 한다. 고향의 넓은 산과 들을 모두 들이 마실듯한 깊은 호흡 속에 생생히 떠오르는 옛날들.

아마도 그때가 열 세살 때였으리라.

아주 어릴적부터의 친구인 동식이와 밤을 따러 갔던 일이 있다.

“동식아 우리 밤 따기 내기하자.”

“그래, 그것 참 재밌겠다. 빨리 가자.”

들이는 막 달려 밤나무 숲까지 왔다. 열심히 나무를 두들겨 잘 익어 짹짹 갈라린 알밤들을 후두둑후두둑 털어 내렸다. 고맙게도 내가 터는 밤나무는 반항없이 잘도 떨어져 내렸다. 그런데 웬일인지 동식이는 때리기는 힘껏 때려도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다.

불과 몇 시간만에 나는 한자루를 가득 털 수 있었으나, 동식이는 반자루도 채 털지 못했다. 나는 한자루 그득한 밤자루를 어깨에 짊어졌다. 제법 묵직하니 어깨를 누른다.

“야, 동식아, 나 이거 집에 갔다 두고 올게.”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밤나무 숲을 빠져 나왔다.

그 때까지도 동식이의 밤터는 소리가 아련히 귀를 울렸다.

집에 와보니, 추석에 먹을 햅쌀이라면서 엄마, 아버지, 머슴 삼룡이, 그리고 동생들까지 모조리 나와서 벼를 털고 있었다.

“아니, 애, 석민아, 어딜 갔다 이제 오니? 어서 어서 이것 좀 거들어 다오. 자, 이 멍석을 뒷 마당에 펴고 이 벼 좀 갔다 널거라.”

나는 부지런히 집안 일을 돕느라고 동식이를 깜박 잊고 있었다.

힘겨운 일을 많이 해서인지 그날 저녁엔 몹시 피곤해 일찌기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난 문득 동식이 생각을 한 것이다.

“짜식, 한자루 가득 따가지고 내려 왔겠지.”

나는 피식 헛 웃음을 웃었다.

막 잠이 들려고 할 때다.

“석민아, 석민이집에 있니?”

동식이 엄마 목소리였다. 벌떡 일어났다.

“동식이 자식, 밤 많이 따왔어요?”

나는 대답 이렇게 물었다.

“아니, 그럼 동식이가 밤을 따러 갔니?”

“네, 그런데 아직 안왔어요?”

“그래, 난 여기 온 줄 알았는데. 대체 이 녀석이 어딜 갔지? 그래, 너하고 같이 갔었니?”

“네, 그런데 그 자식 꽤 못 털던데요. 제가 한자루 가득 따가지고 내려 올 때까지 반자루도 못털었었어요. 그 자식 조금밖에 못털어 못들어 오나 보죠? 잠깐 계셔 보세요. 제가 갔다 올게요.”

나는 후다닥 밖으로 나왔다.

“애 조심해라. 어두운데 호롱불이라도 가지고 가렴.”

동식이 엄마가 뛰어 가는 나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논둑길을 달려 산등성이까지 올라 왔다.

“와! 달 참 밝은데.”

나는 새삼 감탄을 했다.

“하긴 추석이 널, 도런데 저만큼도 안 밝으면 말도 안 되지.”

나는 혼자 증얼거리며 제법 싸늘해진 공기를 헤쳤다.

“동식아, 동식아, 여기 있니?”

조용한 밤나무 숲을 향해 나는 소리 쳤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을 풀 벌레가 울 뿐이었고, 나의 커다란 목 소리는 그대로 메아리쳐 돌아 왔다.

“짜식,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나부지.”

나는 돌아서 내려 가려다 달이 하도 밝아서 밤나무 숲 속으로 들어갔다.

동식이가 밤을 얼마나 찢나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밤 까시를 깐 것만 보면 한 되쯤 되겠다. 또는 한 말쯤 되겠다고 나는 추측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밤나무 아래까지 왔다. 그런데 웬일인가? 동식이의 밤 자루가 아직도 반자루인채 밤나무 밑에 멋대로 덩굴어 있었다.

“아니, 이 자식이 어딜 갔지? 동식아 동식아.”

나는 불길함을 느끼며 밤나무 숲 옆으로 나있는 벼랑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그런데 동식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닌가.

“동식아, 얍마, 동식아, 동식아!”

마구 흔들어 보았으나 동식인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동식아…….”

나는 밤새도록 엉엉 울었다.

다음날, 나는 안방에 드리 누운채 정오가 되어서야 장신을 차렸다. 머리가 몹시 아프고 목이 쉬어 말이 나오질



않았다.

“석민아, 좀 어떡니?”

엄마가 걱정스런 얼굴로 내려다 보신다.

“엄마, 동식인, 동식인 어떻게 됐어?”

나는 어젯 밤의 일들을 아련히 떠 올리며 엄마에게 물었다. 다시 또 눈물이 주루루 흘렀다. 임마도 울고 있었다.

“엄마.”

“그래 석민아,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고 너라도 어서 일어 나와지.”

엄마가 아마 위에 물수건을 갈아주시며 말씀하신다.

며칠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식이가 그 날 무장공비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동식이는 내가 털던 밤나무 옆에 작은 묘로 남게 되었다.

“동식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내가 잘못했어, 웬히 밤 털러 가자고 했나봐, 동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동안은 나는 동식이의 묘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가을 바람이 불고 있다.

하늘을 본다 텅텅이, 맑은 하늘, 그래서 모두들 이 계절을 가을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다.

양길가에 피어있는 코스모스 무더기들이 옛날을 더욱 그리게 한다.

어느새 와 있는 밤나무 숲.

옛날과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오직 나무가 너무너무 커

저 이제는 고목이 된 밤나무 몇 그루와 베어져 흩어진 나무 토막, 그리고 새로 심겨진듯 싶은 아기 밤나무가 제법 크게 자라 있다. 옛날에 내가 따던 밤나무도 이미 고목이 되어 버렸다.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는 동식이의 무덤 위엔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다.

“동식이, 내가 왔네 그 동안 많이 원망했지? 꼭 십오 년 만이야.”

나는 손으로 잡초를 뜯으며 조용히 무덤 곁에 앉았다.

“우리들의 고향엔 변한게 하나도 없군, 동식이, 작은 동리와 집들, 밤나무 숲도 자네의 이 작은 무덤도 옛날 그대로야. 동식이 자네도 알고 있지? 자네가 간 1년 후였어, 우리 마을에 그 콩비들이 또 넘어 왔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놈들을 잡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네.

삼 사십리나 떨어진 읍내 경찰서에 연락할 사이도 없었어. 그러나 나는 뒷 산을 넘어 읍내 경찰서를 향해 뛰었어. 그리고 내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그만 쓰러져 버렸던게야. 다음날 아침에 어느 병원에 누워 있던 나를 발견하고 경찰 아저씨들께 부랴부랴 어제의 일들을 얘기했지. 그리고 우리가 마을로 달려 왔을 때 이미 늦어 있었어, 우리 집안 식구, 자네 집안 식구들, 동네 이장님, 온 마을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어. 여보게 나는 자네를 잃었을 때 보다는 더 견디기 어려운 슬픔에 미칠 것만 같았어. 마구 몸부림치며 울었다네.

그리고 난 저주스러운 이 땅을 버리기로 마음 먹었어.”  
나는 아예 엎드려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여보게, 이 저주스러운 삶을 난 극복했어. 놈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말야. 울지 않고, 약해 지지 않고,  
이렇게 굳굳하게 살아 온 거야. 여보게 나 이제 소위가  
되었네. 놈들에게 이 맺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절대  
로 이 군대 생활을 청산하지 않을 결심으로 나는 군에  
입대를 했고, 오늘에 이른 것일세.”

산새가 우짖는다. 옛날과 다름 없는 소리로……. 이제 막  
해가 지고 있다. 작은 저 마을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을  
까? 저녁 연기 사르는 불꽃이 여기 저기서 튄다. 서서히  
발걸음을 옮겼다. 옛날에 나 살던 집 대문이 활짝 열려있  
고 빨간 고추가 옛날과 다름 없이 넓은 앞마당에 널려 있  
다. “엄마”하고 부르면 금방이라도 열려진 대문으로 엄마  
의 웃는 얼굴이 내다 볼 듯 싶은 착각을 느끼며 나는 열  
심히 대문을 향해 걸어 갔다. 대문을 기웃거렸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처럼 집안은 한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닭 서  
너마리가 마당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을 따름이다.

“거 뉘시우, 남의 집 앞을 기웃거리는데.”

다리가 하나 없는 노인이 목발을 짚고 서 있다.

“아니? 도련님 아니십니까? 도련님 석민이 도련님 이  
시죠?”

늙어 쭉그리진 눈에 흥건히 꺾이는 눈물, 분명 머슴 삼  
룡이다.

“박 서방 아니요.” 나는 말 끝을 흐렸다.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삼룡입니다.”

“박 서방 어떻게 된 일이오? 분명 그 때 온 동리 사람들 다 죽은 줄만 알았는데.”

“네, 도련님, 차차 말씀 드리지요. 어서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도련님 이게 얼마 만입니까?”

박 서방은 연실 고개를 흔들며 대며 옛날과 조금도 다를 없는 태도로 내 손을 잡아 끈다.

깨끗이 정돈된 안방엔 옛날에 쓰던 가구들이 잘 정리된 채 놓여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커다란 사진이 벽 위에 높이 걸려 있다.

“주인 나리,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오시리라 생각던 제 꿈이 오늘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주인 나리, 고맙습니다. 도련님을 제게로 보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도련님, 올라 오셔서, 절 올리십시오.”

박 서방이 감격해 울고 있었다.

“아버님, 아버님, 용서 하십시오. 이 못난 놈이 돌아왔습니다. 박 서방, 정말 고맙소. 내가 해야 할 일들인데, 정말 면목이 없구려.”

박 서방의 앙상하게 마른 손목을 잡았다.

“도련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도련님, 참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소위님이 되셔서 돌아 오시다니 정말 훌륭하십니다.”

박 서방의 늙은 두 눈이 작은 경련으로 일렁거렸다.

“도련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제가 곧 상좌 올리겠습니다.”

박 서방이 나간 방 안에 싸늘한 공기만이 흐르고 있다.  
밖으로 나왔다.

어두운 하늘에 달이 덩그마니 매달려 있다.

“아, 달도 참 밝구나”

나는 또 새삼스러움을 느낀다. 동식이가 가던 날도 오늘처럼 달이 아주 밝았지. 눈물이 주루루 흘러내린다.

가을 바람은 제법 서늘하다.

집 앞 논에는 곱게 잘 익은 벼가 달 아래 평화롭다.

“도련님.”

어느새 박 서방이 와있다.

“박 서방 이게 모두 박 서방이 지은게요?”

“예, 주인님께서 가신 후 줄곧 제가 지었지요. 도련님을 기다리며 말입니다.”

“박 서방, 그런데 어찌된 일이요? 박 서방은?”

“예, 저도 그때 놈들과 싸웠지요.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싸웠습니다. 한참을 싸우는데 도련님께서 뒷 산을 넘어 경찰에 신고하려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막 산등성이를 넘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놈이 도련님을 본 모양이었어요. “저 놈 잡아라”하고 소리치며 도련님을 쫓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 그 놈을 또 쫓아 갔고, 얼마 후에 저는 놈과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놈은 단도를 들고 있었  
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다리를 마구 찢어대는 것이 있  
어요.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다행히도 놈을  
치치할 수는 있었지만 다음 날 제가 눈을 떴을 땐 어느  
병원 병실이었고 제 왼쪽 다리는 이미 절단이 되어 있  
었습니다. 몇달만에 전 마을로 돌아왔으나 텅빈 마을엔  
오직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전 도련님만은 꼭 살아  
서 돌아 오시리라 믿으며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아  
침 저녁 주인님께 빌었습니다. 도련님이 무사 하시기  
를, 그리고 하루 빨리 돌아 오시기를 말입니다. 도련  
님, 저의 이 기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십 오년이 걸렸  
습니다. 그 동안 이 텅비었던 마을엔 낫선이들이 찾아  
와 살게 되었지요.”

개가 짖는다.

옛날에 내가 기르던 개처럼 오늘 밤 밝은 저 달을 보고  
개가 짖는 것이다.

“도련님, 올 추석엔 송편을 좀 많이 해야겠지요?”

박 서방이 허연 머리털을 날리며 부엌으로 들어 간다.

“도련님, 도련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이 어디 입니  
까?”

“네, 최전방이요. 휴전선이 있는…….”

휴전선,

무거운 침묵으로 다져져 삼엄 하기만한 휴전선을 생각한  
육중하게 엄습해 오는 적막감 때문에도 그것이 얼마나

다.

무서운 민족 숙명의 암 벽인가를 새삼 느낀다.

침략 도발을 노리는 놈들의 헛된 야망을 잠시 저지하고  
있을 뿐인 이 어설픈 정상을 우리는 평화, 아니, 자유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원폭에 의해 유지되는 오늘날의 이 차가운 평화는 오  
히려 인간의 모욕이라 발 밑에서 귀뚜라미가 한층 목청  
을 가다듬어 노래를 한다.

오랫동안 잊고 살아 온 고향.

이제 나도 이 고향을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찾아  
야 하리라.

오늘도 휴전선을 지키는 오병장은 밝은 저 달을 그리고  
있겠지.

어느샌가 주위엔 달무리가 지는데…….

## 아빠의 얼굴

정 정 미

혜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어머니는 저녁술을 내려놓고 막 잠든 아가의 얼굴을 내려 봅니다. 포근히 잠든 모습 어머니는 아가의 얼굴에서 그리운 사람의 얼굴을 발견합니다.

‘여보,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있우. 맘 편히 먹고 있다가 몸 풀거든 속히

뒤 쫓아 내려와요. 내가 일러준 것만 잘 지켜서 침착히 행동하면 할아버님 이랑 모두 무사히 내려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일랑 말고, 내 우리 아가랑, 당신이 쉼 자리를 마련해 놓으리다.’ 하면서 그 악센 손으로 내 손을 한번 꼬옥 쥐어 주고는 행여 뉘 볼세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커다란 배낭과 짐보따리를 양 손에 들고 지고, 그렇게 조용히 떠나시던 아빠 그래, 그때 아버님은 나의 주름 많은 긴 치맛자락마저 헤치고 솟아 올랐던 내 배를 보시면서, 연방 ‘에구, 쫓쫓 저걸 어찌나 원, 애 날때 봐 줄 사람이라도 있어야지. 이러다간 세상이 망하지, 망해,’ 하시며 연



신 눈물을 닦느라 정신이 없으셨지 그 땐 정말 죽고만 싶  
더니…….

정말 그 때 어머니는 같이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  
고 가만히 저고리 고름만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울지 않으  
려고 무뎠히도 애쓰고 있었읍니다. 마지막 뒷 모습이 어른  
어른 흐릿해지면 얼른 눈물을 닦아 내리곤 했지만 어느새  
또 고여 버린 눈물은 어머니를 조롱이나 하는듯 멈출 줄 몰  
랐읍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중에서도 곧 미소지을 수  
있었읍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는 외롭지 않다는 단지 그  
한개의 이유에서였읍니다. 그녀가 외롭지 않다는 것은  
인자하신 시할아버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만은 아니었읍니  
다. 오로지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불러져 보는 그녀의 커  
다란 배, 아니 그 속의 아가 때문이었읍니다. 그 아가 때  
문에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편을 따라 38선을 넘지 못하고  
늘으신 시할아버지와 남게 됐지만 그래도 아가에게는 사  
랑스럽기만한 그 무엇이 있었읍니다.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 거라. 튼튼히 커지거라 내 몸이  
다 녹아 없어지도록 먹고 뛰놀거라. 그리고 네가 이 세상  
의 빛을 받고 눈부셔 할 때, 우리 남쪽에서 기다리는 아  
빠에게로 가서 예쁜 집 짓고 살자꾸나.

아가야, 오늘 밤 달은 참으로 밝구나 너에게 보여 주고  
픈 새하얀 달이로구나 아니지! 너는 벌써 보고있지? 내  
눈이 보는대로 너도 보고 있지? 앞으로 이와 똑 같은 달  
을 한 번만 더 보면 너는 나에게 너의 그 모습을 보여 줄

거야. 그렇지, 응?

이렇게 어머니는 뱃속의 아가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얘기를 하면 뱃속의 손님은 다정스레 대답해 주고 또 질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그 날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임시로 머무르는 그 초가집 뒤의 산이란 산은 온통 갖가지 색으로 물들어 있고 하늘은 아찔 할 정도로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 하늘을 좁다고 누비는 한 조각의 구름 그 구름은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나 하는 듯이 그리운 남쪽 남쪽으로 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였습니다. 찢어지고 누렇게 바랜 창호자 저쪽에서 아가의 긴장한 울음 소리가 들려 왔겠지요. 기운이 없어 축 늘어진 채 겨우 아기를 옆에 눕히고 드러누워 있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그래도 기쁨이 출렁이는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죽어버리고 뜬 아픔속에서 바닷가의 예쁜 조약돌 같은 고추를 달고 태어난 아가는 어머니의 승리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가! 아가야, 어쩔 인제야 모습을 나타내니 난 얼마나 네 모습이 보고 싶었다구 아주 아빠를 쑥 빼어 닮았구나. 그 코하며 눈매, 아유! 두툼한 입술 까지도 영락 없는 아빠로구나 응? 아빠가 어떻게 생기셨나 보고 싶다고? 나도 아빠가 보고 싶어 하지만 지금은 안돼 내 몸이 이렇게 아프고 또 아빠도 너를 낳고 적어도 백일은 있다가 나와야 한다고 하셨거든. 그래 그래, 얼른얼른 크거라. 그러

면 내가 꼭 너를 아빠에게로 데려다 줄게.

처음으로 맞는 증손자녀석을 얼굴 한 번 만져 봤다가 다리 한 번 만져 보고, 또 손도 한 번 쥐어 보고는 애기가 싫다고 울지나 않을까 얼른 손을 떼시곤 하는 시할아버님을 보면서 어머니는 정말로 온 몸에 휘감기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 상을 치우면서 어머니는 그 때의 조그맣던 아기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그맣던 것이 그 짧은 동안에 이렇게 컸구나. 아기야, 너도 아빠가 보고 싶지, 그래서 얼른 아빠 찾아가자고 이렇게 부쩍 컸구나 나도 아빠가 보고 싶단다. 아빠가 그 큰 손으로 너의 지저귀를 갈아 끼시며 찹찹대는 그 서투른 모습이 보고 싶단다. 아마도 아빠는 너를 보면 기뻐 어쩔줄 몰라 하시겠지. 아기야, 어서 그만 일어나거라. 아빠 찾아 갈 준비를 해야지. 이제 오늘 저녁만 지나면 너는 아빠를 볼 수 있게 되는거야 응 아가야.

잠자던 아가가 꿈틀거립니다. 아마도 잠을 깨려는가 봅니다. 어머니는 얼른 저고리 섶을 제끼고는 그릇에다 어머니의 젖을 짜내었습니다. 어머니의 누르스름한 젖의 그릇의 반쯤 찼을 때 어머니는 거기에다 아빠가 떠나기 전에 어디에선가 구해서 어머니의 손에 쥐어 주었던 그 하얀 가루약을 섞어 넣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하지만 만일을 위해서 이러는 거야 위

힘한 38선을 넘을 때 너의 울음 소리는 물론 기침 소리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 밤만 이 약을 먹고 폭 잠을 자는거야. 네가 그 약의 손아귀에서 풀려나 다시 깨어 났을 때 너는 아빠의 듬직한 팔에 안겨 그리운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그 젓을 잠깐 아기에게 조그만 손가락으로 조금씩 다 먹였습니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아빠가 일러준 대로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시할아버님과 같이 어둠을 기다려 아기를 업고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아기가 젓을 먹고 또 다시 잠들었을 때 어머니는 아가를 포대기로 단단히 업었습니다. 아기를 업는 어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시할아버지와 같이 방문을 나서서 어머니가 신발을 신을 때 시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애, 아가 나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살아야 얼마나 더 살겠니, 조상이 내려준 이 땅을 디켜야디, 설마 아무리 잔악한 공산당이로서니 그래도 이 늙은이를 죽이거야 하겠냐, 니나 아그 다리고 내려 가그라. 나는 갈 기력도 없거니와 우리의 집과 논 밭을 예 놓고 내려가마, 거기서 편히 잘 살드라도 마음이 개운치가 못 할 것 같구먼.”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시할아버지를 쳐다 보았습니다. 무서운 공산당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38선을 어머니 혼자 넘는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할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옆 집 아더씨가 공산당에게 끌려가는 것 보셨디 않아요. 할아버님, 디금 남쪽에서는 아버님, 어마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대리실 거야요. 같이 내려가시디요. 할아버님 예?”

하지만 어머니의 이 말씀은 80평생을 오직 이 할 곳에 서만 지내신 할아버지의 애절한 고향에 대한 사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가 아가를 등에 업고 찬단한 것 몇 가지만 추린 보따리 한 개를 들고 대문을 나설 때 할아버지는 손자 며느리의 등을 토닥거리시며 말씀 하셨습니다.

“아가 몸 조심 하그라 요즘 부쩍 감시하는 것이 심해졌다고 하든디, 덩신 바짝차려야 한다고, 거기서 아범이나 어멈 만나거든 내는 잘 있으니깐 내 걱정일랑 말라고 안심도 시키고 말이여. 보나 마나 이제 금시 38선이 트이긴 트일꺼다. 암, 그렇구말구. 자고로 악이란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망해버리는 것이 정한 이치니건 38선이 트이면 내가 우리 등손 두 녀석을 안고 돌아 다니며 다랑을 해야겠디? 그리고 남으로 내려 갔든 니 서뱅이나 아범, 어멈 모두 다 무사히 여그로 돌아 와서 옛날 같이 오손도손 살아야디. 분명 그 날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꼭 이루어덜 것이니라. 그러니 부디 몸을 잘 간수 하도록 해라.”

목이메어 고개만 끄덕이는 어머니가 이 번에는 온통 호수가 되버린 눈으로 시할아버님을 쳐다 봅니다. 그 눈은

말하고 있었읍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곧 38선이 트이고 말고요. 우리 아가도 아빠가 그랬듯이, 그리고 아빠의 아버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그 아버지가 그랬듯이 여기서 크고 공부해야지요. 할아버님, 제가 돌아 올 동안 몸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셔야 돼요.

어머니는 돌아섰읍니다. 언젠가 사랑하는 남편이 가던 그 언덕 길을 이제는 어머니가 또 다시 가게 되었읍니다. 두 발자욱 딛고 뒤 돌아서 보고 세 발자욱 딛고 또 돌아서보고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여전히 차가운 바람에 나부끼는 할아버지의 하얀수염을, 흰 옷자락을 바라 보았읍니다. 어둠과 할아버지의 옷자락이 대조 되어 더욱 짙고 짙고 할아버님의 웃은 더욱 희게 보였읍니다.

이제 내가 다시 돌아 올 동안 저 웃을 누가 빨아드리나. 세상 물정에 관심이 없던 어머니도 이 때만은 세상 돌아가는 것에 짜증이 났읍니다. 어찌다가 자기 나라 자기 땅에서 이렇게 슬픈 이별을 겪어야만 하게 되었을까요? 누가 이제 막 갓 스물인 어머니의 인생을 이렇게 슬프게 하였을까요? 언덕길을 다 올라 서서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직도 싸릿문에 기대어 지켜 보고 계신 시할아버님을 되돌아 보았읍니다. 38선을 넘기 위해 일부러 약 다섯달 전에 38선 부근의 이 집으로 이사했지만 여기서 어머니는 남편과의 이별을 겪었고 또 어머니의 생명만큼이나 소중한 아가를 얻었고. 또 이제는 자애로우시던 시할아버님과의

이별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태어나서 가장 큰 일들을 모두 이젠 어둠에 파묻혀 잘 보이지도 않는 저 집에서 겪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갈 방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없이 어머니는 어둠 속을 마구 달렸습니다. 그 전날 남편이 일러주던 그 길을 마구 뛰었습니다. 점점 심장의 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다리가 자꾸 후들거립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돼, 우리 아가에게 얼른 아빠를 보여줘야지 얼른 아빠를, 아빠를.

드디어 38선인가 봅니다. 하얗게 켜진 등불 아래 시커멓게 쳐진 철조망은 어머니에게 위압감을 주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지러진 머리를 바로 만지고 아기를 다시 잘 업었습니다.

여기가 고비야, 여기가 여기만 지나면 우리 아가는 아빠를 볼 수 있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가시망을 쳐 놓고 우리 아가와 아빠를 떼놓아도 우리 아가는 아빠의 얼굴을 보아야만 해. 암, 우리 아가가 어떤 아가인데.

숨을 크게 들이쉬. 어머니는 부러 째깍한 숲 속을 택해 한발 한발 나아갔습니다. 얼마만큼이나 지났을까, 어머니는 어둠속을 더듬던 손이 무엇에 의해선지 찢어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철조망! 그래, 바로 이것이 38선이로구나 38선! 이제 이것만 넘으면, 이것만, 이것만.

그 때였습니다.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며 “누구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탕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까막까막 정신을 잃어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아,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아! 보인다. 우리 아가 아빠가 저기 있구나 있어요. 여보! 여보! 여기 우리 아가가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하던 아가예요. 안아 주세요. 네, 그렇게 불 비빔도 해주시고, 아, 우리 아가가 언제야 아빠를 보았군요. 그리운 아빠의 얼굴을, …….

어머니가 깨어난 곳은 국군 야전 병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 뜨자마자 지켜 보고 있던 군의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가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아가.”

“의사가 말했습니다.

“부인, 아기가 부인을 구했습니다. 괴뢰군의 총이 아기의 등에 맞은 덕분에 비록 아기는 먼저 숨을 거두긴 했지만, 부인은 아무 이상 없이 건강 하십니다. 아기야 또 금방 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상심 하실것 없습니다. 부인.”

그러나 어머니는 의사가 걱정한 만큼 그렇게 상심치 않았습니다. 울지도 앓았습니다.

우리 아가는 아빠의 얼굴을 보았지. 내가 봤는 걸. 분명히 우리 아가는 아빠 품에 안겨 있었어. 아빠가 불 비빔을 해 주니까 막 꿈지락 거리는데, 아무리 가시망 아닌



콘크리트 벽이라도 우리 아가를 막진 못했지. 아빠의 얼굴을 보려는 우리 아가를 말이야.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의 감은 눈에는 아빠의 품에 안겨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있는 아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온 가족이 모두 모여 그리운 고향에서 오붓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정겨운 광경이 너무도 선명히 떠오르고 있었읍니다.

## 할아버지의 유서

부 속 회

제주여자고등학교 1학년



“재형아…….”

좀처럼 열리지 않는 할아버지의 알팍한 입술에서 떨리며 새어 나온 이 소리는 어느덧 한숨이 되어 있었다. 이제 민혁의 귀에도 익어버린 이 이름은 언젠가 할아버지의 조그만 चे 속에 들어 있었던 누런 사진 속 소년의 이름이란 것도 짐작이 갔다. 할아버지는 초롱초롱 빛나며 의아해 하는 듯한 민혁이 눈동자를 문득 내려다 보더니,

“너석도 자랐으면 지금쯤은 나도 이런 손자를 보았겠지.” 하고는 또 한 번 한숨을 내쉬는 것이었다. 민혁은 밤 공기에 싸늘해진 심들이 몹시 차가웠지만 잠자코 있었다. 가끔씩 할아버지의 무언을 생각하는 듯한 눈가로 슬며시 웃음이 번져 오는 것이 좋았기 때문이다. 달 빛에 반짝이는 커다란 항아리 위로 나뭇잎에서 떨어졌는지 또로록 물방울이 흘러 내렸다. 불현듯 큰 사실을 생각해 냈는지 잠잠했던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더니 괴로운 듯 민혁을

보며 말하는 것이었다.

“민혁이도 김치 좋아 하지? 그리고 엄마가 먹기 좋게 찢어준 새빨간 고추 가루가 더덕더덕 붙은 김치를 호호 입을 다시면서 먹겠지?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흐뭇할 거야. 김치독에서 한 포기 김치를 꺼내는 엄마의 손은 즐거운 것이란다.”

말 끝을 흐리는 할아버지의 가느다란 두 눈은 분명 눈물로 반짝이고 있었다.

“애야 들어가거라. 추운데…….”

황급히 일어 서서 행랑방으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축 처진 어깨 밑으로 허름한 옷자락이 나풀거렸다.

학교가 파하자 민혁은 여느 때처럼 할아버지의 가게로 향했다. 아니, 가게랄 것도 없었다. 병원 옆 골목에 기다란 진열장을 바싹 붙여 놓고는 할아버지는 등근 의자에 언제나 팔을 끼고 앉아 있었다. 진열장 안에는 만년필, 지갑, 안경 같은 것들이 있었으나 손님은 좀처럼 드물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보이는 골목 어귀에 들어 서자 민혁은 달려가며 외쳤다. 할아버지는 반가운 듯이 얼굴 전체에 웃음을 흘리며 민혁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생각난듯이 잠시 옷을 뒤적거리더니 조그만 신문지 봉치를 건네 주었다. 뽁뽁 말아 싼 신문지 안에는 또 한점의 비니루로 싸진 두 개의 사탕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체온으로 녹

아 끈적끈적해진 사탕을 맛있게 먹는 민혁을 내려다 보며 할아버지는 또 한번 얽은 미소를 지었다.

얼굴의 굵은 주름이 무엇을 말해 주는 듯한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본 일이 없는 할아버지였다. 말을 하는 법도 없었다. 이 할아버지가 민혁이네 행랑방을 빌려 살게 된 것은 1년 전서부터였을 게다. 아침 일찌기 나가서 언제나 늦은 저녁에야 돌아왔으므로 민혁의 부모님과도 도통 말을 할 기회도 없었다. 밤이면 언제나 버드나무 맞은 편의 섬들에 앉아 먼 시선을 하늘에 쫓고 있는 할아버지를 민혁은 늘 보아 왔다. 웬지 이 말이 없는 할아버지에게 마음이 쓸린 민혁은 할아버지 혼자 섬들에 앉아 있노라면 언제나 그 옆 자리를 차지하기가 일쑤였다. 할아버지도 민혁이를 좋아 하였다. 그다지 말을 걸지도 않았지만 할아버지의 눈동자, 동네 사람들에게는 굳게 닫혀진 그 알 수 없는 눈동자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빛이 민혁이를 대할 때만은 어느 정도 해소되어 있었고 언제나 그 눈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눈이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대답 대신 고개를 든 할아버지를 보며 민혁은 말했다.

“할아버진 왜 손님도 없는데 여길 언제나 지키고 앉았어요?”

“이 복잡한 거리 속에서 바쁜 인파를 바라보며 저 뻑뻑 거리는 자동차를 보고 있노라면 잠시나마 어떤 생각을 잊게 되거든. 난 바빠지고 싶어. 무슨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딴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일을 하고 싶단다.”

민혁은 무슨 말인지 확실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짐작이 갔다. 하지만 분주한 거리의 골목 귀퉁이에 자리 잡고 앉은 할아버지의 누추한 물결은 확실히 초라해 보였고 더 없이 적적해 보였다.

가없는 할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발길에 채이는 돌맹이들을 바라 보며 민혁은 중얼거렸다.

×

×

민혁은 막 할아버지의 가게로 향하는 거리의 귀퉁이를 돌고 있었다. 그때 선뜻 눈에 들어 온 커다란 진열장 안의 조그만 사진틀, 초록테가 어울리게 둘러져 무척 마음에 드는 그 사진틀을 본 순간 어떤 생각이 퍼뜩 민혁의 머리 속을 스치는 것이었다.

방문을 박차고 허둥지둥 방으로 들어선 민혁은 얼마나 기쁜지 몰랐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 둔 때 묻은 돈 지갑을 들고 민혁은 아까 그 사진틀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그 사진을 넣으면 꼭 맞을 거야.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하실까.”

그 사진틀을 사고 나자 민혁은 급방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가쁜 숨을 몰아 쉬며 골목 어귀로 막 들어선 순간, 민혁의 얼굴에는 금새 실망의 빛이 가득 떠 올랐다. 꼭 닫혀진 덧문 위로 덩그렁이 누린 구리 통쇠가 채워져 있

있던 까닭이다. 민혁은 두 세 번 진열장 주위를 맴돌다가  
“어디 가셨을까.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며 사진들을 또 한번 바라 보더니 터벅터벅 걸기 시작  
했다.

빠끔히 열린 대문 틈으로 뒷마루 아래 놓인 할아버지의  
하얀 고무신이 보이자 민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할  
아버진 병이 난 것 같았다. 조심스레 방문을 열고는 사진  
들을 할아버지 머리 밑에 놓아 두었다. 조그만 소리로 할  
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실눈을 뜬 할아버지를 보며 씩웃  
웃어 보이고 민혁은 밖으로 뛰어 나왔다. 즐거웠다. 그렇  
게 즐거울 수가 없었다. 민혁은 한숨에 집 뒷쪽의 빈터에  
다다랐다. 조금 경사진 그 곳에는 나무들도 많았고 땅 위  
에는 죽 잔디가 깔려 있었다. 민혁은 마구 뒹굴었다. 뒹  
굴면서 한웅큼 잔디를 쥐어 뽀고 하늘을 향해 날리면 또  
그것은 민혁의 얼굴 위로 기분 좋게 흩어지곤 했다. 제법  
어두워져서야 민혁은 웃을 털고 일어섰다. 빼그덕 대문을  
열고 들어선 민혁의 시선은 뒷마루에 앉아 있던 할아버지  
의 시선과 딱 마주쳤다. 할아버지는 몹시 힘이 없는 것 같  
았는데 또 매우 즐거운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곁에 앉은  
민혁은 자기가 한없이 자랑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할  
아버지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본 적은 이제까지 한 번도 없  
었던 것이다. 방문 틈으로 들여다 보니 그 누런 사진은 사  
진들 속에 곱게 끼워져 베개 옆에 놓여 있었다. 또 한 번

할아버지와 민혁의 시선이 마주치자 민혁도 할아버지도 모두 빙그레 웃었다.

비가 몹시 세차게 내렸다. 비가 너무 내렸기 때문에 민혁은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따분하게 뒷마루에 앉아 비가 떨어지는 것만 구경하고 있던 차에 행랑방 쪽에서 민혁의 어머니가 몹시 창백한 얼굴을 하고 오는 것이 보였다. 민혁의 어머니는 민혁을 본체도<sup>3</sup> 않고 급하게 건너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어머니의 겁 먹은 듯한 목소리가 민혁의 귓전을 때렸다.

“여보, 여보. 저 행랑방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민혁은 정신이 아찔했다. 뛰어나가 할아버지의 방문을 열려고 한 순간 뒤 따라 나온 아버지의 억센 손에 붙잡히고 말았다.

“봐요, 놓으란 말이에요, 할아버질 봐야 해요, 봐야 해요!”

울음을 터뜨리는 민혁의 울음도 갑자기 부산해진 사람들의 거동으로 점점 애처로와만 갔다.

찬 땅 속에 할아버지는 묻혔다. 죽을 때까지 꼭 쥐고 있었던 사진틀도 함께. 동네 사람들은 몇마디 동정의 말만을 던졌을 뿐, 할아버지의 죽음을 크게 애석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지 민혁 혼자만이 할아버지 냄새가 그리워 방문을 열어 보고는 독한 소독내에 실망하여 눈물을

글썩이곤 할 뿐이었다.

행랑방을 치우는 어머니의 빗질로 밖으로 툭 튀어나온 쪽지를 민혁은 무심코 주워 펴 보았다. 할아버지 글씨였다.

민혁아.

병이 점점 더 도져 도져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구나. 네가 준 사진들은 정말 고마왔다. 초록 사진들 속의 재형이를 보고 있노라면 난 옛 날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어. 초록 사진들이 초록 풀 즐기로 둔갑을 하는 거야. 재형이가 꼭 지금의 민혁이만큼 할 때 난 재형일 즐겁게 해 주려고 마른 풀 즐기를 모아 엮어서 재형의 목에 걸어 주곤 했지. 그럼 재형인 활짝 웃으면서 좋아라고 뛰어 다녔고 난 박수를 쳐주었어. 그런데 지금의 재형인 웃질 않았거든. 둥근 풀 즐기를 목에 걸어 주었는데도, 박수까지 쳐 주었는데도, 녀석은 한번도 날 보며 웃어 주질 않았어. 무정한 녀석……. 그 착각에서 깨어나 나를 의식하면 또 다시 쓰디쓴 웃음과 한숨만이 남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노릇이었지. 재형이 그 녀석 생각을 하고 있노라면 어느 정도 즐거워졌지. 그러나 그것에서 깨어나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마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우리 죄없는 재형이가 왜 죽어야만 했던지……. 재형이 그 늙은 어미 없이 자라긴 했어도 꽤나 영리했었지. 난 그 녀석 재롱을 보며 근심을 잊



고 즐거워 하고 또 함께 어울려서 어린 아이 처럼 놀기도 했었어. 사람들은 우리 부자를 무척 칭찬하고 또 부러워했단다. 그런데 그게……. 민혁이 너도 잘 알지? 그때 6·25가 터져 사람들은 모두 피난을 가기 시작했었다. 나도 부랴부랴 짐을 챙기기 시작했지. 짐을 챙기고 나서 금방 떠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적기가 요란하게 날더니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어. 온 동네가 비명 소리와 총 소리 폭탄 소리로 요란 하더니 잠시후 잠잠해지더구나. 난 재형이가 내 곁에 없었기 때문에 더듬더듬 재형이를 찾았어. 그런데, 그리 찾던 재형이는 처참하게 장독 옆에 쓰러져 있었단다. 깨어진 항아리 조각이 이마에 박혀 있었고 그 귀엽던 얼굴 위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어. 그때 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 항아리에서 흘러 나온 김치 국물과 피가 뒤엉켜 온 몸이 젖은 재형이를 끌어안고 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재형이가 여름이면 즐겨 먹던 열무김치는 깨어진 항아리 위로 이리 저리 흩어져 있었고.

난 버드나무 아래 조그만 무덤을 만들었단다. 그 무덤 곁에서 떠나기가 싫었어. 재형이가, 내가 나무 토막을 잘라 만들어 준 자동차를 가지고 버드나무 아래서 놀았던 그 재형이가 지금이라도 부시시 흙을 털며 일어설 것만 같더구나. 억지로 동네 사람들에게 이끌려 내려 오긴 했지만 내가 재형이 없이 무엇을 보며 살아 가란 말이냐.

전쟁이 끝난 후 재형이 무덤을 찾아 보고 싶었지만…….

그 원수의 휴전선은 우리 마을까지 북으로 끌어다 놓고 있었어. 그 조그만 무덤, 이 손으로 잘 손질 해 주고 싶다는 조금이라도 재형이와 가까이 가고 싶다는……. 아마도 그 무덤은 야비한 손들에 의해 자취도 없어졌겠지? 그 어린 혼만이 북녘 땅을 떠돌아 다닐 테고…….

민혁아.

이 할아버진 지금 영영 눈을 감아야 하겠지만 민혁이 너만큼은 눈을 똑바로 떠라. 앞으로 절대 이런 비극을 맛보아선 안돼. 이 땅에 결코 붉은 물을 들일 수는 없어. 저 백두산 끝까지 초록 강산으로 빛나야 하는 거야. 그래야 거기에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민혁아.

너의 빛나는 그 눈동자로 너의 그 힘찬 발 걸음으로 저 휴전선을 허물어 버려라. 그래야 우리 재형의 외로운 혼이나마 그 곳을 넘어 이 할아버지 곁으로 올 수 있지 않겠니.

할아버지의 글은 이것으로 끝이 나 있었다. 숨을 거두어 가며 쓴 이것을 꼭 쥐 민혁은 무언가 벅찬 감정으로 밖으로 뛰어 나갔다. 북받쳐 오르는 흥분을 감당 할 수가 없었는지 잠시 후 자신을 안정시키며 대문으로 들어서서 민혁의 눈은 무엇으로인지 빛나고 있었다.

×

×

—방 있음—

무심코 대문에 붙여진 이 종이를 북 젓으면서 민혁은

증얼거리는 것이었다.

“잘 왔겠어요. 할아버지.”



## 심 사 평

김 요 섭(아동문학가)

통일에 관한 고등학교의 글을 살펴 보면 그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민족의 숙원인 남북통일을 성취하는데 있어서의 과제와 우리의 자세를 말한 논리적인 글이다.

또 한가지는 남북 분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일이 겪은 수난을 그림으로써 남북 통일의 절실성을 호소한 정적인 글이다.

남북통일 문제를 논리를 따라 차근차근하게 생각하는 일과 한편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이산 가족들이 겪은 슬픔을 다시 한번 극명하게 확인함으로써 통일의 절실성을 호소하는 일 다 함께 필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이것을 한 투고 작품으로써 단 한편인 우수작을 가려내야 할 때는 심사자는 아주 난처해진다. 그러나 문장을 통한 표현력 사색의 훈련도 등을 쉬이 알 수 있다.

최우수작을 매긴 박 신옥의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은 문장력 및 사색력이 이번 투고자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 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가 내세운 통일 방안을 가장 잘 소화하고 있

었다.

사색적이며 논리적인 이 글이 설득력까지 지니게 된 것은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충분히 소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우수작의 이영국 (제물포고 1년)이 쓴 “대성동에서의 자각”은 문장력은 아직 미숙하다. 그러나 남의 생각을 흉내내지 않고 대성동에서 보고 느낀 것을 꾸김살 없이 진실로 들어낸 점이 좋았다.

엄경화 (동덕여고 1년)의 “작은 애국심”은 이야기꺼리를 스포츠에서 가지고 왔는데 훌륭하게 통일을 위한 알뜰한 마음이 들어난 글이 되었다.

운동 선수가 허리에 상처를 입으면 제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례를 들어서 분단된 한국을 허리가 상처난 선수로 비유한 것은 재치가 있다.

최무열 (부산배정고 1년) “할머니의 선물”은 실제 있는 인물인지 아니면 픽션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단으로 말미암아 수난을 겪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 속에 새겨 두는 것도 통일기반 조성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부 소설 ◇

<우수작>

백마(白馬)와 흑마(黑馬) .....김 경 수





## 백마(白馬)와 흑마(黑馬)

김 경 수

제 6828부대 3대대 의무대

### < I >

「일이 곤란하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무래도 애는 군대엘 가야 되나 봐요.」

「이 애는 그게 무슨 말이야.」

「요새는 사정이 달라졌어요.」

「사정이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냐?」

「옛날과 달라졌어요. 몇 번은 쉽게 됐는데——태량〈太亮〉이 정도면 누구나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이 녀석이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 하는거냐, 글썄, 지금까지 잘 되어 온 일이 이제 와서 안 된다니 말이 되는 소리냐.」

할아버지께서는 마침내 화를 내셨다.

「……………」

아버지는 잠자코 계셨다.

「안 되겠다. 내가 가 봐야지.」

「아버님, 가지지 않으신게 좋을 거예요. 서정쇄신이라는 게 너무 드셔서 그네들은 꾀잡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말리셨다.

「서정쇄신도 좋으나 씨〈種〉를 말려서야 되겠느냐.」

「군대엘 간다고 다 죽는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신경질적으로 내뱉으셨다.

「누구한테 말버릇이나, 이놈아! 네 형들도, 네 동생들도 모두 군대에 가서 죽었다. 너도 군대에서 병신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느냐?」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는 훨씬 쓸쓸해 보이셨다. 언제나 강하신 할아버지가 아니셨던가? 말로만 들어왔던 백부들과 숙부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할아버지께서는 태연하셨는데—— 손자인 내 일에 대해서는 여간 신경을 곤두세우시는게 아니셨다.

「……………」

아버지는 그만 참견하시고는 방으로 들어 가 버리시는 것이었다.

「아가, 두루마기를 내오너라.」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어머니께 할아버지는 명령하셨다.

「네, 아버님.」

할아버지는 의관을 정제하시고 나서 두루마기를 날리시며 종종히 밖으로 사라지셨다. 그 걸음걸이는 대단한 걸

의로 가득차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러한 할아버지의 모습  
이 누구 때문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사건부터 꺼내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대 여섯 살 무렵이었다고 기억된다.  
그 날은 별나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날이었다. 골목에서 사  
금파리로 제삿놀이를 하던 나와 우리 집 행랑 아범의 들  
째와 이웃집 성진이는 대면에 심심해졌다.

길고 지루한 낮은 매혹적인 유혹이었다. 우리들은 차츰  
골목을 벗어나고 마을을 지나서 동구 밖으로 나갔다. 태양  
은 밝고 따뜻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두렵게 하는 것은 아  
무 것도 없었다. 오히려 새로운 풍물〈風物〉들——개울 가  
의 염소며 분지의 보리밭 위에서 지저귀는 종달새랑 이  
꽃 저 꽃 위를 분주히 날아 다니는 예쁜 나비들은 우리들  
을 끝없이 유혹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간단히 그것들에  
빠져 버렸다. 그리고, 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다.

우리들은 신나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서 멀리멀리 나아  
갔다. 거기서, 우리들은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이상한 성  
〈城〉을 발견하였다. 고풍스런 담벽으로 둘러 싸인 높다란  
성벽 안에는 몇 채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커다란 기와집들  
이 있었다. 우리들은 마치 난쟁이들이 거인의 나라에 온  
것처럼 쉼쉼하게 성문을 지나서 그 안으로 들어 갔는데,  
그 많은 기와집들 속에는 진기한 목상이랑 금상이며 벽화  
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게 있었다. 우리들은 어두움으로  
그 호기심나는 것들을 구별 할 수 없을 지경이 될 때까지

이리 끼웃 저리 끼웃,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구경하기에 정신을 온통 빼앗겨 버렸다. 설혹 우리들이 하루의 시간에 대한 뚜렷한 개념이 섰던 나이였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불가피한 무절제였다. 꿈 같은 기와집이랑 수 많은 불상이며 절문 좌우에 늘어선 사천왕상이며 천장의 용상은 어린이들 특유의 탐닉성과 벌써 운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다. 왜냐하면 난생 처음으로 본 그것들은 우리들의 상상력에 걸잡을 수 없는 불을 질러 버렸기 때문이었다. 우리들은 마치 자신들이 천장의 용을 타고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또는 눈을 부릅뜨고 한편으로는 손에 삼지창을 들고서 악마를 때려 잡는 사천왕상이나 되는 것 같은 즐거운 환상에 빠져 버렸으니까. 해서, 우리들이 그 환상에서 깨어 났을 때는 이미 어둠의 장막이 성을 에워싸버린 뒤였다.

우리들은 갑자기 밀도 끝도 없는 외로움에 시달려 한꺼번에 울기 시작하였다. 어둠이 우리들로 하여금 본능적인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 모를 일이었다. 하여튼, 우리들은 우리들 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인식하자 매우 시끄럽게 울어댔던 모양이었다. 그러자, 늙은 중이 와서 우리들을 아늑한 방으로 데리고 갔었다.

이튿날, 우리들은 늙은 중에 의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가족들은 할아버지까지 동원되어 찾아 헤맸다. 그런 속도 모르고 신나는 기분으로

개선 장군처럼 의기 양양해서 돌아왔던 것이었다. 마름의 둘째는 그 어린 것이 어찌나 두들겨 맞았던지 지금도 그는 신경통을 앓고 있었다. 나는 어느 편이나 하면 감금되었다. 다락방에 가두어진 채 버려졌다. 할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나를 면회할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버려진 채 다락방에서 굶주림과 무서운 고독에 시달려 마침내 쓰러지고 말았다. 꼭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나중에 들어 알게 된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몰래 내가 먹을 것을 넣어 주시려다 할아버지한테 들켜 친절로 쫓겨 나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이다.

자라면서 나는 거의 할아버지의 품을 떠나 본 적이 없었다. 언제나 할아버지의 큼직한 손을 어루만지며 까칠까칠한 수염의 감촉이 생생히 살아 있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무릎에 나를 앉혀 놓고서 백부들과 숙부들의 무공에 대해 자랑스럽게 들려 주시곤 하였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면 우리 한(韓)씨 가문의 비극을 적당히 미화시킨 것에 불과하였던 것이다. 백부 두 분은 강제 징용되어 북해도(北海島) 탄광으로 끌려가셨는데, 탄갱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꼬해야(문어방)라고 하는 조그마한 방에서 일본인 곤장 두목에 의해 타살되었다는 것이다. 숙부는 세 분 계셨는데, 위로 두 분은 대동아전쟁에 학병으로 끌려가 전사하시고, 맨 마지막 숙부와 아버지는 6·25 동란에 참전하셔서 숙부는 돌아 가시고, 아버지는 부상으로 왼팔을 잃으셨다.

내가 스물 한 살이 될 때까지 우리 집에는 근심 걱정이 없었다. 남자애를 얻기 위해 태어날 수 밖에 없었던 누이들도 모두 시집가서 잘 사는 것이었다.

아이를 다산하신 어머니마저도 건강하시고 아버지랑 할아버지는 감기도 걸리시지 않으시는 것이었다. 다만 아버지께서 절단된 팔의 신경통으로 이맛살을 찌푸리시는 때가 가끔 있으나 걱정 할게 못되었다. 그런데, 내가 스물 한 살이 되어 질병검사를 받게 되자, 우리집은 이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태양이는 군대에 보낼 수 없다.」

우리집의 지상 명제였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누이들도,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군대에 가는 것은 그대로 인생의 종말이나 오는 것처럼 겁을 먹고 있었다.

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병무청 직원이며 신경 담당 군의를 뺨질나게 만나시곤 하셨다. 그게 효과가 있어서 나는 세 번이나 질병 검사 통지서를 받고서도 입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만한 댓가는 불가피하였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음으로 양으로 들어간 비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거의 기를 펴고 나다닐 수 없을 뿐더러 대학까지 버젓이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하고 있었다. 병역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 될 것 같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만 빠져 나오면 나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바로 그 마지막 마무리 작업차 외출

하고 돌아 오신 아버지의 보고는 암담한 것이었다. 세상은 이전과는 판이하게 변했다. 물정도, 인심도, 법도 변하였다. 적당히 하면 되는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 아버지의 영향력이라면 까짓 병역 문제쯤 해결 할 수 있을텐데—.

나는 불안해서 뒷마루에 그렇게 웅하니 서 있을 수 없었다. 어떤 결의에 차서 나가신 할아버지도 이제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애야, 어떻게 될 것 같니?」

어머니께서 미닫이를 소리 없이 열고 들어 오셔서 내 곁에 앉으시며 물으셨다.

「아무래도 군대에 가야 하나 봐요.」

「애는, 행여라도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어머니는 그게 무슨 큰일 날 소리냐고 하시는 것이었다. 내 두 손을 가만히 붙잡으신 어머니의 손은 맥박이 유난히 팔딱거렸다.

「땃땃이 살고 싶어요. 기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병역을 필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아가,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해결이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위로하셨다.

「……………」

「몸이 어디 편찮으냐?」

「괜찮아요, 어머니님. 저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라.」

어머니는 조용히 나가셨다. 그러자, 텅 빈 방은 쓸쓸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대고서 눈을 감아 버렸다. 그리고 나서, 내게 붙어 버린 버릇대로 언제까지나 기다릴 양으로 마냥 그렇게 누워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할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놈의 자식! 이제 와서 펄펄 잡아떼——」

할아버지는 외출복을 벗을려 하지도 아니 하신 채 동원(動員)계장인가 뭔가 하는 그 이(李)씨라는 사람의 옥부터 하시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씨라는 동원계장은 그동안 내 병역을 연기시키므로써 신검 군의와 함께 할아버지로부터 특특한 재미를 보아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넘으면 나는 영원히 군인과는 인연이 멀천만, 그는 요사이느 조그마한 비위만 있어도 목아지가 잘뚝잘뚝 잘려 나간다고 딱 잡아떼더라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가 「이 사람아, 어찌 그렇게 무정하게 거절할 수 있는가?」하니까 그 동원계장이라는 사람 왈, 「그만 해주었으면 됐지, 이제 제 목아지까지 내 놓으시라는 겁니까?」하고 대들더라는 것이다. 성미가 팔팔하신 할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하여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놓았으나 그는 막무가내 안된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영향력으로도 별 수 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더욱 절망적인 정보를 얻어 오셨다. 나같이



뚜렷한 이유없이 징집이 연기되고 있는 청년들을 기피자들과 함께 모조리 잡아 들인다는 것이었다.

「이게 확실한 모양이야. 일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할아버지도 갑갑하신듯 가족들의 의견까지 물어 보셨다.

「아버님, 요새 군대는 전쟁도 하지 않고 해서 한번 눈 딱 감고 보내는게 좋겠어요.」

아버지가 조심스레 의견을 내놓으셨다.

「그건 안된다.」

할아버지는 완강하셨다.

「몇 년만 숨어 지내도록 해라, 대흥사(大興寺) 서인(瑞仁) 스님께 암자라도 얻어 보자.」

한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에 할아버지께서 단안을 내리셨다. 이 결론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만 못마땅하신지 입맛을 다셨다. 나는 어느 편이냐면, 모든게 귀찮을 따름이었다. 도대체 그 놈의 병역 문제는 내가 이십대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괴롭히는 제일의 문제거리였다. 사춘기의 입문과 함께 시작되는 섹스 호르몬의 고문보다 더 지독한 것이었다. 나는 그 붉은 아귀를 한시라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굉장히 신경이 쓰였다. 나는 신경 쇠약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 < II >

「애야, 몸이 갈수록 안 좋아 보인다.」

열흘에 한번씩 들리시는 어머니께서 여간 걱정이 아니셨다.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를 안심시키기는 했으나 속으로는 쓰디썼다. 도 대체가 멀쩡한 청년이 이런 절간의 조그마한 암자에서 지내는 것 자체가 이미 몸을 보타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수도를 하기 위해 입산하였다가 무슨 공부를 작심하고 기어 들어 왔다면 모르되,

서인스님께서 가끔 찾아 주셨지만, 적적함을 달랠 길 없었다. 부처님과는 거리가 먼데다가 스님의 하시는 말씀이란 게 기운이 쪽 빠진 젊은이에게나 맞을런지 너무 고상해서 오히려 거리감만 깊어질 따름이었다. 나는 되려 스님께서 찾아 오셔서 또 그 말씀이나 하시지 않으실까, 신경이 쓰여질 지경이 되었다. 해서, 날씨가 고르지 않는 날만 빼고, 은자암(隱子庵)을 벗어나 계곡이나 산정에 명칭하니 앉아 있는 버릇이 생겨 버렸다.

「태량이! 참 오랜 만일쎄.」

이웃집 성진이였다.

처음에는 어찌나 놀랐는지—— 정신을 가다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괴괴한 산간 절 속은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

보기가 힘들었다. 더구나, 푸른 모자, 잘 다려입은 제복의 수상쩍은 사내라, 나는 군복을 입고 찾아온 성진을 나를 잡으러 온 관가 사람으로 지레 짐작하고서 겁부터 먹었던 것이다.

「어——성진이 아니야?」

나는 너무도 반가워서 와락 그를 껴안았다. 그도 동시에 나를 껴안았다. 나는 가슴에 부담을 느끼고 슬그머니 그를 떠밀었다. 그는 너무도 힘이 셸고 나는 약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강해졌어, 성진이.」

나는 부럽게 그를 쳐다 보았다. 까맣게 탄 얼굴 위에 두 점 광채가 번쩍거렸다.

「그렇게 보여?」

그는 히죽히죽 웃었다. 기분이 좋은 모양이었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그와 내가 싸움을 하게 되면 언제나 내가 이겼다. 그는 몸이 약했고 나는 강한 현실의 표현일 따름이었다.

성진은 몹시 심심해 하는 나를 위해서 귀중한 휴가의 열흘을 쪼개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훌쩍 귀대해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자식처럼 못 견뎠다. 적적하고 심심한 것만이 아니었다. 한껏 즐거웠던 성진과의 열흘은 나에게 못 견뎌하는 무엇을 짐으로 남겨 주었다. 성진은 그의 성격대로 입대를 권고하지는 않았지만 내 장래를 꼼꼼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보초를 서면서 생각해 본건데, 내가 선 그곳에 아마도 내 동생들이 또 내 아들들이 보초를 설 것이라는 느낌이었네. 그건 불가사의한 운명 같더군.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개인적인 불행은 불가피해.」

성진의 몸으로 부대간 느낌을 들려준 애기가 아직도 생생히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전쟁에 자식들을 잃은 할아버지의 부상당한 아버지의 고통이 불가피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이미 민족적인 비극 앞에서 있었어야 할 당연한 운명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아——」

나는 서인스님께 알리지도 않고, 내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남겨 두고서 귀신도 모르게 은자암을 떠났다.

나는 입대(入隊)하였다. 훈련은 무자비하고 가혹했다. 그것은 개성을 무시하고 짐승처럼 길들이는 작업이었다. 철(鐵)의 실로서 가다가닥 꼬아 만든 것 같은 근육의 소지자인 조교는 외치는 것이었다.

「너희들은 개(犬)다. 국가에서 너희들을 잘 먹여 주고 잘 입혀 주고, 잘 재워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전쟁이 터지면 너희들의 목아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교는 야비하고 무지막지했다. 그는 그가 주장한 대로 훈련병들을 마치 개처럼 훈련시켰다.

「더는 못하겠소.」

마침내 덩치가 좋게 생긴 한 병사가 버티었다.

「좋아, 너는 이리 나와.」

조교는 부드럽게 그를 지목했다. 그는 긴장을 풀고서 조교 앞으로 나갔다.

「이 새끼！」

조교는 옥지거리와 동시에 마치 수달(水獺)이 물고기를 쟁싸게 잡아 버리듯 그를 낚아 채더니 겨드랑이에 목을 조이고서는 군화로 쏘인트를 까기 시작하였다.

「깨갱 깨갱！」

훈련병은 진짜 개처럼 꺽꺽거리며 나동그라졌다.

「와하하하！」

모두 폭소를 터뜨렸다.

그런 일이 있는 뒤로 우스개 소리를 잘하고 참을성이 없는 정섭(正涉)이가 「똥개군」하고 소리 질러 버렸다. 어느새 유흥(有興) 훈련병은 <똥개>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군사 기초 훈련이 다 끝났을 때, 조교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똥개>를 <사냥개>로 정정해 주었다. 우리들이 <똥개> 쯤 된다면 그는 <사냥개>에 해당되었다. 우리들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열렬하게 박수를 쳤다.

<사냥개>를 비롯해서 우리들은 덤프트럭에 실리어 어디론가 떠났다. 아무도 우리가 어느 전선으로 가는지 알고 있는 신병은 없었다. 포장되지 않는 국도를 달리는 덤프트럭의 대열은 마치 도로 그 자체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덤프트럭은 우리들을 끝없이 싣고 갈 것 같았으나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갔다.

〈사냥개〉와 나는 다시 기차를 갈아 타고 또 다시 덤프트  
터에 실리어 마지막 신교대까지 왔다. 하늘과 땅이 맞닿  
아 공간을 흑색 진공으로 만들어 버렸다. 밤은 지척을 분  
간할 수 없이 어두웠고, 등불은 등화 관계되어 찾아 볼 수  
없었다.

「여기가 마지막 신교대야. 모두 내려!」

우리들은 명령에 의해 더듬더듬 내렸다. 군인에게 영일  
이 있을리 없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그  
고된 훈련이 끝나면 그것으로 군대 생활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  
각이었다. 신교대에 도착하자마자, 조교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 고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군대를 병(兵)으로 다  
녀 온 사람이면 짬밥의 수로 결정되는 고참이야말로 얼마  
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알고 있다. 우리들도 시나브로 고  
참의 위력을 알기 시작하였다.

「이 X같은 새끼들! 군기가 엉망이야.」

그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찾아 냈는지 대열에서  
벗어난 신병을 하나 잡아내 여지없이 쪼인트를 까버리는  
것이였다. 그가 쪼인트를 당하고 나서 우리들 곁 많은 신  
병들은 별수없이 낮은 포복으로 신교대의 연병장을 기지  
않을 수 없었다.

「임마, 빨리 기어!」

고참들은 레이저 광선처럼 어둠 속에서 뒤떨어진 신병  
들을 잘도 잡아냈다.

「턱턱」

영덩이 까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태양 이병, 견딜만 해?」

유홍 이병이 어깨를 툭 쳤다.

「응」

나는 배시시 웃었다.

「용케 잘 견뎌내는군, 약골이.」

「이제 강골이야.」

훈련 중 나는 많이도 쓰러졌다. 그러나, 이제는 강해 졌다. 나는 철의 실로 꼬아 만든 것 같은 탄탄한 근육을 뽐내 보였다.

「하긴.」

유홍 이병은 인정하고야 말았다. 그의 우람한 팔로도 팔씨름에서 나를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

기다리는 상태란 어디서나 불안하고 지루한 것이었다. 신교대란 신병들이 배속을 기다리며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곳이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기다림과 함께 군기는 무지무지하게 센 곳이다. 때문에 신병들은 신교대를 빨리 벗어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홍이, 정섭이 그리고, 나는 근 한 달이나 신교대에서 머물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군대는 비밀도 많은 곳이다. 아무도 무엇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짐작도 할 수 없다.

하여튼, 유홍이, 정섭이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으로

신교대를 떠났다. 우리들은 중동부(中東部)전선의 XX사단 XX연대 X대대 XX중대 X소대 소총수로 전입되었다. 부대에 막 도착하자 위병에 의해 의무대로 인도되었다. 「너희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언제라도 몸이 아프면 의무대를 찾도록, 비록 피병일지라도 한번 쯤 눈감아 주지.」

군의관은 「간디」처럼 코 끝에 커다란 안경을 걸치고 윗테 너머로 배시시 웃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뒷짐을 지고 선 모양이 어쩐지 군인같지가 않았다.

「그러나 여러번은 봐 줄 수 없겠지, 보병 소총수는 전형적인 병사야. 아직 피병부린 녀석을 발견 못했지.」

군의관은 우리들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려 주고서는 그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들은 터무니 없이 마음이 놓였다.

의무대를 떠나자 단박에 상황은 바뀌었다. 어쩐지 마음이 텅 놓였던 쯤전의 분위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보병 소총 소대의 군기는 죽음처럼 엄했다.

신병은 고달팠다. 그 고달픔을 의식할 시간조차 없었다. 소대원 고참들의 종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으나 그 펄박질은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다. 똑같이 훈련을 받거나 작업을 할 때는 그래도 입체감이라도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이며 작업이 끝나버린 시간들은 애오라지 고달픔 따름이었다. 잠밤수에 의해 서열이 결정되는 병들의 세계에서는 이 시간이면 밥 타 오고 식기 닦고 내무



반 청소하고 빨래하는 잡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뿐이라, 어찌 그리도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은지 담배 한 꼬치 맛나게 피워 물고서 후방의 여자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신병한테도 별들 날이 있으리. 신참의 생활도 계속 제 대해 나가고 밀려 올라가고, 또 다시 들어 오는 신병들에 의해 바뀌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지긋지긋한 신병에서 고참과의 중간 대열에 끼이게 되어 군대 생활에 익숙해진다. 그런대로 멋이라는 게 있게 된다. 군인의 멋에 대해서는 여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경험할 수 없는 가막힌 게 있다. 고된 훈련 끝의 담배 맛이며, 마지막 내무교육 후 하루의 종료 시간에 품으로라도 후방의 여자한테 편지쓴다거나 또한 부모의, 형제의, 연인의 답장을 읽어 보는 것 하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그 격렬한 격구(擊毬)를 한 차례 뛰고 나서 중대 회식으로 술을 마시며 한껏 서로 부등켜 안고 추워 보는 춤이며——.

무엇보다 일년에 단 한번 밖에 없는 휴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휴가가 찾아 왔을 때란——. 일주일도 더 오래 전부터 휴가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군인이 준비할 게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전투복을 아무리 말끔히 다리고 또 다려도 군복이지, 언제나 휴가의 준비는 젊은 두뇌의 상상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었다. 부모며 형제랑 친구하고 연인에게 들려 줄 많고도 많은 얘기들——. 전 생애를 통해 두 번 다시 체험하지 못할 갖가지 비화들은 두고 두고 애깃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한 태양, 너에게 있어서 휴가는 적극이겠구나.」

나는 내일로 휴가 출발을 앞두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입대한 후로 벌써 일년이 지났다. 내 일신상의 일대 전환일 뿐 아니라 한씨 집안의 징크스를 극복한 중요한 계기였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심지어는 나까지도 군대에 대해 이상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백부들이며 숙부들 그리고 아버지를 쫓고 지나간 재난이 나에게도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허약한 체격이 강철처럼 단단해 지고 그 모든 불길한 조짐 위에 군림하게 된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무어라고 하실까? 아버지랑 어머니는—— 나는 어떻게 대답할까. 그냥 웃기만 할까.」

즐거운 환상은 밤을 관통하여 새벽으로 이어졌다. 나는 전전불매하였으나 머리가 조금도 어지럽지 않았다.

유홍이 일병은 정섭이나 나보다 먼저 휴가를 떠났다. 같이 훈련받고 같은 부대 같은 소대에서 고생해 온 우리들이었다. 때문에 유홍은 우리들과 함께 떠나기를 바랬으나 그것은 턱도 없었다. 인간의 운명이 언제나 개별적이듯이 군대의 사정도 개별적이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군대의 규범이었다. 그는 일주일 늦추려 했으나 예정대로 먼저 가 버렸다. 해서, 정섭과 나는 이제 휴가를 가게 된 것이었다.

「귀대 때 마장동 시외 버스 정류장서 만나자.」

정섭의 고향은 서울이고, 나의 고향은 남쪽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헤어졌다.

나는 고향에 왔다.

「내 아들이, 이게 꿈이냐 생기냐.」

어머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켜 보시는데도 나를 부등켜 안으시고 우셨다. 나도 두 줄기 눈물의 뜨거움을 볼에 느낄 수 있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우셨다.

은자암으로부터 감쪽 같이 사라져버린 나는 일년 동안 집에 소식도 알려 주지 않았다. 입대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리긴 했지만 그것을 내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어딘가 있으리라 짐작만 해도 뻔질나게 면회를 가족들을 경계하기 위해서였다.

나도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 곧세게 설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면회 오는 전우들의 기쁨과 그만큼의 우쭐한 기분인들 모를 리 없었으나 입대하면서 다진 결심은 그것을 초연할 수 있었다. 차라리 이러했기 때문에 한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태양이 돌아 왔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나는 그동안 무소식을 진심으로 사죄하였다.

「원, 이 녀석도.」

할아버지는 기쁨 따름이신 모양이었다. 내 두 손을 소중히 잡아주셨다. 그동안 펴 늘으신 것 같았다. 두툼한 주름살이 이마를 가로 지르고 있었다.

「너를 믿었지.」

아버지는 담담히 말씀하셨다.

「예,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격렬하게 껴안았다. 아버지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함께 뛰었다.

「아버진 기쁘단다. 비로소 한 자식을 완성시킨 것 같구나. 그 동안 우리 집안의 불행 때문에 눈이 어두웠지.」

아버지는 남은 한팔로 내 등을 어루만지시며 조용히 속삭이셨다.

「아버지.」

나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다. 아버지의 잘리운 팔 끝이 등판을 파고 들었다. 그 잘리운 팔을 통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엇이 전해 왔다. 그것은 점점 내 몸 속으로 파고 들었다. 전장에서 잃은 나머지 몽롱한 팔은 마침내 내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이상한 전기를 통했다. 나는 전율하였다.

### <Ⅲ>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하는 창세기 <노아>의 홍수가 생각키웠다. 비는 주룩주룩 내렸다. 산에도 들에도 마을에도 내렸다 지하에 숨어들 수 없었다. 거긴 먼저 떨어진 빗물로 가득찼다. 빗물은 지표를 따라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모여들었다. 낮은 지대가 차오르자 배수로의 물은 도로를 침범하

였다.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그대로 긴 사행천이었다. 마치 길고 넓은 황포로 두른 것처럼 누런 흙탕물이 도로 위에서 번들거렸다.

귀대 버스는 빗속을 헤집고 천천히 나아갔다. 그러나 번개와 뇌성도 없이 내리는 비가 시야를 촘촘히 흐려 놓아 버스는 거북이 걸음이었다. 귀대 시간 안에 델 수 있을런지 의문이었다.

마침내 버스는 조그마한 하천 앞에서 정차하고야 말았다. 하천은 범람하여 흉포하게 흘러 교량을 잠수시킨 것이었다. 버스 안내양은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알려 주었다. 여객들은 뚜렷한 대상도 없이 불평을 쏟았으나 폭우의 쏟아내림에는 당할 재간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씩 둘씩 흩어졌다.

「태량이. 마침 잘됐지, 귀대가 늦어도 괜찮을 천재지변이야. 여기서 놀다 가지.」

정섭이 참지 못하고 말했다.

「글쎄, 걸어서는 건널 수 있을 것 같애.」

나는 귀대가 늦어질까 봐 자신없이 말했다.

「이 빗속을 말이지?」

「빗속이람 어때?」

「군인정신 한번 좋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는 거다.」

정섭은 의미있게 웃으며 내 귀를 잡아 당겼다. 그는 컷속말로 지껄었다.

정섭과 헤어진 것이 뜨악했으나 혼자 귀대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가 내게 주지시킨 약속은 지켜 줄 참이었다.

그는 천재지변으로 귀대가 늦어져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옳은 이야기다. 그는 교통이 복원될 때까지 빈둥거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왕 시작한 군대 생활을 모범적으로 하고 싶었다. 나는 그의 유혹을 완강히 뿌리쳤다.

「무슨 개소리야 가시내가 꼬시어도 안 가.」

정섭의 비양거리는 말소리가 빗소리 속에서도 징징 울려왔다. 빗물이 뼈 속까지 파고 드는지 온 몸이 덜덜 떨렸다.

빗속에 산들은 가라앉고, 사람도 차량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약간 겁먹은 걸음걸이로 빗속을 헤집고 나아갔다. 오후 내내 걸으면 부대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십리쯤 걸었을까, 「짜익」하고 한 대의 짚차가 내 곁에 멈추었다. 사단 보안 대장의 차였다. 그는 나를 태워 주었다. 한 삼십분쯤 해서, 부대는 훨씬 가까와 졌다. 비도 그쳤다.

전선의 날씨는 명쾌해서 좋았다. 저 남쪽의 날씨처럼 지질구질하게 꾸물거리지 않았다. 남쪽에서 구름은 비를 한 번 뿌릴려 해도 며칠을 몸부림치는 것이었다. 그 헛탕질에 비해 언제나 또 흠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곳은 흐리고 개는 게 명확했다. 비가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는 것이다.

하늘은 맑게 개고, 구름덩이들이 산 허리를 감고 산꼭대기로 이동하였다. 그것들은 마치 지구가 생성의 시절에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하고 몸뚱이의 뽀족뽀족한 부분으로 분출하는 것처럼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 갔다.

나는 산뜻해진 산야를 구경하며 천천히 부대쪽으로 걸어갔다. 짙차가 거리를 당겨 주어 서둘게 없었다. 부대에 도착하자 별이 떠오르고 산들이 어둠 속에 음험하게 드리났다.

부대는 <부영이 1호>의 비상에 돌입해 있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5분 대기조가 되었다. 우리 소대가 5분 대기조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귀대 신고를 간단히 마치고, 단독 군장을 꾸렸다. 나는 3분대 2번 소총수였다. 이미 귀대한 <사냥개> 유흥 일병은 분대장이었다. 아직 귀대하지 못한 정섭 일병은 4번이었고.

하늘 가득히 충만된 달빛은 별빛을 흐트렸다. 별빛은 달빛 속에 녹아 버리고 애오라지 달빛만이 산정에도 능선에도 계곡에도 교교로히 빛났다. 이진(李鎭) 소대장은 소대원 전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켰다. 소대원들은 완전무장을 하고서 달빛 가득한 연병장에 질서 정연히 모였다.

이진 소대장의 선창으로 멸공 구호를 외쳤다.

「초전에 박살내자  
때려잡자 김일성  
쳐부수자 공산당  
무찌르자 북괴군  
이룩하자 유신과업」

소대원들의 우렁찬 멸공 구호로 함성이 산새도 잠든 산

들에 부딪쳐 되돌아 왔다. 우리들은 흥분에 싸였다.

「저기 보이는 게 백마(白馬)고지다.」

이진 소대장은 뒤쪽으로 말처럼 생긴 산을 가리켰다. 말의 어깨로부터 허리를 거쳐 엉덩이로 이르는 능선은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우리들의 눈에 들어왔다. 달빛에 드러난 백마고지는 잿빛으로 빛났다. 깨어진 유리 조각이 햇빛에 반사되는 것처럼 군데군데에서 이상 야릇한 광선들이 빛을 되쬐고 있었다.

「6·25때 격전지다. 우리 국군도 북괴군도 중공군도 저 고지에서 무수히 죽어 갔다. 가뭄과 태양이 지나간 사막처럼 당시는 너무 폭탄이 많이 떨어져 산이 허영계 되었지.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었지만, 지금은 풀이 무성하게 되었으나 훈련용 소이탄으로 산불이 나곤 해서 흑마(黑馬)가 되어 버렸지. 보아라, 저기 흑마의 위용을.」

이진 소대장은 잠시 말을 그쳤다.

「군데군데 빛나는 건 백골의 인광이다. 달빛에 반사되어 무시무시하게 반짝이지. 아직도 그곳에는 원혼들이 배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전쟁은 아직도 저 백골 위에서 비극의 족적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이진 소대장은 말을 마치고 우리들을 하나 하나 주시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결심케 하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잘 닦아 논 돌처럼 차갑게 가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은 서로 운명적인 적이며,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한 요구였기 때문이었다. 왜 싸워야 하며 싸우면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거기 이십여년이 지난 오늘날도 아무렇게나 버려진 적들의 백골이 대답해 주고 있었다.

「적만이 여기가 무덤이 아니다. 너희들도 이곳에 무덤을 파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푸른 전투복이 수의(褌衣)며 이곳이 너희들의 묘지라는 각오가 없이는 너희들의 부모와 형제, 친구와 애인의 화려한 의상은 모두 수의로 변할 것이고, 강토는 거대한 묘지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일관된 흥분이 전신을 휩쓸어 갔다. 그것은 그리하여 눈빛으로 표출되어 나타났다. 우리들의 눈동자의 광채는 흰 달빛을 압도하였다.

「자, 출동이다.」

이진 소대장의 명령만이 널다란 연병장을 가로 질러 갔다. 우리들은 방광방음 장치를 하고서 소리 없이 출발하였다. 모두 토인처럼 시꺼멓다.

괴한들은 남방철책선을 절단하고 우리 부대까지 침투하였다. 우리들은 놈들을 수색 섬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떠넘길 수 없는 임무였다.

괴한은 셋. 우린 각 분대별로 분대장의 책임하에 지시된 지역으로 신속히 이동하였다. 1분대는 우측 산맥들의 능선을 따라 좁혀 오고, 2분대는 좌측 산맥들의 능선을 지키고, 3분대와 4분대는 앞뒤 계곡에서 압축해 오도록

명령이 하달되었다.

전방의 산은 그 자체가 이미 음흉한 적으로 가득차 있었다. 키를 넘는 잡초와 잡목은 독기를 품고서 우리들의 전진을 완강히 거부하는 것이었다.

〈사냥개〉 유홍 일병은 산 짐승처럼 그것들을 잘도 헤쳐 나갔다. 나는 숨을 할딱거리며 그의 뒤를 추적하기에 바빴다. 각 분대원들은 좌우로 짝 깔리었고, 나는 부분대장으로로서 분대장인 그를 적당한 거리로 바짝 따라야 했다.

유홍 일병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없어졌다. 달빛은 수목 위에서 어지럽게 흩어졌다. 수목 사이에서는 이상 야릇한 그림자들이 난무해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나는 이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엉겁결에 그 그림자들을 향해 M16을 당겼다. 달빛에 드리난 산들은 그 무게만큼의 고요를 깨고 요란한 총성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흑마고지도 놀란 말처럼 떨 것 같았다.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총성이었고, 그만큼 우발적이었다. 총소리에 놀란 적은 AR 소총으로 응사해왔다. 순간 나는 장탄지가 강하게 수축하는 것 같은 충격과 함께 나동그라지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요란한 총성은 멈추었다. 달빛도, 달빛에 드리난 산들도 무겁게 고요 속으로 빠져들었다. 나는 장탄지에 빠져 지근한 통증을 느꼈다.

정신이 점점 가물가물해 갔다. 할아버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오우버랩되어 나타났다. 이진 소대장의 얼

굴이, 유홍 일병의 얼굴이 덩쳐왔다.

「태양 일병——」

〈사냥개〉 유홍 일병의 다급한 외침이 나의 뇌리에서 점점 사라져 갔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도 사라져갔다. 이진 소대장의, 유홍 일병의 모습도 가물거렸다. 그 순간 운명의 온갖 불가해한 것들이 녹아버리는 것이었다. 할아버지로부터 백부들과 아버지와 숙부들이며 나에게로 이어지는 한씨 가문의 불행은 이미 이룰 수 밖에 없는 민족의 비극 앞에 설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정말로 하찮은 것이었다. 내가 입은 전투복이 수의가 되고, 내가 선 자리가 묘지가 되어야 한다는 이진 소대장의 주장은 억지가 아니었다. 두 동강이 나버린 조국의 현실보다 더 강렬한 현실은 없었다.

씨를 보존키 위해 애태우시는 할아버지도, 잘리운 팔의 아버지도, 장판지에 총상을 입은 나도, 유홍 일병도, 이진 소대장도 저 흑마가 청마〈靑馬〉가 되기 전에는 간종(肝腫)처럼 앓지 않을 수 없으리라, 나는 비로소 나의 가장 빛나는 청춘시절을 고통스럽게 응어리지게 한 족쇄로부터 풀려짐을 느꼈다. 나는 조용히 누워 있었다. 그들은 신속히 나를 떠메갔다.

## 심 사 평



안 수 길(소설가)

예심에서 넘어 온 5편 모두가 기대 했던 것보다 수준이 저조했다. 전반적으로 독창성이 부족했고 상투적인 작품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백마와 흑마”(김경수)는 비교적 능숙한 솜씨로 쓰여진 작품이었다. 주제의 독창성이 아쉬운 대도 무리 없이 소설을 꾸미고 있다. 이 점을 인정, 우수작으로 밀었다.

“하얀 설화”(신충행)는 설명 위주의 스토리 전개와 구성력의 미흡으로 한 가족의 비극을 작품으로 승화시키지 못했고, “정연리 화설”(오광식) 역시 상투적인 소재를 안일하게 다루었다. 사물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 제7회 국토통일에 관한 작품현상모집 당선자 시상식 축

>>> 1976. 11. 12

<<<<< 국<토<통<일<안<환<<<<



제7회 국토통일에 관한 작품 현상모집 당선자 시상식을 마치고 1976. 11. 12.

# 입상자 명단

## 초 등 부

최우수 :	김 남 일	서울 대광	6	입 선 :	류 재 준	서울 성신사대부	5
우 수 :	한 명 순	충북 남신	6	"	김 인 숙	강원 한남	5
"	남 선 회	충북 공북	4	"	김 경 미	경남 산호	6
"	김 상 회	경북 월성	4	"	이 윤	전남 중앙	5
가 작 :	박 금 옥	충북 강의	6	"	이 영 철	제주 남	5
"	박 윤 제	경북 호명	4	"	안 은 미	충북 교현	4
"	이 주 원	서울 개봉	5	"	최 은 영	서울 영훈	4
입 선 :	김 원 옥	서울 용마	5	"	김 계 향	강원 속초	4
"	김 극 진	경북 용궁	6	"	백 효 영	서울 창동	5
"	홍 민 회	충북 청천	6	"	이 경 연	경북 남산	5
"	한 송 이	서울 성수	6	"	연 제 선	충북 증명	4
"	이 미 숙	충북 중앙	5	"	전 혜 인	경기 인천교대부	3
"	김 덕 회	경남 동해	6	"	조 병 현	경북 달성	6
"	김 민 선	전남 여수동	5	"	정 현 아	강원 학성	6
"	이 영 숙	충북 남한강	6	"	임 영 순	충북 중앙	6
"	김 종 만	경기 송신	4	"	오 소 영	전남 학강	5
"	고 수 경	경기 신흥	6	"	신 민 회	강원 황지	4
"	김 형 순	경남 동해	5	"	박 명 회	강원 봉의	6
"	박 인 정	전남 경호	3				

## 중 등 부

최우수 :	유 병 익	서울	중대부	1	입 선 :	윤 양 순	서울	대방	1
우 수 :	진 영 삼	제주	중양	3	"	김 준 경	강원	원주	2
"	전 상 회	서울	성산	3	"	박 찬 임	서울	동명	3
"	천 재 성	경남	마산	2	"	오 정 석	부산	감만	1
가 작 :	강 훈 택	제주	오현	3	"	이 병 곤	부산	감만	1
"	임 유 순	서울	천호	3	"	김 선 민	서울	성일	1
"	성 혜 경	서울	동일	2	"	서 영 태	서울	청량	3
입 선 :	김 만 석	전남	구봉	2	"	최 동 정	서울	명지	1
"	임 미 영	서울	정신	3	"	이 상 민	경기	영복	3
"	노 세 회	서울	서대문	3	"	장 홍 석	경기	삼일	2
"	김 경 구	서울	명지	2	"	나 금 안	전남	금정	3
"	국 민 수	서울	성일	2	"	양 명 순	서울	명지	2
"	최 장 목	서울	배문	1	"	김 승 원	강원	학성	1
"	백 승 통	충남	홍산	3	"	김 선 애	전남	성요셉	금릉 2
"	정 기 섭	서울	성일	3	"	남 머 경	경북	영천	2
"	이 향 란	전남	효광	3	"	황 수 연	서울	화곡	3
"	한 상 미	서울	동대문	3	"	차 광 수	전남	복성	2
"	고 애 련	서울	문영	3	"	차 문 중	서울	청운	3

## 고 등 부

최우수 :	박 신 욱	서울 휘경 1	입 선	박 수 원	강원 홍천농 1
우 수 :	이 영 국	경기 제물포 1	"	이 승 균	서울 철도 3
"	임 경 화	서울 동덕 1	"	김 연 희	전남 숙문
"	최 무 열	부산 배정 1	"	김 명 회	제주 여자 1
가 작 :	이 영 숙	충북 대성 3	"	소 순 영	전남 숙문
"	정 정 미	서울 혜화 1	"	임 남 훈	전남 전남기공 2
"	부 숙 희	제주 여자 1	"	손 종 우	부산 경남 1
입 선 :	박 영 춘	부산 경남 2	"	민 형 기	충남 대전 1
"	이 희 천	충북 충북 3	"	박 현 옥	강원 강릉 1
"	정 치 희	전북 전라 2	"	강 경 애	경북 청도 2
"	심 경 은	서울 배화 1	"	이 속 영	경기 영북 2
"	송 임 숙	충북 중앙 1	"	허 지 춘	강원 강릉 2
"	김 형 일	부산 남고 2	"	신 회 철	충북 제천 2
"	오 선 욱	충남 천안 1			

## 일반부 소설

우 수 : 김 경 수 제6828부대 3대대 의무대